

K . W . C O M P L E X

N A T A C H A N I S I C P A R K C H A N - K Y O N G

Park Chan-kyong

This book is the publication of my two-person show with Natacha Nisic, *K.W. Complex* (Atelier Hermès, 2012). At the same time, it is an independent element of the exhibition in itself, which deals with information and areas of interest that go beyond those explored in our work as well as the strategy behind the planning of the exhibition.

The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Natacha and myself began with a book and a film: an edition titled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otherwise known as *In the Land of Morning Calm* (1915) containing the travel diary of Norbert Weber in Korea, a monk who was head of a Benedictine community at St. Ottilien in Bavaria,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and a documentary of the same title, which he filmed in 1927. I was able to see the photos but could not read the text in German, and Natacha understood German but was un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s such, we hoped that we could help each other mutually. We were both well aware of the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result between the two of us in communicating in English, and the issues that would arise i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Korean, German, French, and English translations. In fact, we believed that the gap between the languages should contribute to creating a certain opening within the exhibition.

Norbert Weber's book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n right before the exhibition. Before the translated version was available, I had read only the important parts

of the book, "important parts" being the pages that Natacha had marked for me. When I read the Korean translation later on, I could see even more clearly that what I took for granted could seem exotic in the eyes of a foreigner. Such a way of working helps me to become more objective when I read texts.

While we were exchanging emails and letters on the book and the film, Natacha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residency program organiz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a museum in Gyeonggi Province. During her residency at Gyeonggi Creation Center, she discovered a female shaman who visited the area from time to time, and made a video about her. In a way, such a chance encounter in itself is one of the themes of our work. For me, such an encounter, as slight as a strand of thread, seems to be a metaphor of the earnestness of a situation. After Natacha went back to Paris, I received an email from her. In it, she asked the meaning of the names of shamanistic spirits such as *jakdu janggum*, *seongsu daesin*, and *chilseongnim*. The email was in Korean, which she had typed with the help of a Korean student studying in Paris. To see the names of these spirits, that even a Korean student was unfamiliar with, appear in the email of a French artist left me with a strange feeling. I wonder if that also was not due to a sudden jolt back to a repressed memory that resurfaces unexpectedly in a narrow passage.

Around that time, I was making a documentary film on the female shaman, Kim Keum-hwa. Naturally, I came to talk about Andrea Kalff,

박찬경

이 책은 나와 나타샤 니직의 2인전 <K.W. Complex> (아뜰리에 에르메스, 2012)의 전시 도록이다. 그러나 전시에 보이지 않았던 정보, 작품보다 확장된 관심사, 문학적인 상상이나 전시구성의 전략 등을 전시로부터 독자적으로 다루는, 전시의 다른 한 짝이다.

나와 나타샤의 협업 프로젝트는 한 권의 책과 한 편의 영화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초 한국의 일상을 기록한 독일의 베네딕트회 수사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책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대한 기행문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1915)과 그가 1927년 제작한 동명의 기록영화가 그것이다. 나는 책에 실린 사진을 볼 수는 있었지만 독일어를 읽을 수 없었고, 나타샤 니직은 독어에 능했지만 한국문화에 낯설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물론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우리 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오해나, 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영어 사이의 중역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간극이 이 전시에 오히려 어떤 열린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노르베르트 베버의 책은 전시가 열리기 직전에 우리 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중요 부분만 발췌해 읽었을 뿐인데, 그 중요 부분이란 나타샤가 내게 '북마킹'해준 쪽들이다. 나중에 국역본을 읽었을 때, 내가 당연시했던 부분을 외국인은 색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뚜렷이 알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확실히 내 독해 관습을 객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책과 영상에 대해 이런 저런 이메일과 우편을 주고받던 중, 나타샤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타샤는 경기창작센터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찾아오던 한 무녀를 발견하고, 그녀에

대한 비디오 작품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연한 만남 자체가 작업의 한 테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는 이런, 실낱 같은 작은 만남이야말로, 어떤 상황의 절실함을 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타샤가 파리로 돌아간 이후, 나타샤에게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작두장군, 성수대신, 칠성님 등 무속 신령 이름의 뜻을 묻는 것이었다. 이메일은 한국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타이핑되어 있었다. 한국 학생도 모르는 이 신령들의 이름이 한 프랑스 작가의 이메일에 나타났을 때, 나는 아주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 역시, 작은 통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억압된 기억의 회귀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무렵 나는 김금화 만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김금화의 독일인 신딸인 안드레아 칼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구나 안드레아 칼프 역시 노르베르트 베버가 수도원장을 지낸 성 오티리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성 오티리엔은 독일 베네딕트회(한국 천주교에서는 보통 '분도회'로 부른다.)의 중심과 같은 곳이고, 독일에서도 바바리안 카톨릭의 중요한 거점이다. 안드레아 칼프도 전형적인 바바리안 카톨릭 집안 사람이었다. 우리는, 100년 가까운 옛날에 긴 수염의 검은 옷을 입은 한 독일인 남성 수사가 조선 전역을 선교하고 다니면서 적극적인 '시각인류학'적 기록을 남겼다는 점과, 100년 후에 한 독일 여성이 내림굿을 받기 위해 알록달록한 무복을 입고 강화도 '금화당'에 왔다는 기이한 우연에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르베르트 베버, 김금화, 안드레아 칼프의 자료를 본 주변의 많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박만우 전 디렉터의 제의로 전시의 '날을 받았고', 이후 진행은 백지숙 신임 디렉터가 맡게 되었다. 우리 세 사람은 우선 노르베르트 베버가 수도원장을 지낸 성 오티리엔 수도원을 찾아갔다. 이 책에는 마치 베버 수사가

the German “spiritual daughter” of Kim, with Natacha. What was even more striking was that Andrea Kalff lived in a place not far from St. Ottilien where Norbert Weber had headed a monastery. St. Ottilien is like the Benedictine center of Germany and an important Catholic base in Bavaria. Andrea Kalff herself comes from a typical Bavarian Catholic family. We found an element of unexpected drama in the extraordinary coincidence of a long-bearded German monk who travelled all over Korea 100 years ago propagating Christianity and leaving behind an active “visual anthropological” record and a German woman who, 100 years later, came to visit “Keum Hwa Dang” on Ganghwado in Korea all dressed up in a colorful shaman robe.

Many who saw the documents on Norbert Weber, Kim Keum-hwa, and Andrea Kalff showed an interest in our project. We fixed the date of the exhibition following the proposition of the former director of Atelier Hermès, Manu Park, and prepared the show with his successor, Beck Jee-sook. To start off, Beck, Natacha, and I visited Norbert Weber’s monastery in St. Ottilien. Just as Norbert Weber had done when he was in Korea, Natacha and I, as “outsiders,” took photos, which have been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However, we tried to use the photos as a straightforward means of recording information rather than as an expression of an anthropological passion.

What intrigued us in the extremely austere and somewhat gothic monastery was its small museum. The museum was a testimony to the many monks who

perished in the Benedictine Order’s expansion into the “faraway lands” of Asia and Africa. Their noble spirit of sacrifice was emphasized along with the order’s admiration for the natives and the nature of the faraway land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museum had the racial and expansionist format and collection of a small anthropological museum. The current monastery must be aware of this, and the monks appeared a bit “embarrassed.” What we discovered in Norbert Weber’s photos and film was similar to the rhetoric of the museum, but his works had a deeper dimension to them. The text and images by Natacha in the publication provide a richer insight into the subject.

Natacha came back to Korea when preparations for the exhibition began full scale. We visited a Benedictine monastery in Woegwan in Northern Gyeongsang Province. Monks who had lived in the monastery and died there were buried in the surrounding graveyards. The monk who guided us told us that the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villages joked that “the area was crawling with bachelor ghosts.” That story was used in Natacha’s installation work. We also took time out to visit the *guksadang* (shrine that houses the guardian spirit of a village) and *Seon Bawi* or Zen Rocks, named for their resemblance to a Buddhist monk in a robe, on Mount Inwang. Located smack in the middle Seoul, the place could be considered as the shamanistic center of the city. It is there that Andrea Kalff, before her invocatory rite to become a shaman, had her preparatory ceremony with Kim Keum-hwa. That day, we came across a shaman in prayer. The middle-

한국에서 그렇게 했듯이, 나와 나타샤가 ‘외부인’이 되어 찍은 사진들도 일부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되도록 인류학적 열정의 표시 보다는 담담한 정보의 아카이브를 위해 사용되었다.

매우 금욕적이고, 조금은 고딕적인 분위기의 수도원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본 것은 수도원의 작은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베네딕트회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오지’로 확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사들이 희생했는지를 역설한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정신은 선교지의 원주민과 자연에 대한 찬양과 동반해서 강조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작은 인류학박물관으로 인종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컬렉션, 전시구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수도회는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을 터이고, 그래서인지 수사들은 약간 ‘부끄러움을 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노르베르트 베버의 사진과 영화를 보면서 발견한 것도, 이 박물관의 레토릭(전시 방식)과 비슷하지만 그 보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실린 나타샤 니직의 글과 이미지가 더 풍부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전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타샤는 다시 한국에 왔다. 우리는 경상북도 왜관에 있는 한국의 베네딕트 수도회를 방문했다. 수도회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수사들이 인근 묘지에 묻혀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수사는, 이 묘지 부근의 마을사람들이 ‘이 곳에는 온통 총각귀신이 돌아다닌다’는 농담을 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가 나타샤의 설치 작품에 인용되었다. 우리는 또, 시간을 쪼개 인왕산의 국사당과 선바위를 찾았다. 이 곳은 서울 한가운데 있는 무속의 중심지라 할만한 곳이다. 안드레아 칼프가 내림굿을 받기 전에 김금화 만신으로부터 사전 예식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한 무속인을 보았다. 이 중년 여인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도 모를 정도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쌓여 이 전시가 이루어졌다.

전시 제목 <K.W. Complex>에서 K는 김금화를 W는 베버를 지칭한다. K와 W사이에는 안드레아가 있다. 이 세 사람과의 대화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매우 복잡한 시대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정치적인 기억을 불러내면서, 양쪽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 말한다. 한 개인의 절실한 영적 노력과, 종교 문화가 겪어온 역사적인 의미는 서로 대립되기도, 의존하기도 한다.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말을 쓴 것은, 우선 그 복잡성을 지시한다. 그러나 또 한편, 컴플렉스는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중요하지만 억압되어온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낸다. 나는 그것이 한국의 예술계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차원에 속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인의 질병, 죽음, 재난, 우연 앞에 ‘과도하게 나타나는’ 제국주의, 역사, 필연성과 같은 주제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침묵이랄까, 공간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거대한 종교 조직의 글로벌한 역사와 한 개인의 믿음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단절과 대조도 강하다.

다음은 전시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① 나타샤 니직, <독신자들>, 면 소재에 자수, 3.09 x 0.365 x 0.12 m, 2012

실제 수도사 옷에 수를 놓았다. 이 작품은 전시된 서로 다른 인물들 사이에 놓여진 비전통적인 연결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 수도사 옷의 가늘고 검은 천과 한국의 무당 의식에서 사용하는 흰 천이 갖는 형태적 유사성. 무당은 그 천을 둘로 가르며 산 자가 죽은 자의 세계를 건너가는 것을 상징한다. 쓰여진 문장은 작가들이 왜관을 방문했을 당시 기록한 도큐먼트로 카톨릭 묘지에서 수도승이 이를 읊었을 때 작가들은 시골풍경을 보고 있었다.

aged woman was so focused in her prayer that she did not see us when we came closer to film her. Such events, as trivial as they may seem, accumulated to give birth to this exhibition.

The “K” in the title of the exhibition, *K.W. Complex*, stands for Kim Keum-hwa, and the “W” for Weber. Between K and W is Andrea.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three evokes a complex memory of the different times, religions, societies, and politics that traverse the East and the West, and talks about a certain spiritual situation that neither societies have been able to resolve until now. The earnest spiritual efforts of an individual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ligion and culture sometimes clash with and sometimes depend on each other. The reason we chose to use the word “complex” is first and foremost to indicate the complexity of this relationship. However, from a psychoanalytical perspective, the word also suggests important but repressed feelings or thoughts. I am convinced that such feelings or thoughts are tied much more to a “religious” dimension than the artistic and intellectual circle of Korea believes. It is a subject matter that resembles such recurring themes as imperialism, history, and inevitability, which “appear excessively” in the face of individual sickness, death, disaster, and chance in Korea. We wanted to talk about a certain silence, a certain opening in between. For example, between the global history of an immense religious organization and the faith of an individual, there is exchange, but so too a strong sense of rupture and contrast.

The following is a brief description of the works on display.

① Natacha Nisic, *The Bachelor*, cotton sheet and broidery, 3.09 x 0.365 x 0.12 m, 2012

An actual monk’s scapular that has been embroidered. It features multiple references that can be read as unconventional bridges between the various figures displayed in the exhibition. A formal analogy between the black narrow sheet of the scapular and the white narrow sheet used during the Korean shaman ritual, which symbolize crossing from the world of the dead to that of the living. The scapular as a simple artifact of minimal art. The sentence as a documentary report of our travel to Waegwan. It was spoken by a monk in the Catholic cemetery as the artists watched the country landscape.

② Park Chan-kyong, *Dialogue with Kim Keum-hwa*, video, approximately 25 min., 2012

Kim Keum-hwa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Korea as an artisan of Daedong Gut and Baeyeonsin Gut. Kim Keum-hwa is a great shaman continuing the tradition of Hwanghae-do Gut. Kim Keum-hwa is the most famous figure among Korean shamans both at home and abroad. What other roles does Kim Keum-hwa have? Kim Keum-hwa first became greatly famous in the mid-1980s. She made several exclusive appearances on major TV programs such as *Let’s Meet at 11pm*. To this day, wherever she performs a major gut, she is surrounded by many cameras.

② 박찬경, <김금화와 나누는 대화>, 비디오, 25분, 2012

김금화는 서해안 대동굿과 배연신굿의 기능보유자로 한국의 무형문화재이다. 김금화는 황해도 굿의 전통을 잇는 큰 무당으로 한국의 무당 가운데 국내외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김금화는 또 누구일까? 김금화는 80년대 중반부터 크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KBS <11시에 만나다>와 같은 당시의 주요 TV 쇼에 여러 번 단독 출연했다. 지금까지도 그녀가 큰 굿을 하는 곳이면, 언제나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에워싼다.

TV쇼의 방청객, 인터뷰어들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왜 무당이 되었나? 결혼생활은 어땠나? 작두는 신이 내려야만 탈 수 있는 것인가? 무속은 미신이 아닌가? 조만간 통일이 될 것인가?

이 비디오에는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편집되어 있다. 그 사이사이에 신중하게 선택된 김금화 굿의 주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우리는 두 개의 쪼개진 화면을 동시에 본다.

김금화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는 누구일까?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도, 답은 잘 기입되지 않는다. 많은 현대의 한국사람은 전통문화에 관한 한, 수많은 질문과 숙제대기를 반복하는 기계와도 같다.

③ 나타샤 니직, <안드레아>, 비디오 설치, 스크린 5개, HD 모니터, 스테레오 사운드, 약 10분, 2012

part 1. 만남: 바바리아 출신의 젊은 여인인 안드레아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었다.

김금화를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로 결심한다.

part 2. 영혼들: 그들이 우리 영혼들에 대해 뭐라 하며, 어떻게 치유하는가?

part 3. 치유: 안드레아가 바바리아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하다.

part 4. 아카이브: 바바리아 방송국이 신내림을 받는 안드레아를 취재한 내용이 한국에서 방송된다.

part 5. 목소리들: 안드레아의 개인사

④ 박찬경, <의논>, 설치, 2012

보통 한국의 집안에서는 흥향(제상에 차린 음식을 영혼이 드는) 시간이 되면 소등하고 병풍을 쳐서 영혼이 오붓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자손도 엄격한 의례에서 잠시 벗어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조상의 영혼이 음식을 드시니 방해하지 않도록, 마치 영혼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처럼.

이 때 병풍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리기 위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림으로 오히려 영혼이 그 뒤에 있다고 느끼게 한다. 유령은 보이지 않을 수록 가까워진다고 할까. 유교는 불교 못지 않게 설치미술의 대가이다. 이 작품에서, 병풍의 그림은 제사상의 안쪽으로 쳐서, 산 사람은 병풍의 뒷면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난생 처음 죽은 이의 외부에 있게 된다.

TV show audiences and interviewers constantly ask her questions. Why did you become a shaman? How was your marriage? Can only possessed shaman dance on the blade of a straw cutter? Isn't shamanism a superstition? Do you think reunification will happen soon?

On this video screen, there are edited images of people who look at her and people who ask her questions. The screens show carefully chosen major scenes of Kim Keum-hwa's gut. In the end, we watch two spilt screens simultaneously.

Many questions regarding Kim Keum-hwa, and gazes towards her, echo back to us. Who are we to ask her questions? Although these questions have answers, the answers barely fill the void. Contemporary Koreans are like a machine repeatedly producing countless questions and giving out assignments about traditional culture. Shamanism is at the core of this.

③ Natacha Nisic, *Andrea*, video installation, 5 screens, HD monitor, stereo sound, around 10 min. each, 2012

part 1. The Encounter: Andrea, a young married mother of three children living in Bavaria, met Kim Keum-hwa and decided to change her entire life.

part 2. Souls: Our souls - What do they say, and how to cure them?

part 3. Healing: Andrea's practice in her home in Bavaria.

part 4. Archives: Bavarian television's reportage covering the initiation of Andrea in Korea.

part 5. Voices: The intimate history of Andrea.

④ Park Chan-kyong, *Discussion*, installation, 2012

When it comes time for a Korean family to perform ancestral rites and offer food to ancestral spirits, the family normally turns off the lights and erects a folding screen to be considerate of the spirits' enjoyment. During this time, the living descendants share a friendly conversation away from the strict ceremony. When speaking, they should use low voices so as not to interrupt their ancestral spirits' meal, as if they were carefully listening to the spirits talking.

In this situation, a folding screen is used to obscure spirits that we cannot even see, but covering these unseen things makes us feel like the spirits are just behind us. The more the spirits cannot be seen, the closer they may seem to us. At this moment, the illustrated side of the folding screen is facing the inside of the table, with the living people facing the back of the folding screen. For the first time, we—the living—are peripheral and the deceased are central, instead of the deceased being in the periphery of the living. In this manner, the installation of Confucian culture is utilized like Buddhism and shamanism.

⑤ 나타샤 니직, <수도복>, 면소재, 3 x 1.50 m, 2012

수도사복을 확대하여 만들고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화도록 탈색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선교사의 복장은 폴카 의상 같기도 하고 정신병동 환자들이 입는 거친 마 소재의 옷 같기도 하다.

⑥ 나타샤 니직과 박찬경, <노르베르트 베버의 사진을 자르기>, 사진슬라이드 영사, 설치, 2012

⑦ 나타샤 니직과 박찬경, <노르베르트 베버의 영화를 편집하기>, 비디오, 약 5분, 2012

수도원의 노르베르트 베버 수도원장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하여, 방대한 양의 글과 스케치, 사진과 영화로 당시 조선 풍습을 기록했다. 그는 준인류학자의 태도로 한국의 '생활 문화, 노동, 종교, 풍경' 등을 자세히 묘사했으며 이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그의 영화는 유럽 곳곳에서 상영되었고, 최근 한국에서도 DVD로 나왔다.

조선을 보는 그의 시선은 신중하고 따뜻하다. 그의 독일중심의 사고와 식민주의자의 태도는, 한국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별로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상충하는 두 세계를 화해시키는데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과 영화는 그 생래 속성 때문에, 촬영한 사람의 의도와 무관한 순간이 자주 드러난다. 촬영자의 이데올로기, 믿음과 카메라의 기계적 작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촬영자와 촬영한 결과 사이에는,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만 있다면) 무수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진을 '크로핑'하고 영화를

재편집하면서 나타샤 니직과 박찬경은 그 차이를 최대화한다. 죽은 자료함의 관 뚜껑을 열어, 위신을 갖춘 독자적인 유령으로 조선을 불러낸다. 선교사의 카메라로부터 조선과 조선인을 죽어서나마 해방시키기.

⑤ Natacha Nisic, *The True Robe*, cotton costume, 3 x 1.50 m, 2012

The true robe is an enlarged monk's costume whose color fades from black to white, referencing the era of missionary dress, the costumes in Chamamé folk music or even the coarse fabric robes of psychiatric hospitals.

⑥ Natacha Nisic & Park Chan-kyong, *Cropping the <Im Lande der Morgenstille>*, slide projection, installation, 2012

⑦ Natacha Nisic & Park Chan-kyong, *Editing the <Im Lande der Morgenstille> - reediting of the film <Im Lande der Morgenstille>*, approximately 5 min., 2012

The abbot of a Benedictine monastery, Norbert Weber visited Joseon tw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documenting the customs of Joseon through extensive writings, sketches, photographs, and films. He detailed the life, culture, work, religion, and landscape of Korea in a quasi-anthropologist manner, and published *Im Lande der Morgenstille*, its title based on his research. His film has been screened in several locations in Europe, and was released in DVD format in Korea.

His gaze towards Joseon is deliberate and warm. His German-centered thinking and colonial mindset do not appear to conflict with his loving gaze toward Korea. Perhaps no problem arises simply because he is incapable of reconciling the two conflicted worlds.

Due to the innate attributes of photography and cinema, certain moments are revealed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shooter. As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ideology and beliefs of the cameraman or photographer and the machinery movement of the camera, there are countless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shooter and the result of shooting (as long as the differences can be separated effectively). By cropping photographs and re-editing films, Natacha Nisic and Park Chan-kyong maximize these differences. Opening the figurative box of Weber's materials, they evoke Joseon by means of a dignified and independent spirit. Through this act, they liberate Joseon and the Joseon people—although they are already dead—from the confines of the missionary's camera.

K.W. COMPLEX

CONTENTS

K.W. COMPLEX | PARK CHAN-KYONG

THE FATHER | NATACHA NISIC

N.W. | NATACHA NISIC

THE MOTHER | NATACHA NISIC

DIALOGUE WITH KIM KEUM-HWA | PARK CHAN-KYONG

THE DAUGHTER | NATACHA NISIC

ANDREA | INTERVIEW WITH NATACHA NISIC

목차

K.W. COMPLEX | 박찬경

아버지 | 나타샤 니직

N.W. | 나타샤 니직

어머니 | 나타샤 니직

김금화와 나누는 대화 | 박찬경

딸 | 나타샤 니직

안드레아 | 나타샤 니직 인터뷰





①

나타샤 니직, <독신자들>, 면 소재에 자수, 3.09 x 0.365 x 0.12 m, 2012

Natacha Nisic, *The Bachelor*, cotton sheet and broidery, 3.09 x 0.365 x 0.12 m, 2012



②

박찬경, <김금화와 나누는 대화>, 비디오, 25분, 2012

Park Chan-kyong, *Dialogue with Kim Keum-hwa*, video, approximately 25 min., 2012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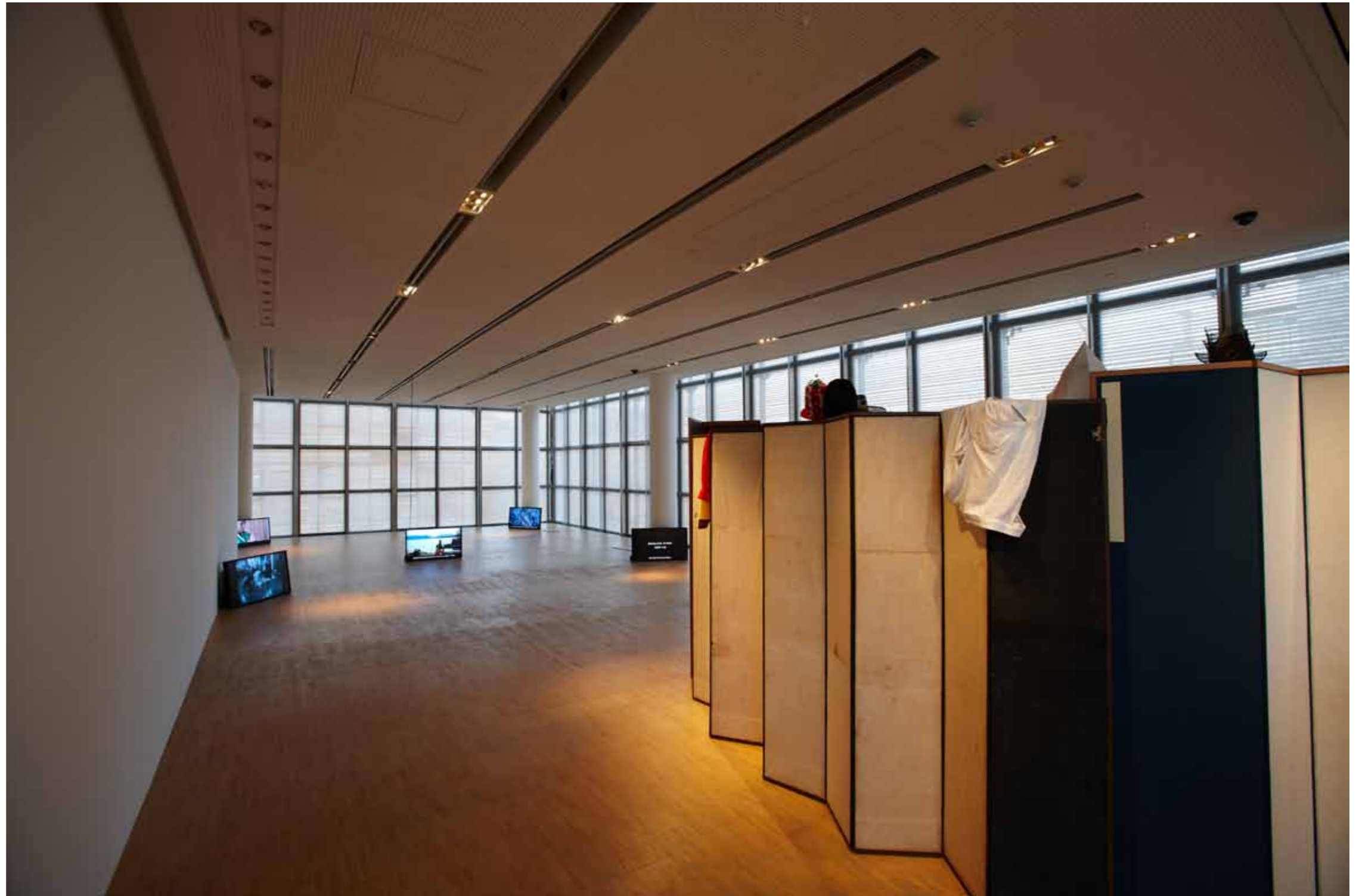
나타샤 니직과 박찬경, <노르베르트 베버의 영화를 편집하기>, 비디오, 약 5분, 2012
Natacha Nisic & Park Chan-kyong, *Editing the <Im Lande der Morgenstille>*-
reediting of the film <Im Lande der Morgenstille>, approximately 5 min., 2012



③

나타샤 니직, <안드레아>, 비디오 설치, 스크린 5개, HD 모니터, 스테레오 사운드, 약 10분, 2012

Natacha Nisic, *Andrea*, video installation, 5 screens, HD monitor, stereo sound, around 10 min. each,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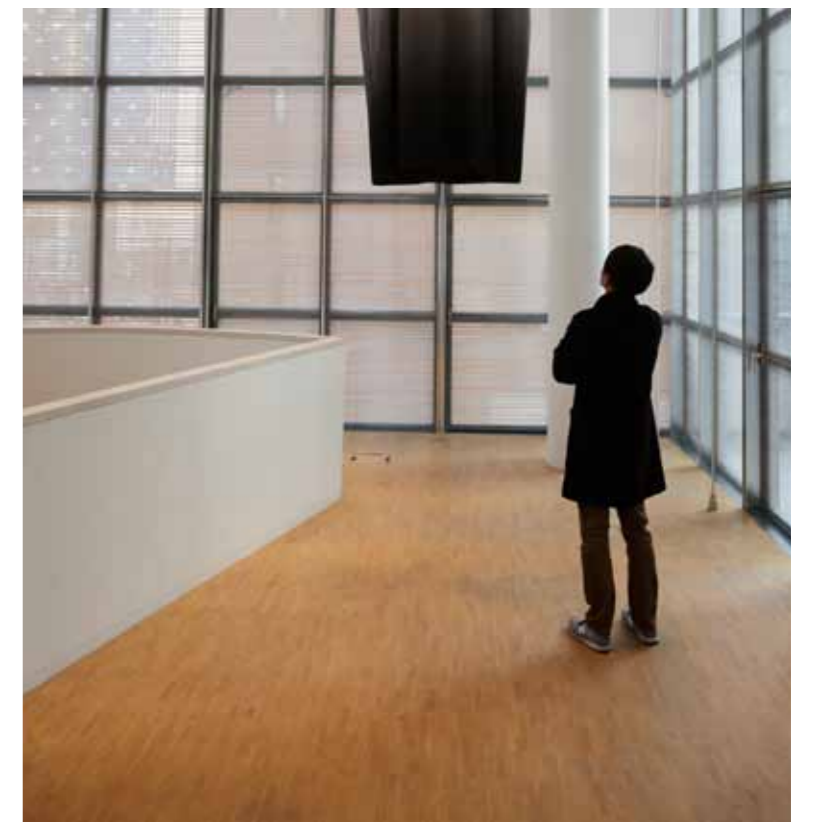
④

박찬경, <의논>, 설치, 2012

Park Chan-kyong, *Discussion*, installatio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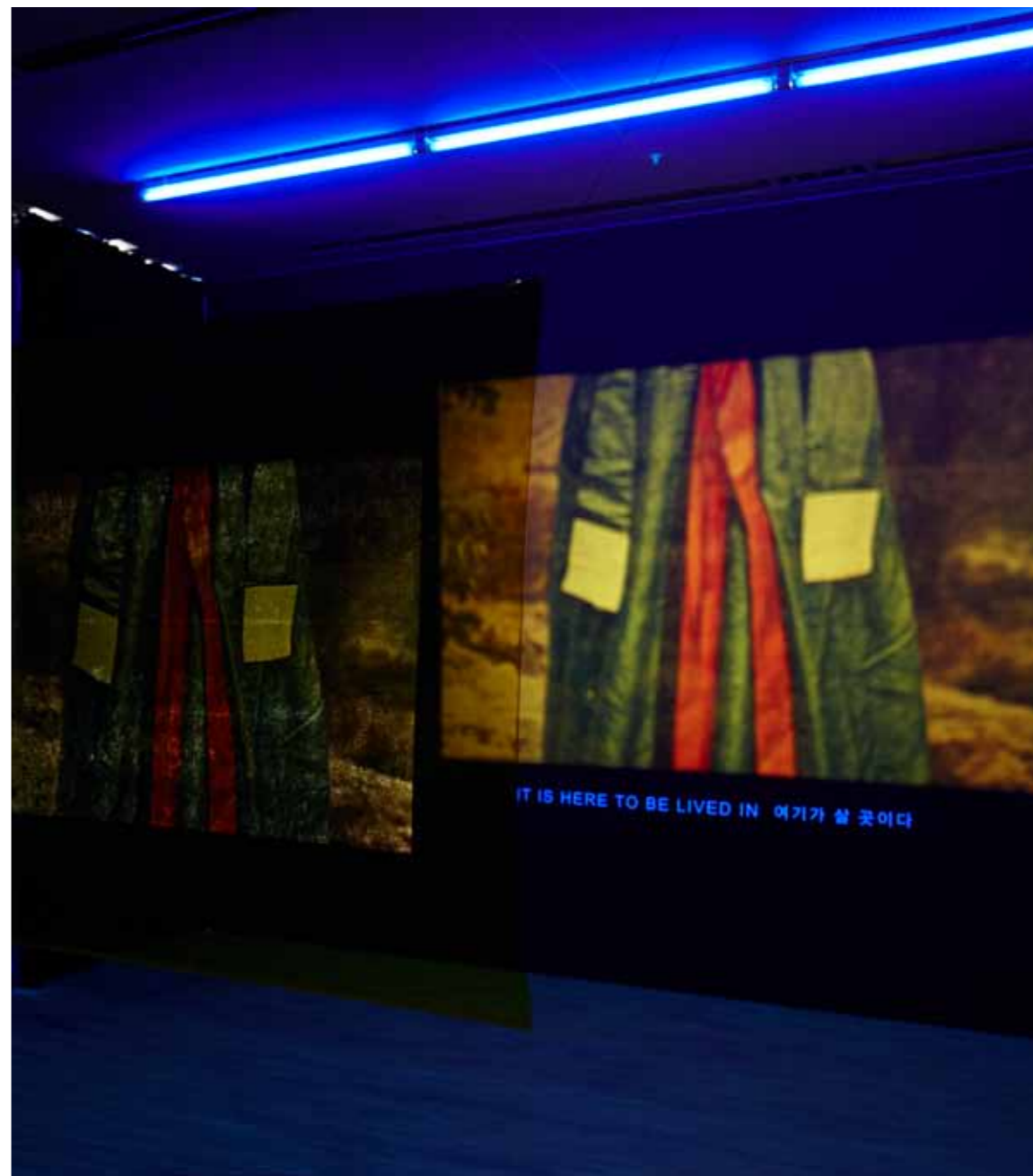


⑤

나타샤 니직, <수도복>, 면소재, 3 x 1.50 m, 2012

Natacha Nisic, *The True Robe*, cotton costume, 3 x 1.50 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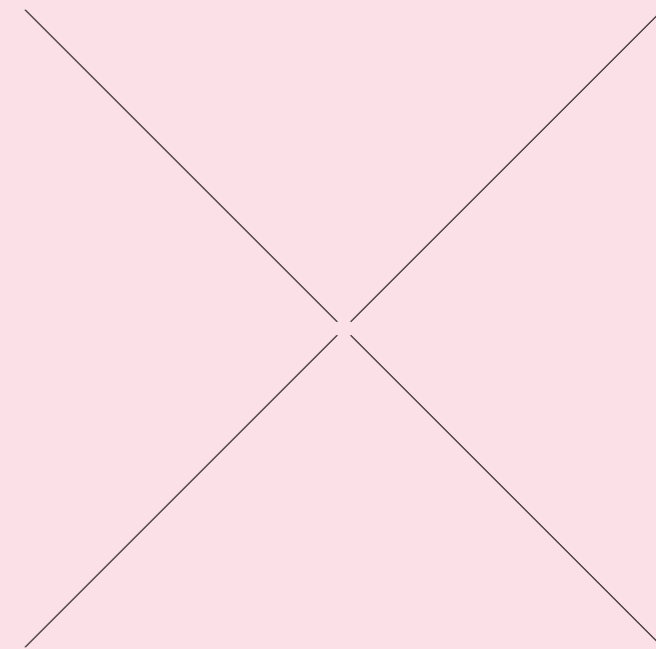
©

나타샤 니직과 박찬경, <노르베르트 베버의 사진을 자르기>, 사진슬라이드 영사, 설치

Natacha Nisic & Park Chan-kyong, *Cropping the <Im Lande der Morgenstille>*, slide projection, installation, 2012



LE PÈRE



아
머
지

THE FATHER

아버지

나타샤 니직

•

만남

나는, 박찬경이 1915년에 출판된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기 전까지 노르베르트 베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책은 바이에른주에 있는 성 오틀리엔 수도원을 이끌던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베네딕트회 신부의 여행기, 사진, 그리고 그림들을 담고 있는 구하기 힘든 독어 원서였다. 박찬경과 나는 예술가로서 일종의 『도둑 맞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자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나는 미흡하고 결점투성이인 내 독일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번역을 한 후 내 관점을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 모두) 전하기로 했다. 우리는 번역 없이도 사진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사진 이미지들은 즉각적이고도 명백하게 읽히는 듯 했고, 나에게 있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행위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과 같았다. 정면을 주시하는 어린 아이나 검정 머리를 길게 탄 여인의 시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어떤 의지와 도덕적 질서를 드러내는 듯 하다. 그리고 마치 귀신을 연상시키는 혹은 나의 문화권에서 백색이 상징하는 순수함을 연상시키는 남녀의 풍성한 흰 의상은 흑백 이미지에 심표를 찍는다. 보다 높은 문명의 징조처럼 말이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 초가집 앞에 모여있든, 흙으로 뒤덮인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든, 혹은 기념 석비 앞에 있든 육체는 마치 부유하는 비물질성에 맡겨진 듯하고 그들의 삶의 성격과 질은 그들의 얼굴에서만 가늠할 수 있다. 그들은 표정이 없다. 그 어떤 난폭함도 즐거움도 없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시선들이 사진을 찍는 자가 서있는 부재자의 자리를 계속 꿰뚫어볼 뿐이다. 먼 곳에서부터 복잡하고 무거운 기기를 가져온 검은 의복의 가톨릭 신부가 그들과 완벽한 대비를 이룬다. 그는 기기의 용도가 시선의 기억이라고 말해준다. 이는 선교사로서 그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선교

1910년 10월, 노르베르트 베버는 베를린에서 개최된 식민지 관련 회의에 논문을 제출한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 독일도 자국 문화의 위대함을 지각하고 무엇보다도 독일의 문화정치적 확장에 국가와 교회를 연계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한다. 그는 괴첸 백작의 말을

인용한다. “한 민족의 정신적·경제적 발전 단계와 백인종이 도입한 고등 문화와의 괴리는 결국 저항을 초래한다.”(노르베르트 베버, 박일영/장정란 옮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서울: 분도출판사, 2012, p. 553.)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적 권력은—이는 대개 외국인과 외국 문물에 대한 물리적 저항에 수반되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 내재하기도 하거니와—오직 정신의 힘으로만 극복된다. 식민지의 평화적 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 전파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종교를 통해 성화聖化된 자각이며 거기서 생성된 시민적 의무감이다. 발전은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유기적 성장처럼 안에서 밖으로, 조용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앞의 책, p. 553.)

노르베르트 베버 식의 선교는 ‘유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항에 대한 해독제와도 같이 말이다. 왜냐하면 한 민족은 살아있는 육체와도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드러나지 않는 지배 미학을 전개한다. 관찰자로서의 신중하고 나서지 않고 겸손한 수동적인 태도로 여행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후엔 영화를 찍는다. 그는 온화함을 연상시킨다. 그의 시선은 그러한 온화함을 담았을까?

책

1915년, 뮌헨 소재의 세이텔 출판사가 노르베르트 베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출판한다. 책에는 뤼미에르식 프로세스의 컬러 사진 건판과 흑백 사진, 그리고 스케치와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의 여행기와 1910년 식민지 관련 회의 때 제출했던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노르베르트 베버의 여정은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극동 지방의 영토들, 즉 먼 미지의 나라들을 가로지른다. 그는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시작한 한국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훗날 그는 독일이 아프리카 내에서 식민지 정책을 포기하면서 대안으로 아시아가 새로운 ‘전선’, 일종의 ‘미개척지’로 떠오르자 교황을 찾아가 그의 여정에 대해 보고를 하고 전도 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의 확보를 시도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지도에 가 본 적이 있고 진출해 있는 나라와 지역에 색을 칠한다. 첫 탐험가들이 밟은 길들을 다시금 그려보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미지의 영역을 좁혀가고 타지를 익숙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야만인의 땅을 길들이고 문명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첫 장면에서 노르베르트 베버는 세계 지도에 바이에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오기까지 자신이 밟은 여정을 되짚어본 후 칠판에 서로 비슷한 모양의 반도 국가인 한국과 이탈리아를 그리고 그 위에 두 개의 수도, 평양과 로마를 표시한 후 후자에 동그라미를 쳐서 그곳이야말로 수도 중의 수도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실 두 영토의 비교는 형태 상의 장난일 뿐이다. 왜냐하면 한 쪽은 문명과 법이 있는 모범 국가이고 한 쪽은 그 외의 나머지 국가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

미지의 세계는 야만적인 곳일까 문명이 있는 곳일까?

노르베르트 베버는 상당히 포괄적인 표를 통해 이름과 사물을 기록하고 알파벳 순으로 새로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분류한다. 다양한 사물, 개념, 행위, 그리고 언어 등 진기하고도 주관적인 방대한 무질서가 알파벳이라는 친숙한 질서 뒤에 숨는다. 베버의 여행은 제단(Altar)에서 수목관리(Baumpflege), 말(Pferd)에서 일본의 민족주의(Nationalismus Japans), 한국의 귀속(Abhängigkeit Korea)에서 측백나무(Zypresse) 등에 이르기까지 친숙하거나 기이한, 마술 같은, 혹은 놀라운 발음의 단어들로 요약되고 축약된다.

이에 따라 63 및 64페이지(앞의 책, p. 65)에 당산나무(Zauberbaum)가 나오고 407페이지(앞의 책, p. 498)에 문명(Zivilisation)이 나온다. 407페이지(앞의 책, p. 494)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달린 단체 사진이 있다. “북한산 산행. + 표시가 총영사 크뤼거 박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있다. “이 새로운 문화 시대의 중심에 행정 수반이자 군부 최고 권력자인 데라우치 백작이 있다. 이 노획한 무장武將은... (데라우치 조선 총독의 뺨뺨한 동작과 파리 육군사관학교 시절 때 배운 그의 불어 실력에 대한 묘사 부분 생략) ...데라우치 백작과는 주로 한국 내 문화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고 명료하게 개진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야만인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문명국이며, 과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문화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는데, 16세기 일본의 침략으로 퇴행 국면을 맞았다고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이 옛 문명을 다시 깨우고 새롭게 소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본인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다면, 그가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 전부는 뜻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리라는 것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하되, 다만 이 나라 정부가 그에게 위탁한 최선의 것을 실현시키고자 할 따름이라고 했다.” (앞의 책, pp. 498-499)

노르베르트 베버가 일본 정부의 문무관인 데라우치 조선 총독을 만나는 것은 그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이다. 1911년부터 일제 치하가 시작된 한국은 노르베르트 베버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국이었다. 따라서 준전쟁 단계의 일본이 기독교인들과 백인들을 나라에서 추방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총독을 만나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가톨릭계의 관행에 따른 외교적인 관례였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한국 국민이 일제 치하에 저항하는 것을 옹호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신부들이 순교했다. 한국 국민의 의지를 대변함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은 종종 한국 독립 운동과 연관되기도 한다.

노르베르트 베버의 방문은 따라서 일본인들을 향한 관용과 협력에 대한 의지의 표시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지와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자리였으므로 위험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은 ‘문명(Zivilisation)’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데라우치 총독에게 있어서 한국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인 지나간 문명이었다. 한국인은 일본의 지혜와 권력 안에서만 살 뿐이며, 일본인들의 노하우와 성장이 한국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식민통치는 일종의 부활이었다. 물론 거의 노예 수준으로 몰락한 한국인의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의 결실과 부가 전부 통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는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책의 초반에서부터 이미 현지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은 점령 지역으로서 통치국가인 일본은 한국 영토 전역에 군을 배치하고 기술, 행정 및 도시의 변질을 통해 문화, 국민, 흔적 및 지형을 파괴한다. 통치자는 한국의 문명을 전멸시키고, 이용하고, 삼켜버린다.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은 놀랄 만하다. ...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니와, 특히 이곳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 ... 한국의 위정자가 마땅히 행해야 했으며, 러시아가 한국을 차지해도 그리했어야 할 일들을 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옛 통치자에게 짓밟힌 백성을 향한, 일본의 사육 없는 애정일 리야 있겠는가. 일본은 서양에서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유럽인들에게 과시할뿐더러, 그들이 이미 스승을 능가한 양 처신하고 싶은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식민지를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적어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수로 회수해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자국 이주민으로 넘쳐날 이 나라가 제대로 정비되기를 원한다.” (앞의 책, p. 229)

따라서 문명이라는 것은 있었다. 완전하고 복잡하며 낯설지만 일관된 문명이었다. 노르베르트 베버의 임무는 그가 그 당시 보고 있던, 그러나 곧 사라질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서양에 곧 다가올 몰락을 보여주고, 자신이 목격자이자 보관자의 역할을 할 기억을 만든다. 파멸적인 힘 앞에 처한 가망성이 없는 목적을 옹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되고, 그러한 구원의 행위에서 한국에서의 그의 존재의 명분과 믿음의 근거와 정당성을 찾는다. 그는 구원자이다. 이러한 파멸의 미학이 그의 책을 관통하고 있다. 일제 통치하 근대적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파괴되거나 변화를 겪으면서 사라져 가는 도시와 마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스러운 숲과 한국의 고독과 신비가 응축된 길 가의 조상의 무덤들이 나온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참사가 벌어졌다 - 일본의 침략,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은 - 일본 및 독일 국수주의에 따른 영토 확장.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 우수와 망명.

‘숲의 고독’은 다음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용한 구경꾼, 외로운 무덤, 피신, 봄숲의 아침, 백동수도원.’ (앞의 책, p. 241)

2. 4월

“우리는 점점 높이 올라갔다. 아래로 마을이 보였고 그 너머 물 댄 논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논둑이 강물처럼 굽이쳐 마을과 논을 갈랐다. 평지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모래 언덕들이 방금 도금한 것처럼 빛났다. 지붕처럼 겹쳐진 언덕의 형세가 마치 산 위로 진군하는 옛 로마 병정의 방패와 같았다. 산들이 연이어 나타났고 우리는 골짜기를 깊이 굽어보았다. 봄 햇살이 곳곳에 신비스러운 그림자를 쏟아 내고 있었다. 산비탈을 조금 오르니 고즈넉한 자연 속에 무덤 두 개가 보였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무덤이었다. 이승의 번잡함에 성가실 일 없고, 외교인의 무덤이 범접하지 않는 이곳에 부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신자들도 아직은 한국의 옛 장묘 문화를 따른다. 그들의 무덤은 널리 흩어져 있다. ... 주일 오후에는 한적한 숲속에 외롭게 자리잡은 왕릉을 찾았다.”(앞의 책, pp. 242-243)

노르베르트 베버는 관찰한다. 마치 고대 로마의 풍경에서처럼 조선의 풍경에서도 문화를 초월하는, 숭고한 지대와 같은 깊고 강렬하며 순수한 신비를 발견한다. 그의 시선은 풍경과 하나가 된다. 거리의 차이는 더 이상 없다. 이방인은 가깝고 낯익은 친구가 된다. 접근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문명이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만이 아는 자연을 관찰할 때만 가능한 친밀하고 독특하면서도 고독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차이,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통해 그는 이해한다. 숭고함은 바이에른의 알프스 산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한국의 부드러운 언덕과 신비스러운 무덤 안에 숨어있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이국에 대한 취미도, 동양에 대한 취향도 초월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자기 도취적인 관심과 자화상의 추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관객의 자리를 차지하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작품에서처럼 말이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그를 공상가로 만든다.

숭고에 대한 동시대적인 사고는 다시 보여주려는 행위 자체를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작품이며, 동시에 작품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계의 부정이다. 일종의 딜레마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무한과 신비,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것의 표상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촬영하는 이미지 안에서 그 답을 찾는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자신이 찍은 영화의 후반부에 직접 나온다. 이방인,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검정색을 입은 남자—침입자는 바로 노르베르트 베버 그 자신이다.

영화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서 있는 그를 볼 수 있다. 그가 카메라 정면에 서서 렌즈를 바라볼 때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명백하다. 그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양의 관객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에서 그가 지나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든든한 교환의 시선이다. 간혹 경계를 허물고 싶은 듯 그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아이들과 쭈그리고 앉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근엄한 표정으로 한 가족 옆에 어색하게 앉기도 한다. 그는 촬영하는 동안 권위의 위치를 부정적인 타자성에 내주면서 배움과 이해를 더해가는 듯하다.

그가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서있을 때 젊은 남자 한 명이 그의 걸음을 들춰서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 마치 여자의 치마를 들춰서 보듯이 말이다. 노르베르트 베버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이 장면은 거의 코믹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웃음소리는 마치 폭풍과 같다. 노르베르트 베버가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이다. 관찰되는 대상에 대한 관찰하는 주체의 준과학적인 접근은 부드러운 반항을 통해 그 한계에 달한다.

시각의 기기가 주는 권위가 무너지고, 한국인들은 더 이상 말이 없는 수동적인 관찰의 대상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만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 웃음은 보이지 않는 혁명가다. 미치도록 큰 즐거움을 전한다.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판단한다.

인용

“독일의 시골 아이들은 어린 시절 학교가 쉬는 날이면 숲에서 공상에 잠기었고, 학창 시절 방학이면 향기로운 숲내음을 맡으며 지친 머리를 식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답답한 가슴을 뽐냈다. 이처럼 독일의 숲을 만끽하며 자란 사람이라면, 알프스 산맥을 뒤로 하고 남극을 여행한 지 며칠만 지나도 독일 숲에 대한 심각한 향수에 사로잡힌다. [남극에서는] 햇빛도 너무 강하고 보이는 것도 너무 많아 눈이 시렸다. 깊고 조화로운 고요가 그리웠다. 고요는 먼 숲의 푸른 어둠이 무거운 장막처럼 세상의 번잡을 가려주는 까닭이다. 눈은, 반짝이는 햇살과 어두운 그늘이 나뭇가지에서 꿈꾸는 색깔의 춤사위가 보고 싶었다. 상상은 감명으로 충만해졌다. 상상을 물려야 감명이 다소 정돈될 것 같았다. 상상은 숲의 평화를 동경했다. 이방에 대한 조급과 황망이 가신 뒤에야 마음은 다시 고향을 찾지만, 늘 황량하긴 매한가지였다. 수에즈 운하의 소금기 있는 모래벌 상공에는

더운 공기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한파처럼 마음을 에었다. 홍해의 가장자리 산맥은 화로처럼 붉게 타올랐다. 실론의 종려나무 숲이 독일 숲에 대한 그리움을 잠재울 수 없었고, 종려나무 잎사귀의 끊임없는 수다가 독일 전나무 숲의 장엄한 정적을 대신할 수 없었다. 종려나무가 품은 더운 열기도 너도밤나무 숲을 뒤흔드는 폭풍우를 대신할 수 없었다. ... 한국의 산은 민둥산이라, 비탈에 나무를 하나하나 세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때 향수가 밀려 오지 않겠는가? 멀리 에둘러 수원으로 가는 길에 갓등이의 숲을 지나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 숲은 고향 독일의 안부를 전하듯 우리를 불렀다. ... 30분쯤 지나자 고요한 숲 속의 아침이 열렸다. 숲 속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독일의 고향을 떠올렸다. 조음은 낮설었지만 상쾌했다. 고요한 아침의 신성한 평화 속에서 만물은 조화로웠다.”(앞의 책, pp. 255-256)

마술가

“한국인은 꿈꾸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연을 꿈꾸듯 응시하며 몇 시간이고 홀로 앉아 있을 수 있다. 산마루에 진달래꽃 불타는 봄이면,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진달래꽃을 응시할 줄 안다. ... 색이 나날이 짙어졌다. 한국인은 먼산 얽은 푸른빛에 눈길을 멈추고 차마 딴 데로 돌리지 못한다. 그들이 길가에 핀 꽃을 주시하면 꽃과 하나가 된다. 한국인은 이 모든 것 앞에서 다만 고요할 뿐이다. 그들은 꽃을 꺾지 않는다. 차라리 내일 다시 자연에 들어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볼지언정, 나뭇가지 꺾어 어두운 방안에 꽂아 두는 법이 없다. 그들의 마음 깊이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연에서 추상해 낸 순수하고 청명한 색깔이다. 그들은 자연을 관찰하여 얻은 색상을 그대로 활용한다. 무늬를 그려 넣지 않고,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살린 옷을 아이들에게 입힌다. 하여, 이 소박한 색조의 민무늬 옷들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원숙하고 예술적이다. 공산품이 이 백성의 예술 혼을 질식시키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기어이 그리되고 말 것이다.”(앞의 책 pp. 285-286)

한국인은 꿈꾸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품이 넉넉한 백색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풍경 속을 거닌다면 그는 거지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이상 일을 할 권리가 없는 무일푼의 떠돌이 양반, 아니 ‘살아있는 사자’ 일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과 대화를 나누곤 한다. 노르베르트 베버는 임종을 앞둔 한 남자를 위해 무당이 행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무덤 위에서 하는 말들을 기록한다.

임종에서 무덤까지

“아플 때는 무당이, 임종 때는 미신이, 그리고 뒷자리를 볼 때는 나침반(패철佩鐵)을 든 작헌(地官)이 제 뭇을 한다.”(앞의 책, p. 320)

장례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앞의 책, p. 328)

“노상에서 부르는 상엿소리는 실로 통절하다. ‘저승길이 힘들구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산 험뎠 다시 오나?’ 요령잡이 들이 요령을 흔들며 관 앞을 춤추듯 돌다가 이렇게 앞소리를 베기면,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로 응답한다. ‘두 번 다시 아니 오네.’ 다시 앞소리가 ‘바닷물 마르면 다시 오나’라고 물으면 뒷소리는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두 번 다시 아니 오네.’ 이런 창의적인 소리베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 묘가 준비된다.”(앞의 책, pp. 328-330)

그는 행렬, 나무관, 무덤 등 한국의 의식을 세세히 연출해서 찍는다. 한국의 의식을 기독교 의식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인의 문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는 영화를 위해 의식을 연출한다. 그 순간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과 행위를 이해하고,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전하는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재현인 것이다. 읽힐 수 있도록 연출된 광경은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한 남자가 병을 땅에 묻는다. 죽은 자의 영혼인 것 같다. 이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적혀있다. 현지에서 행해지는 미신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은 가톨릭 의식에서 성체의 빵을 먹는 것보다 더 미신에 가까울까? 후자도 종교적인 의미를 벗겨내면 설명을 곁들이지 않을 경우 단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안무에 그칠 뿐이다.

“늦점심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니, 양반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데 족히 열 시간은 걸렸다면, 우리 중 한 명이 자기 고향 산골까지 한 며칠 동행해 주기를 청했다. ... ‘사슴 사냥을 합니다. 근방에 사슴이 지천인데, 녀석들이 다니는 길이 뻥하지요. 일본이 나라를 집어삼킨 뒤로는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말이지요.’ ... ‘한데, 사슴은 어디 쓰나요?’ ‘아버지가 십장이 허虛하여 ... 돌아가실까 염려됩니다. 아버지를 살릴 길은 녹용밖에 없습니다.’ 녹용을 구워 가루로 만든 약재는 탁월한 강장 효능을 발휘한다고 한다.”(앞의 책, pp. 229-230)

죽은 자들의 운명, 그들의 여정, 영혼, 신들. 노르베르트 베버는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만난다. 그는 춤추는 남자를 촬영한다. 무엇인가 위로를 하기 위해 춤을 추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춤의 힘에 대해서 모른다. 무당의 힘에 대해서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을 촬영한다.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오히려 그러한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관찰할 수는 있으나 가지 말아야 하는 세계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화 속의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것은 건너갈 수 없는, 나아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형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을 통해 그가 선교하던 곳을 볼 수 있다. 벽돌로 지은 큰 건물들로 둘러싸인 마당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줄을 맞춰 곳곳이 서서 가끔 군무와 같은 스텝을 춘다.

보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선교단의 표어와 학교의 교훈은 같습니다. ‘지혜는 신에 대한 외경에서 비롯한다.’ 집회서 1장 16절”

하나의 고리가 완성된다.

그 많은 시선들과 아름다운 공감의 순간들은 결국 공손함을 위장한 극히 계산적인 위선이자 시간의 허비였을 뿐일까? 그의 포교지이자 식민지이자 질서이자 유일한 신은 한국이라는 영토에 집중되어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이 백성의 종교적 갈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겠다. 순교자의 피가 스민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 이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느껴진다. 실로 한국은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다. 박해의 폭풍우도 지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뿌리를 굳건히 내렸다. 이제 희망의 봄날이 찾아올 것인가?” (앞의 책, p. 175)

1927년 바이에른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노르베르트 베버의 여정은 2012년 다시 한 번 바이에른에서 믿음과 죽은 자들의 여정을 좇으면서 이루어지는 두 작가 간의 논의와 교환으로 그 고리가 완성된다. 무당 김금화와 그녀의 “정신적인 딸”인 바이에른 출신의 젊은 가톨릭 여성 안드레아 칼프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종교, 문화, 그리고 미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사이, 숭고함과 일화 사이, 권력과 가능성 사이의 기이한 여정을 통해서.

아
버
지

나
타
샤
니
직



노르베르트 베버 아카이브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Norbert Weber Archive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노르베르트 베버 아카이브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Norbert Weber Archive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52

오티리엔 성당의 성 오티리아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관경 사진

Saint Ottilia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오티리엔 수도원 박물관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관경 사진

Museum of St. Ottilien Archabbey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오티리엔 기차역사 외벽
란트스버그, 2011
박관경 사진

Outer Wall of Ottilien Station
Landsberg, German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SAINT OTTILIEN



53





오티리엔 수도원 박물관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Museum of St. Ottilien Archabbey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노르베르트 베버 아카이브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Norbert Weber Archive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SAINT OTTILIEN



노르베르트 베버 아카이브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Norbert Weber Archive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오티리엔 수도원 박물관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Museum of St. Ottilien Archabbey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58

노르베르트 베버 아카이브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박찬경 사진

Norbert Weber Archive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SAINT OTTILIEN



59

노르베르트 베버 아카이브
성 오티리엔 수도원, 2011
노르베르트 베버 사진, 박찬경 재촬영

Norbert Weber Archive
St. Ottilien Archabbey, 2011
photo by Norbert Weber,
retake by Park Chan-kyong



오틸리엔 수도원이 그려진 사진관
 란츠버그, 2011
 박찬경 사진

Painted St. Ottilien Archabbey in a Photo Studio
 Landsberg, Germany, 2011
 photo by Park Chan-kyong

SAINT OTTILIEN

Le père

Natacha Nisic

.

La rencontre

Je n'avais jamais entendu parler de Norbert Weber avant que Park Chan-kyong ne m'envoie par la poste un ouvrage daté de 1915, une édition originale en allemand, précieuse, contenant le journal de voyage, les photographies et les dessins d'un moine bénédictin, Norbert Weber, chef de la communauté de Sainte Othilde en Bavière. Le contrat tacite entre nous artistes était celui d'une sorte de *lettre volée* : à moi de lire et de traduire le livre - avec mes manques et imperfections de langue allemande - et transmettre les vides et les pleins de ma vision. Ce que nous pensions pouvoir partager sans traduction est notre regard porté sur les photographies. Elles semblaient se donner à lire dans l'immédiateté et l'évidence des images, il me semblait que tourner les pages était comme la résolution d'une énigme, un secret caché dans le regard frontal d'un enfant, d'une femme dont la tresse noire, si longue, révélerait rigueur et ordre moral, puis ces robes, ces grandes tenues blanches que revêtent les hommes et les femmes. Les robes blanches trouent les images en noir et blanc, comme des figures fantômes, des formes pures et vierges - ce à quoi le blanc, dans ma propre culture, fait référence - elles augurent d'une haute civilisation. Il semble que les êtres se détachent des lieux où ils vivent. Qu'ils soient rassemblés devant une maison de terre et de paille, accroupis dans un chemin de terre, ou face à un ensemble de stèles de pierre, les corps sont emportés dans une immatérialité flottante, laissant aux visages seuls le soin de porter les signes de la nature et de la qualité de leur vie. Or ils sont sans expression. Aucune rudesse ni joie. Un ensemble lisse percé de regards, droits, face caméra, qui ne cessent de renvoyer à la place de l'absent, celui qui les photographie. Un prêtre catholique vêtu de noir - contraste pur - figure étrange venue de loin accompagnée d'un matériel technologique sophistiqué et lourd, dont l'usage, dit-il, est la mémoire du regard, un des devoirs de sa mission.

Une mission

Octobre 1910, Norbert Weber présente un long pamphlet au congrès des colonies de Berlin où, face à la Grande Bretagne et la France, il expose avec force la nécessité pour l'Allemagne de prendre conscience de la grandeur de sa culture, et surtout de la nécessité d'associer l'Etat et l'Eglise dans son projet d'expansion culturelle et politique. Il cite le Comte Goetzen: « **In der Differenz zwischen der geistigen und wirtschaftlichen Entwicklungsstufe der Völkerschaften und der im Verhältnis hierzu sehr grossen Höhe der Kultur mit ihren Begleitbegriffen, welche die weisse Rasse importiert, ist letzten Endes die Rebellion zu erblicken....** » Ce à quoi il répond : « **Er hat recht, hat indes nicht alles gesagt. Geistige Mächte – und solche sind doch neben und selbst in dem physischen Widerstande gegen die Fremden**

und das Fremde eine große Anzahl vorhanden – werden auf die Dauer nur durch geistige Kräfte überwunden. Wenn irgend etwas den friedlichen Besitz der Kolonien sichert, dann ist es das durch die Religion geheiligte Bewußtsein von Dankbarkeit gegen den Kulturträger und der daraus erwachsenden bürgerlichen Pflichten. Die Entwicklungsphasen mögen langsam und unauffällig sich gestalten. Es ist das Wachstum eines organischen Lebens, still und sicher, von innen heraus. » (Norbert Weber,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Munich: Seidel, 1915, p. 439.)

Le devoir missionnaire d'évangélisation de Norbert Weber doit se faire de manière « organique », comme un antidote à la rébellion car le peuple est comme un corps vivant. Il déploie ainsi une esthétique de la domination subtile, une attitude aux allures passives d'observateur - que l'on pourrait comparer à celle d'un anthropologue avant la lettre, au sens d'une discrétion, d'un effacement - au profit de l'écriture du journal et surtout de la prise de vue photographique, puis cinématographique. Il évoque une forme douce, est-ce celle de son regard ?

Le livre

1915, l'édition de «Au pays du matin calme – souvenirs d'un voyage en Corée- » sort aux éditions Seidel à München. Il contient des planches couleurs selon le procédé Lumière, des photographies noir et blanc, ainsi que des dessins et une carte. Le livre contient son journal de voyage ainsi que la transcription de son pamphlet de 1910 pour le congrès des colonies. Le voyage de Norbert Weber passe par le Japon, la Corée et la Chine, les territoires de l'Extrême-Orient, c'est à dire les contrées lointaines, inconnues. Le dessein est de trouver les lieux pour de nouvelles missions sur le territoire de Corée, où se trouvent déjà des missionnaires français. Il ira plus tard rendre compte de ce voyage auprès du Pape pour tenter de trouver des fonds pour la Mission, depuis la guerre, les colonies allemandes d'Afrique ont été abandonnées, et l'Asie est comme un nouveau front, une *Terrae Incognitae* d'une autre expansion possible.

En Europe, on colorie sur la carte les pays et les grandes régions du monde où nous sommes allés et où nous sommes présents, on trace à nouveau le chemin des premiers explorateurs, que l'on fait sien, avec la sensation de repousser l'inconnu, de rendre familier l'étranger, d'appriivoiser les confins barbares, et d'apporter la civilisation. Les premières images du film montrent Norbert Weber en train de tracer sur une carte du monde le trajet de son voyage, de Bavière jusqu'en Corée, puis il dessine à la craie sur un tableau le territoire de la Corée, et celui de l'Italie, deux péninsules qui se ressemblent, deux capitales : Pyongyang et Rome, qu'il entoure d'un trait pour montrer et démontrer qu'il s'agit là du centre, de la capitale des capitales. Mais l'analogie entre les deux territoires n'est qu'un jeu de formes, car d'un côté se trouve la civilisation, le modèle à imiter, les règles à suivre; de l'autre, le reste. Un inconnu, barbare ou civilisé ?

En une nomenclature quasi exhaustive, Norbert Weber dresse un registre des noms et des choses. Est ainsi classé par ordre alphabétique tout ce qui constitue ce nouveau monde, une multiplicité d'objets, de concepts, de pratiques, de langues, un grand désordre curieux et subjectif qui se calfeutre derrière l'ordre familial de notre alphabet. Le voyage se résume et se condense en des mots aux consonances familières, étranges, magiques ou merveilleuses, de Altar à Baumpflege, de Pferd à Nationalismus Japans, ou de Abhängigkeit Korea à Zypresse.

Ainsi, après Zauberbaum, p 63, 64, suit Zivilisation p 407:

Sur cette page 407, se trouvent une photographie d'un portrait de groupe en montagne, avec pour légende : «Ausflug auf den Pukhan. + Generalkonsul Dr. Krüger», puis le texte courant de la page précédente : « Das Zentrum dieser neuen Kulturepoche ist Graf Terauchi, der als oberster Leiter der Zivilverwaltung auch die höchste militärische Gewalt in Händen hat. Er ist ein alter Haudegen ... (description des gestes raides du Comte Terauchi et de son français appris au cours de ses études militaires à Paris) Die Unterhaltung mit Graf Terauchi dreht sich um Korea und die kulturelle Aufgabe, welche hier zu leisten ist. Ohne viele Umschweife bringt er seine Ansichten klar und deutlich zum Ausdruck. Viele seiner Landsleute meinten, die Koreaner seien Wilde. Das sei falsch; Korea hätte eine Zivilisation und habe sich in der Vergangenheit auf eine nicht geringe kulturelle Stufe emporgearbeitet. Erst seit der japanischen Invasion im 16. Jahrhundert sei der Rückschlag gekommen. Sein Bestreben gehe dahin, diese alte Zivilisation nach Möglichkeit wieder zu wecken und neu zu beleben. Er sehe voraus, daß er bei dem Mangel der richtigen Erkenntnis und bei der Widerstand vieler seiner Landleute nicht alles und nicht überall das durchführen könne; er wolle nur das Beste des Landes, dessen Verwaltung ihm anvertraut sei. »

C'est à la fin de son voyage que Norbert Weber rencontre le Comte Terauchi, le chef militaire et civil du gouvernement japonais. Depuis 1911, la Corée est annexée au Japon, quand Norbert Weber visite le pays, il est une colonie des japonais. La visite au Comte est donc une visite d'ordre diplomatique car la communauté catholique se doit d'entretenir de bons rapports avec l'occupant, la situation est fragile et les japonais, dans un état de semi-guerre, pourraient chasser les chrétiens et les occidentaux. Or dans l'histoire, les Catholiques ont défendu la rébellion coréenne face à l'occupation japonaise, faisant de nombreux prêtres martyrs. Souvent associés à la cause du peuple coréen, les Catholiques sont rattachés à l'idée d'indépendance.

La visite de Norbert Weber est donc une entreprise risquée car il doit signifier sa volonté de tolérance et coopération envers les japonais tout en exprimant plus ou moins ouvertement à l'occupant son soutien et son intérêt pour la culture coréenne. Le point de rencontre de cette entente possible se trouve dans la définition du mot « Zivilisation. » Pour le Comte Terauchi, la Corée est une ancienne civilisation perdue, quasi morte. Les coréens ne vivraient que dans l'ombre de leur savoir et de leur puissance et les japonais, par leur savoir et leurs actions de développement, réveillent et redonnent vitalité à ce peuple. L'occupation est une renaissance – rien n'est bien-sûr évoqué de la réduction des coréens à un état de quasi

esclavage, ni que le fruit du développement et de la richesse appartient au colonisateur.

Dès le premier chapitre du livre, Norbert Weber dresse le tableau : la Corée est un territoire occupé, et l'occupant japonais, par son déploiement sur tout le territoire, ses transformations techniques, administratives, et urbaines, en détruit la culture, le peuple, les traces et le paysage. L'occupant anéanti cette civilisation, il l'utilise, la dévore.

«Man ist überrascht über die Mühe, mit welcher Japan darangeht, das annektierte Land wirtschaftlich zu heben. Jedenfalls, den Eindruck gewinnt man wie andersorts so ganz besonders hier, nimmt es Japan ernster mit seinen Pflichten, als China es bis dahin getan oder die eigenen Herrscher Koreas es hätten tun sollen oder etwa Rußland es getan haben würde, wenn Korea in seine Hände gefallen wäre. Es ist ja wohl nicht gerade eine ganz uneigennützigte Liebe, welche Japan gegen das von seinen einstigen Herrschern niedergetretene Volk hegt. Japan setzt nicht allein seinen Stolz darein, Europa zu zeigen, daß es nicht umsonst im Westen in die Schule gegangen ist, es möchte sich den Anschein geben, als habe es seine Lehrer bereits übertraffen. Zudem wollen die Japaner ihre Kolonie in einen ertragsreichen Zustand setzen, um durch Steuern wenigstens einen Prozentsatz des hineingesteckten Kapitals wieder herauszuziehen. Vor allem aber wollen sie das Land, das von Japan aus mit Ansiedlern überschwemmt wird, für sich selbst herrichten.... » (Ibid., pp. 177-178)

Civilisation, il y a donc. Entière, complexe et étrange, mais cohérente, et le devoir de Norbert Weber est de rendre compte de ce qu'il voit, d'un temps présent qui va disparaître très vite. Norbert Weber présente à l'Occident une ruine à venir, il bâtit une mémoire dont il semble être un garant et le conservateur. C'est une mission, il est le défenseur d'une cause perdue face aux forces destructrices, et dans le geste même du sauvetage se tient la justification, le fondement de sa foi et la légitimité de sa présence. C'est un sauveur. Cette esthétique de la ruine traverse l'ouvrage : villes et villages en voie de disparition, détruits ou transformés par les infrastructures modernes de la colonisation japonaise, mais surtout les forêts mystérieuses, et tombes des ancêtres, situées au détour d'un chemin, où se condensent la solitude et le mystère de la Corée. Il écrit au cœur d'une faille : un désastre a déjà eu lieu – l'invasion japonaise, et à venir - l'expansion fasciste japonaise et allemande. En cours – la mélancolie et l'exil.

Eisame Gräber, les tombes solitaires

« Waldeinsamkeit - La solitude de la forêt », est composé des sous-chapitres suivants :
« Stille Zuschauer, Einsame Gräber, Im Exil, Frühlingmorgen im koreanischen Walde, Daheim. » (Ibid., p. 187)

2. April

«Wir sind allmählich ziemlich hoch hinaufgekommen. Tief unter uns das Dörflein und darüber hinaus die leuchtenden Flächen der Reisfelder, zwischen denen sich die Raine wie

Mäander durchziehen. Wie neuvergoldet blinken die Sandhügel, die aus der Ebene gegen die Bergen fliehen; wie Dächer liegen sie übereinander, gerade als ob eine « Testudo » der alten Römer den Berg hinanstürmte. Immer mehr treten die Berge heraus, immer weiter schauen wir in die Täler hinein; und über alles gießt die Frühlingssonne eine magische Beleuchtung. Und hier oben, einsam in der freien Gottesnatur zwei Gräber, schlicht und schmucklos, etwas in den Bergeshang hineingearbeitet. Ungestört vom Erdenlärm, unberührt vom Grabeshauch fremder Gräber, ruhen hier ein Mann und sein Weib. Auch die Christengräber halten sich immer noch an die koreanische Sitte; weit zerstreut liegen sie auf den Besitzungen umher... Der Sonntagnachmittag lockt uns in die Waldeinsamkeit mit seinen vereinsamten Königsgräbern. »

Norbert Weber contemple. Il lit dans le paysage coréen, comme dans les paysages romains, un mystère profond, intense et pur, qui transcende les cultures; une réserve de sublime. Le regard habite le paysage. Il abolit les distances. L'étranger est un proche, un familier, un ami. L'inaccessible lui appartient, et cela dans une expérience intime, unique et solitaire, que seule peut permettre la contemplation de la nature, une nature que ne connaît pas la civilisation, mais que connaît le monde des morts.

Il comprend, dans une empathie qui transcende les différences, les vivants et les morts. Le sublime est loin des Alpes bavaroises, mais se cache dans les douces collines et les mystérieuses tombes de la Corée. Norbert Weber échappe à tout exotisme, à tout orientalisme, car ce qu'il lit en Corée n'est qu'une inquiétude narcissique, un portait de lui-même en quête. Comme dans une peinture de Kaspar David Friedrich où il occuperait la place du spectateur. Le voyage l'a transformé en une figure romanesque.

Une idée contemporaine du sublime serait de faire acte de l'irreprésentable dans le geste même de re-présenter. L'oeuvre comme actualisation de cette limite, et de par son existence même, sa négation. Un double-bind. Or Norbert Weber est en quête de l'Infini, de la mise à pied d'un Mystère, de la figure de l'infranchissable, mais cette figure trouve une réponse, quasi ironique car peut-être à son insu, au sein même de ses images cinématographiques. En effet, dans la deuxième partie de son film, Norbert Weber se met en scène. L'étranger, l'homme en noir – à connotation négative – l'intrus, c'est lui.

On le voit debout parmi un groupe d'enfants, lorsqu'il regarde l'objectif et se tient droit face à la caméra, il occupe une place qui va de soi : celle du metteur en scène, mais aussi celle du passeur car son regard s'adresse à nous spectateur de l'Occident, dans l'échange rassurant de la reconnaissance du même. Parfois, comme pour briser une frontière, il participe à l'activité d'un groupe, s'accroupit avec des enfants, partage un repas ou s'assoie à côté d'une famille avec sérieux et maladresse. Il semble apprendre et comprendre en quittant, le temps d'une prise de vue, la place d'autorité pour une altérité plus paternaliste.

Alors qu'il se tient debout presque de dos à la caméra, un jeune homme soulève le dos de son

scapulaire et se penche pour voir ce qu'il y a dessous, comme sous des jupes de femme. Norbert Weber ne réagit pas, rendant la scène presque comique, et le rire agit comme une onde de choc. Norbert Weber pourrait tant et si vite être ridiculisé : l'approche quasi scientifique du sujet observant vers l'objet observé trouve son point limite en une rébellion douce.

Le pouvoir incarné par le dispositif de vision bascule, les coréens ne sont plus des figures à contempler, muettes et passives, mais des hommes tout aussi curieux de l'étranger que nous sommes. Le rire est l'acteur d'une révolution invisible. Un plaisir fou. Ils nous regardent, nous jugent.

Extraits de texte

«Wer mit dem deutschen Walde verwachsen ist wie ein Landkind, das die schulfreien Tage der Kindheit im Walde verträumte, das die Ferien der Studienzzeit ausnützte, um in der würzigen Waldesluft den müden Kopf ausruhen und die zusammengepreßte Lunge aufatmen zu lassen, dem kommt nach wenigen Tagen einer Südlansreise, wenn er einmal die Alpenkette hinter sich hat, ein wahres Heimweh nach dem deutschen Walde. Das Auge ist müde geworden von dem vielen Lichte und dem vielen Schauen; es sucht nach der tiefen harmonischen Ruhe, welche der ferne Wald in seinem blauen Dunkel als schweren Vorhang vor das Weltgetriebe hängt, nach dem träumerischen Farbentanz, den die flinken Sonnenstrahlen mit den schwerfälligen Schatten im Geäste der Bäume spielen. Die Phantasie wurde so übertoll von Eindrücken, sie möchte sich nur zurückziehen, um dieselben etwas zu ordnen; sie sehnt sich nach dem Waldesfrieden. Nach all dem Hasten und Jagen der Fremde möchte das Herz wieder einmal ein Stück Heimat haben. Doch es wird immer öder. Wie Winterfrost greifen die salzigen Sandfelder am Suezkanal, über denen die heiße Luft zittert, kalt ans Herz. Rotgebrannt, wie eben der Esse entstieg, glühen die Randgebirge des Roten Meeres. Die Palmenwälder Ceylons vermögen die Sehnsucht nach dem deutschen Wald nicht zu stillen; das geschwätzige Lispeln der Palmblätter kann die majestätische Ruhe des deutschen Tannenwaldes nicht ersetzen, die schwüle Hitze, die unter dem Palmendache brütet, nicht der Gewittersturm, der in den Buchenkronen wogt. ... Und Korea mit seinem kahlen Bergen, an deren Hängen man mühelos die einzelnen Bäume zählen kann ! Muß da nicht Heimweh kommen ? Was Wunder, wenn es uns in den Wald von Katheni zieht, um auf langem Umweg nach Souwon zurückzuwandern. Wie ein Gruß aus der deutschen Heimat ladet er uns ein. ... In einem halben Stündchen nimmt uns der morgenstille Wald auf. Vieles in ihm erinnert uns an die deutsche Heimat; vieles indes berührt fremd aber wohltuend und fügt sich harmonisch in den hehren Frieden der Morgenstille. » (Ibid., pp. 200-201)

Le magicien

«Der Koreaner ist ein Träumer. Stundenlang kann er allein dasitzen, indes sich sein Auge schwärmerisch in der weiten Natur verliert. Wenn jetzt im Frühling die Chindalegot an den Berghängen glühen, so kann er sich nicht satt an ihnen schauen. ... Von Tag zu Tag wird die

Farbe stärker, dunkler. Sein Auge ruht auf dem lichten Blau der fernen Berge; er kann es nicht mehr abwenden. Er betrachtet ein Blümlein am Wege und kann sich nicht mehr von ihm trennen. Aber alles läßt er ruhig stehen an seinem Orte; kein Blümlein bricht er ab; keinen Zweig will er daheim in seiner dunklen Stube aufstecken. Er geht lieber morgen wieder heraus in Gottes freie Natur und beschaut sich alles noch einmal und dann wieder und wieder. Aber was er nach Hause bringt, was er tief in seine Seele aufgenommen hat, das ist die reine klare Farbe, die er aus der Natur abstrahiert hat. Und diesen Farbensmelz, den er in der Natur betrachtung gewonnen, verwertet er. Die Farbentöne, wie sie sind, ohne die Zeichnung, an der sie draußen in der Natur hafteten, legt er um seine Kinder. Deswegen haben diese einfach getönten, umgemusterten Gewänder so viel Anheimelndes, Abgeklärtes, Künstlerisches... Es ist nur zu bedauern, wenn die Fabrikwaren den Volkssinn und die Volkskunst ersticken. Aber es wird kommen, es muß kommen. » (Ibid., pp. 227-228)

Le coréen est un rêveur, s'il se promène dans le paysage, vêtu de blanc, dans une robe ample avec un chapeau, c'est peut-être un mendiant ou au contraire un aristocrate désargenté qui n'a pas le droit de travailler, une figure errante, un mort-vivant? Les coréens semblent établir de drôles de dialogues avec les morts. Norbert Weber décrit les dernières heures d'un homme et les actes de magie qu'opère le sorcier avant qu'il ne meurt puis note les mots prononcés sur la tombe.

Vom Sterbebett ins grab

«Am Krankenbett spielt der Zauberer seine Rolle, am Sterbebett der Aberglaube, am Grabe der Geoskop mit dem Kompaß. » (Ibid., p. 255)

Grande description de la cérémonie mortuaire

«Der Inhalt des Trauergesanges auf dem Wege ist ergreifend : « Das Hinübergehen (das Sterben) ist schwer. Wenn du jetzt gehst, wann kommst du wieder ? » So singen die beiden Vorsänger, die mit ihrem Glöcklein vor dem Sarg herumtanzen. Die andern antworten : « Nein, er kommt nicht mehr. » « Wenn das Meer austrocknet, kommst du dann wieder ? » Die gleiche Antwort : « Nein, er kommt nicht mehr », und so geht es fort in erfinderischen Redewendungen... In der Zwischenzeit ist das Grab gerichtet worden. » (Ibid., p. 264)

Il filme avec soin la reconstitution d'une cérémonie - un cortège, un cercueil de bois, une tombe - comme si nous pouvions la comparer à un rite chrétien et, par analogie, y trouver la vérification de la civilité de ce peuple. Il remet en scène - car qu'importe la vérité du moment - il s'agit de comprendre les faits et gestes, les coréens sont acteurs de leur propre culture, l'important n'est pas la vérité mais la re-présentation. C'est un spectacle rendu lisible dont les vertus sont pédagogiques.

Un homme prend une bouteille et l'enterre, il semble que cela soit l'âme des morts. Un carton commente ce geste. C'est une sorte de superstition locale. Mais l'est-elle plus que la prise de l'hostie dans le rite catholique qui, sans explication, est une suite de

gestes désincarnés et soustraits de leur signification religieuse, une chorégraphie pure et indéchiffrable.

«Wie wir zum verspäteten Mittagstisch heimkommen, erwartet uns ein Jangpan, ein Adelige, der ungefähr zehn Stunden weit hergekommen ist. Er möchte, daß einer von uns mit ihm für ein paar Tage in seine heimatlichen Berge ziehe. ... « Wir müssen einen Hirsch jagen. Es gibt Hirschen genug in der Gegend, und wir kennen die Wechsel der Tiere. Aber wir dürfen ja keine Waffen mehr führen, seit die Japaner Herren unseres Landes sind. » ... « Aber wozu denn einen Hirsch ? » « Mein Vater leidet an Herzschwäche : er ist so schwach, daß wir seinen Tod befürchten. Da kann ihn nur noch Hirschhorn retten . » Das Geweih des Hirsches wird im Feuer geröstet und pulverisiert, und dieses Mittel soll den Kranken wunderbar kräftigen. » (Ibid., pp. 178-179)

Le sort des morts, leur passage, les esprits, les dieux, Norbert Weber les rencontre dans son voyage. Il filme un homme qui danse, il ne connaît pas les pouvoirs de la danse. Il ne connaît pas les pouvoirs chamaniques, mais il les filme. Sans savoir. Mais c'est peut-être pour mieux en saisir l'écart, la frontière d'un monde que l'on peut contempler, mais où il ne faut pas aller. Ce que montrent les images du film est la forme de l'infranchissable, voir de l'invisible.

Les derniers chapitres du films montrent la mission. Dans la cour entourée de grands bâtiments de briques, enfants et adoslescents se tiennent en rang, droits, saluent et parfois esquissent un pas d'une danse quasi militaire. Sur le carton on peut lire : « Richtlinien in ihren Schulen ist der Mission das Wort : « Der Anfang der Weisheit ist die Furcht Gottes. » Eccli i. XVI. »

Une boucle se referme

Tous ces regards portés, ces moments de belle empathie, n'étaient-ils que condescendance, perte de temps, purs calculs ? La mission, sa colonie, son ordre, son unique dieu, marque à présent le territoire de Corée, crée une nouvelle histoire qui perdure.

« Man fühlt es, wie ein religiöses Sehnen im Volke steckt, und wie wohl nicht leicht ein Heidenvolk so reif zur Ernte ist, als das, das auf dem von Märtyrerblut getränkten Boden von Korea emporgewachsen ist. Freilich, Korea steht an einem Wendepunkt der Zeiten. Die Verfolgungstürme, in denen das Christentum starke Wurzeln gefaßt hat, sind vorbei ; wird nunmehr ein hoffnungsfreudiger Frühling anheben ? » (Ibid., p. 133)

Le voyage de Norbert Weber en 1927 de la Bavière vers la Corée se boucle en Bavière en 2012, par le trajet des croyances et des morts, dans les discussions et échanges entre deux artistes. Par la rencontre de la Chamane Kim Keum-hwa, et sa fille spirituelle, Andrea Kalff, une jeune femme catholique bavaroise. Un trajet étrange entre ce qui se nomme religion, culture et superstition, entre le sublime et l'anecdote. Pouvoirs et pouvoir.

The Father

Natacha Nisic

•

The encounter

I had never heard of Norbert Weber before Park Chan-kyong sent me a precious original edition of a book containing the travel diary, photographs and drawings of this Benedictine monk, head of the community at St. Ottilien in Bavaria, published in 1915. The tacit contract between the two of us as artists was that of a kind of *Stolen Letter*: it was my job to translate the book – in my incomplete, imperfect German – and to provide the full and empty parts of my own vision. What we thought we could share without needing a translation is the way we saw the photographs. The images seemed so immediate, so self-evident. I felt as if turning the pages was like solving an enigma, finding a secret hidden in the frontal gaze of a child, of a woman whose long, black locks appeared to betoken moral rigor and order, and then the dresses, those big white outfits worn by the men and women. The white dresses leap out from the black-and-white images like ghostly figures, pure virginal forms – which is what, in my culture, the color white evokes. They bespeak a highly sophisticated civilization. It is as if the figures are separate from the places where they live. Whether gathering in front of a house of stone and straw, squatting on a dirt track, or before a set of stone steles, the bodies are caught up in a floating immateriality, leaving it to the faces alone to bear all the signs of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ir existence. But these express nothing. No harshness, no joy. A smooth ensemble transfixed by gazes, direct, into the camera, constantly reminding us of the absent person, the one photographing them. A Catholic priest dressed in black – pure contrast – a strange figure from afar, with his complicated, cumbersome equipment, used, he says, as the memory of the gaze, one of the duties of his mission.

A mission

In October 1910, Norbert Weber presented a long pamphlet to the Congress of Colonies in Berlin where he forcefully argued the need for Germany to become aware of the grandeur of its culture, in relation to Great Britain and France, and, above all, the need to unite Church and State in the project of cultural and political expansion. He quoted Count Goetzen: “[...] ultimately, one sees the rebellion in the margin between the ethnic groups’ levels of spiritu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in relation to that, the extent of the culture imported by the white race and its concomitant concepts.” Weber remarked: “He is correct; however, he did not say everything. Spiritual powers – and these exist nevertheless in great number alongside, and even in, the physical resistance against foreigners and the foreign – will, in the long

run, be overcome only by spiritual forces. If anything ensures the peaceful possession of the colonies, it is the awareness of gratitude towards the bearers of culture, sanctified through religion, and the civil obligations resulting from it. The phases of development may take shape slowly and inconspicuously. It is the growth of an organic life, quiet and certain, from within.”

For Weber, the work of evangelization needed to be carried out “organically,” as an antidote to rebellion, for the people was like a living body. He thus applied an aesthetic of subtle domination, taking the passive posture of the observer, a bit like the forerunner of the anthropologist in the sense of his discretion and self-effacing position, while writing a journal and, above all, taking photographs and, then, making films. He speaks of a gentle form – the form of his gaze, perhaps?

The book

In 1915, Seidel in Munich published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 Memories of a Journey to Korea”) The book contained color plates made using the Lumière process, black-and-white photographs, as well as drawings and a map, along with Weber’s travel diary and the text of the pamphlet he presented to the Congress of Colonies in 1910. Weber’s journey took him to Japan, Korea and China, to the territories of the Far East, in others words, to distant, unknown lands. The aim was to find the places for new missions in the territory of Korea, where French missionaries were already active. He later went to present this journey to the Pope in an attempt to raise funds for the Mission. This was after the loss of Germany’s African colonies after World War I. Asia was like a new front, a *terra incognita* and area of possible expansion.

In Europe, maps were colored to show the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where we had been and where we were present, and the routes of the first explorers were retraced and reappropriated, with a sensation of pushing back the unknown, of making the strange familiar, of taming remote barbarian lands and bringing civilization. The first images of the film show N. W. tracing the trajectory of his journey on a map of the world, from Bavaria all the way to Korea, then drawing on a blackboard in chalk the territory of Korea and that of Italy, two peninsulas that look similar; two capitals: Pyongyang and Rome, which he surrounds with a line to show that this is the center, the capital of capitals. But the analogy between the capitals is merely a play of forms, for on one side is civilization, the model to be imitated and the rules to follow, and on the other, what remains. The unknown – barbarian or civilized?

In what is an almost exhaustive nomenclature, Norbert Weber lists a register of names and things, alphabetically ordering all the things that constitute this new world, a multiplicity of objects, concepts, practices and languages, a great curious and subjective disorder which nestles behind the familiar order of our alphabet. The journey continues and is summed

up in words that are familiar-sounding, strange, magical or marvellous, from Altar to Tree Care (Baumpflege), from Horse (Pferd) to Japanese Nationalism (Nationalismus Japans), or from Korean Dependence (Abhängigkeit Korea) to Cypress (Zypresse).

Thus Magic Tree (Zauberbaum), p 63, 64, is followed by Civilization (Zivilisation) p 407:

On this page 407, we find a photograph of a group, a montage, with the caption: **“Excursion to Bukhan Mountain. + Consul General Dr. Kruger,”** and then the text from the previous page: **“The center of this new cultural epoch is Count Terauchi, who as the chief leader of the civil government also holds the highest military authority. He is an old warhorse** (there follows a description of the feats of Count Terauchi and the French he learned during his military studies in Paris). **The discussion with Count Terauchi turns on Korea and the cultural endeavors to be accomplished here. He expresses his control clearly and conspicuously, without much ceremony. Many of his countrymen think that the Koreans are savages. He says that is false: Korea had a civilization and, in the past, worked its way up to no mean level of culture. Onl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16th century were there setbacks. His efforts are dedicated to awakening and reviving this old civilization as far as is possible. He anticipates that given the lack of correct understanding and the opposition of many of his countrymen, he can accomplish this neither fully nor everywhere: he only wants the best for the country whose administration was entrusted to him.”**

It was at the end of his journey that Norbert Weber met the Count Terauchi, the military and civilian chief of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 had annexed Korea in 1911, and when Weber visited it, it was a Japanese colony. His visit to the Count was thus a diplomatic one, because the Catholic community needed to remain on good terms with the occupant. The situation was delicately poised and the Japanese were in a state of semi-war, and could have driven out the Christians and Westerners. Historically, the Catholics had supported the Korean rebellion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with many priests being martyred for the cause. Often associated with the cause of the Korean people, the Catholics were associated with the idea of independence.

Weber’s visit was therefore a risky undertaking, for it had to convey a tolerant, cooperative attitude towards the Japanese while more or less overtly signifying an interest in and support for Korean culture to the occupant. The meeting point in this possible entente is found in the definition of the word “Civilization (Zivilisation).” For Count Terauchi, Korea was an old and lost civilization, almost a dead one. The Koreans, in his view, lived merely in the shadow of their knowledge and power, and it was the Japanese, by their knowledge and development initiatives, who were awakening and revitalizing this people. The occupation was thus a renaissance – there was of course no mention of the way the Koreans had been reduced to a state of virtual slavery, or of the fact that the fruit of development and their wealth belonged to the colonizer.

Right from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Weber paints the picture: Korea was an occupied

territory, and the Japanese occupant, by spreading throughout the territory, by wreaking its technological, administrative and urban transformations, was destroying its culture, people, vestiges and landscapes. The occupant was annihilating this civilization. It was using and devouring it.

“One is astonished at the effort Japan is putting into economically bolstering the annexed country. ... In any case, one gets the impression of how it has been done elsewhere; ... or how Korea’s own rulers should have done it; or perhaps how Russia would have done it, had Korea fallen into its hands. Surely it is not an entirely altruistic love that Japan holds for the people who were once downtrodden by their erstwhile rulers. Japan is not only proud to show Europe that it did not receive schooling in the West in vain; Japan also wants to give the appearance that it has already surpassed its teachers. Moreover, the Japanese wish to put their colony in a profitable state so as to re-extract, through taxes, at least a percentage of the invested capital. But above all, they want to prepare the land, which is inundated with settlers from Japan, for themselves.”

There was, then, a civilization. Complete, complex and strange, but coherent, and Weber’s duty was to describe what he saw, a present time that very soon would be no more. What Weber presented to the West was a future ruin. He was building a memory of which he seems to be both guarantor and keeper. It was a mission. He was the upholder of a lost cause against destructive forces, and in the very action of saving lie the justification and the foundation of his faith and the legitimacy of his presence. He was a savior. This aesthetic of ruin is found throughout the book: towns and villages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by the modern infrastructure of Japanese colonization, but above all the mysterious forests and tombs of the ancestors, lying just off the pathway, where the solitude and mystery of Korea are condensed. He writes from within a fault line: a disaster has already occurred – the Japanese invasion; a disaster is still to come- the Japanese and German fascist expansion. And now, the melancholy of exile.

Solitary graves

“Waldeinsamkeit - Solitude of the forest” comprises the following sub –chapters: **“Silent Spectators, Solitary Graves, In Exile, Spring Morning in the Korean Forest, At Home.”**

2. April

“We gradually came up quite high. Far below us, the village, and beyond that, the luminous surfaces of the rice fields, between which the boundaries traverse like curving waterways. The sand hills fleeing from the plain to the mountains twinkle as if newly gilded. They lie on top of each other like rooftops, just as if a ‘testudo’ formation of ancient Romans were charging up the mountain. More and more, the mountains emerge as we look further into the valleys, and the spring sunshine showers a magical illumination over everything. And here at the top, solitary in God’s clear nature, two graves, plain and unadorned, something worked into

the mountain slope. A man and his wife rest here, undisturbed by noise from the ground and unaffected by traces of other graves. The Christian graves also adhere to Korean custom; they lie widely dispersed around the estates. ... The Sunday afternoon beckons us into the solitude of the forest with its lonely royal tombs.”

Weber contemplates. In the Korean landscape, as in Roman landscapes, he reads a deep mystery, something intense and pure that transcends cultures. A store of sublimity. The gaze inhabits the landscape. It abolishes distance. The stranger is someone close, a familiar, a friend. The inaccessible belongs to him, he experiences it intimately, in a unique, solitary way that only the contemplation of nature allows, a nature that knows nothing of civilization, but does know the world of the dead.

He understands the living and the dead with an empathy that transcends differences. The sublime is far from the Bavarian Alps but is hidden in the gentle and mysterious tombs of Korea. Weber escapes exoticism and Orientalism because what he reads in Korea is simply a narcissistic disquiet, a portrait of his own questioning self. As if in a painting by Caspar David Friedrich in which he occupied the place of the beholder. The journey transformed him into a novelistic figure.

A contemporary idea of the sublime would be to register the unrepresentable in the very act of representing. The work as an actualization of this limit and, by its own existence, its negation. A double bind. Now, Weber sought the infinite, to come face to face with Mystery, the figure of the impassable, but this figure finds an answer – one that is almost ironic, because unknown to him – within his own cinematographic images. In effect, in the second part of his film, Weber stages himself. He is the foreigner, the man in black – in the negative sense, the intruder.

We see him standing among a group of children and when he looks at the lens and stands upright facing the camera, he occupies a place that is self-evident: that of the director, but also that of the intermediary, for his gaze speaks to us, the Western spectator, in the reassuring exchange of recognition of the same. Sometimes, as if to shatter a frontier, he takes part in the activity of a group, squats down with children, shares a meal or joins a family both seriously and awkwardly. He seems to be learning and understanding when, for the duration of the photo, he leaves the position of authority for a more paternalist alterity.

While he stands almost with his back to the camera, a young man lifts up the back of his scapular and leans over to see what is under it, as if looking under the skirt of a woman. Weber does not react, making the scene almost comical, and laughter acts as a shock wave. Weber could so quickly and easily become ridiculous: the almost scientific approach to the subject turning towards the observed object reaches its limit point in a gentle rebellion.

The power embodied by the vision machine switches around. The Koreans are no longer

figures to be contemplated, mute and passive but people as curious about what is foreign as we are. Laughter enacts an invisible revolution. An extreme pleasure. They are looking at us, judging us.

Textual excerpts

“One who grows up with the German forest is like a rural child who dreamt away childhood’s school-free days in the forest, using these holidays from studies to rest his weary head in the fragrant forest air and let his compressed lungs exhale; to him it comes within a few days of a journey to the south, once he is over the Alps: a genuine homesickness for the German forest. The eye becomes tired from the copious brightness and sights; it searches for the deep, harmonious tranquillity that the distant forest, in its blue darkness, hangs as a heavy curtain before the world’s turmoil; it searches for the dreamy dance of colors that the nimble rays of sunshine perform with the heavy shadows in the tree branches. The imagination becomes so full of sensations that it only wants to retreat so as to organize them. It longs for the peace of the forest. After all of the haste and chasing of the unfamiliar, the heart wants to have a piece of home again. Yet it is always otherwise. Like winter frost, the briny sand fields take hold of the Suez Canal, over which the hot air trembles, cold at heart. The mountains bordering the Red Sea glow, red-baked just like a forge. The Ceylon palm forests are unable to quench the longing for the German forest. The chatty whisper of the palm leaves cannot replace the majestic hush of the fir tree forest, nor can the sultry heat that broods under the palm roofs replace the thunderstorm that billows at the tops of the beech trees. ... And Korea, with its barren mountains, attached to which one can easily count individual trees! Surely one must become homesick here? No small wonder when, on a long detour to Suwon, we are drawn back into the forest. Like a greeting from the German homeland, it invites us. ... In half an hour the morning-calm forest takes us in. Much inside of it reminds us of the German homeland; however, much inside of it strikes us as strange yet soothing, and yields harmoniously in the sublime quietude of the morning calm.”

The magician

“The Korean is a dreamer. He can sit alone for hours at a time; meanwhile his eye wistfully loses itself in the vastness of nature. Now, in the spring, when the azalea flowers glow on the mountain slopes, he never tires of looking at them. ... Day by day the colors become stronger, darker. His eye rests on the clear blue of the distant mountains. He can turn away from it no longer. He observes a small flower at the wayside and cannot part with it. But he lets everything stand peacefully in its place; he does not break off a flower, nor does he put up a bough at home in his dark living room. Rather, he goes the next day again into God’s free nature and inspects everything once again, and then again, and again. But what he brings back home, what he has absorbed deep into his soul, is the pure, clear color that he has abstracted from nature. And he utilizes the luster of the colors that he observed in nature. He places around his children the tints of color, as they are, without the detail that they are

attached to in nature. For this reason, these simply tinted, unpatterned garments have so much familiarity, tranquillity and artistry. It is only regrettable when manufactured goods suffocate folk art and the spirit of the people. But it will come, it is bound to happen.”

The Korean is a dreamer. If walking in a landscape, dressed in white, in an ample robe and a hat, he may be a beggar or, on the contrary, a penniless aristocrat who has no right to work, an errant figure, one of the living dead? The Korean seems to establish strange dialogues with the dead. Weber describes the last hours of a man and the acts of magic performed by the sorcerer before he dies, then notes the words spoken over the tomb.

From the deathbed into the grave

“On the sickbed, the shaman plays his role; on the deathbed, superstition; at the grave, the geomancer with a compass.”

Great description of the mortuary ceremony:

“The content of the mourning song on the way is poignant: ‘The crossing over (death) is difficult. If you go now, when will you come back?’ So sing the two leading singers, who dance around with their small bells before the casket. The others reply, ‘No, he will not come anymore.’ ‘Then will you come back when the sea runs dry?’ The same answer: ‘No, he will not come anymore,’ and so it proceeds with imaginative expressions. In the meantime, the grave is made.”

He carefully films the recreation of a ceremony – a procession, a wooden coffin, a tomb – as if we could compare it to a Christian rite and, by analogy, find there the verification of a people’s civility. He recreates scenes – for the truth of the moment matters little; the point is to understand events and actions. The Koreans are actors in their own culture. What matters is not truth but representation. It is a spectacle made visible, one that has pedagogical virtues. A man takes a bottle and buries it. It seems that this is the soul of the dead. A commentary on the action is on a card. This is a kind of local superstition. But is it more so than taking the communion wafer in Catholic ritual, which, without explanation, seems merely a series of disembodied actions separate from their religious meaning, a pure and undecipherable choreography.

“As we come home for late lunch, a yangban, or nobleman who has travelled nearly ten hours to get here, awaits us. He says that he would like one of us to accompany him for a few days into his native mountains. ... ‘We must hunt a stag. There are enough stags in the area, and we know the animals’ traces. But we have not been permitted to carry arms for as long as the Japanese have been the masters of our country.’ ... ‘But why a stag?’ ‘My father suffers from a weak heart: he is so weak that we fear his death. Now only a stag’s antler can save him.’ The stag’s antler was roasted in the fire and pulverized, and this medicine is said to wonderfully strengthen those who are ill.”

The fate of the dead, their passage, spirits, the gods—Weber meets them on his journey. He films a man dancing. He does not know that if he is dancing it may be in order to cure something. He does not know the powers of dance. He does not know about shamanic power, but he films them. Without knowing. But perhaps it is in order to better grasp the gap, the frontier of a world that we can contemplate, but must not enter. What the images of the film show is the form of the impassable, or even the invisible.

The last chapters of the film show the mission. In the courtyard surrounded by big brick buildings, children and adolescents line up, erect, salute and sometimes hint at an almost military dance step. On the cardboard we can read: **“The directive in their schools is the Word of the Mission: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Eccl. I. xvi.”**

Full circle

All these gazes, these moments of fine empathy, were they no more than condescension, a waste of time, pure calculation? The mission, its colony, its order, its single god, now marked the territory of Korea, creating an enduring history.

“One senses it, like a religious yearning embedded in the people, and how it is surely not easy for a pagan people to be so ripe for the harvest, as for one that grew on the martyr’s blood-soaked ground of Korea. Certainly, Korea stands at a watershed of the times. The storms of persecution that Christianity deeply took root in are over; will a hopeful springtime henceforth rise?”

Norbert Weber’s 1927 journey from Bavaria to Korea comes full circle in Bavaria in 2012, along the path of beliefs and of the dead, in discussions and exchanges between two artists. Through the meeting with the shaman Kim Keum-hwa,, and “her spiritual daughter,” Andrea Kalff, a young Catholic woman from Bavaria. A strange trajectory between what is known as religion, culture and superstition, between the sublime and anecdote. Powers and power.





Abend auf der Haide

Zum Abendessen und noch tief in die Nacht hinein ist das Zimmer zum Erdrücken voll. Wir benützen die Gelegenheit, um einige Spracheigentümlichkeiten zu notieren. Man sagt dem Koreaner nach, daß er sehr viel esse. Vielleicht haben sich aus dieser Eigenschaft die vielen sprachlichen Verbindungen herausgebildet, welche das Zeitwort mokta, essen, eingeht. Daß der Koreaner den Reis isst, (pap mokta) finden wir selbstverständlich, auch das Wasser isst er (mul mokta), den Rauch seiner Pfeife isst er (tampá mokta). Ein Tauber hat das Gehör oder vielmehr die Ohren gegessen (kui mokta), der Traurige die Traurigkeit (koktschong mokta), er ist traurig, der Hartherzige die Bosheit (ak-han mäm mokta), der Zornige den Zorn (pun-han mäm mokta). Auch die Ehre des Nächsten wird gegessen vom Ehrabschneider, sung mokta, den Namen essen. Alt sein wird ausgedrückt mit sal mokta, Jahre essen. Und so geht es fort und fort. Dabei ist es nicht ein Mangel an Ausdrücken und Wendungen; denn die Sprache ist reich, ja überreich an Wörtern und Bedeutungen und Phrasen, so daß es geradezu schwer fällt, sich zurechtzufinden. Will man Belehrung haben über einen Ausdruck, den ein Koreaner gebraucht hat, und bittet man ihn, das Gesagte zu wiederholen, so wird er es tun, aber sicherlich in einer neuen Wendung und vielleicht gelingt es nach zehn verschiedenen Redewendungen doch schließlich nochmals auf den zuerst gebrauchten zurückzukommen.

Die Sprachstudien machen uns müde. Da kommt ein Deus ex machina. Ein Mann rückt mit einem Gewehr an, dessen Schloß in Unordnung gekommen ist. Ich soll ihm das Ding wieder einrenken. Ich nehme die Flinte auseinander. Sprachstudien und alles andere ist vergessen, und ich bin mit meinen mechanischen Künsten der Mittelpunkt der gespanntesten Neugierde. Lange will es nicht gelingen, das Schloß ist sehr kompliziert. Endlich um 11 Uhr ist das Gewehr wieder schußfertig.

Einsame Gräber

2.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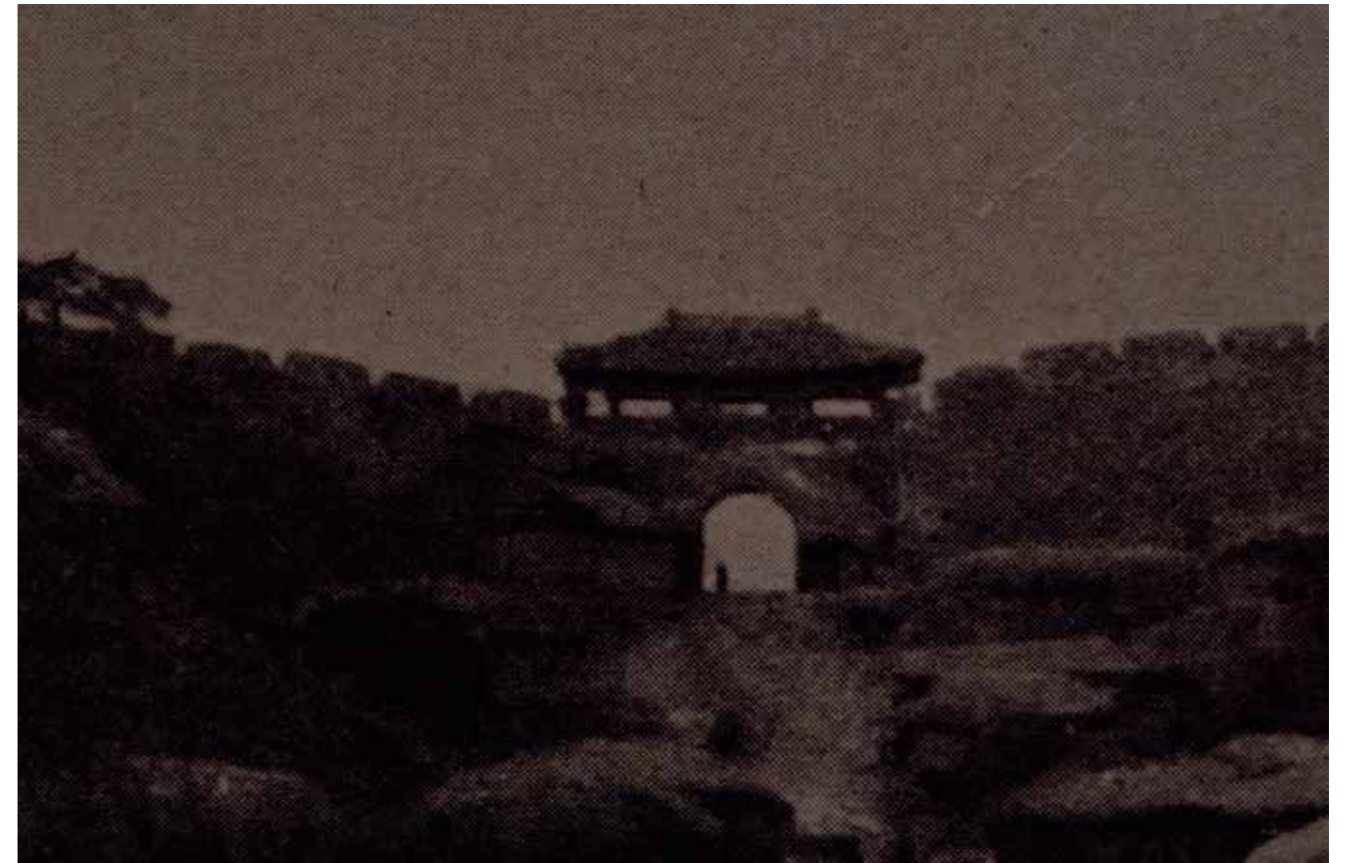
Wie wir gestern abend spät unsere Ruhestätte aufsuchten, da drang noch von allen Seiten her aus den Häusern das laute Beten der Christen an unser Ohr; und als heute morgen um fünf Uhr unser Wecker ablief, da war ihm das Beten der guten Leute zugekommen. Obschon wir mit dem Gottesdienste früher beginnen müssen, da wir drei Patres sind und nur ein Altar vorhanden ist, so sind doch auch die Kinder schon vollzählig in der schmalen Kapelle und halten mit ihren frischen Stimmen die ganze Zeit des Gottesdienstes mit lautem Beten aus.

Hinter Katheni richtet sich eine Bergwand auf, an der wir uns zum Morgen-spaziergang emporarbeiten. Schon hat der nahende Frühling einige der frühesten Blümlein aufgeweckt, die uns wie alte Bekannte der fernen Heimat grüßen. Dort an einem sonnigen Fleck duckt sich die Kuhschelle (Pulsatilla) schutzsuchend vor den rauhen Winden hinter einen verwitterten Felsblock. Sie kleidet sich in dunkleren Purpur als ihre Schwester daheim auf unseren Triften. Veilchen vergessen ihre angeborene Bescheidenheit und schauen neugierig unter ihrem grünen Blätterdach hervor. Und doch hätten sie allen Grund hübsch zurückgezogen zu bleiben; denn sie sind die ersten, welche den Beweis erbringen wollen für die Wahrheit des geflügelten Wortes, das ursprünglich für China geprägt wurde und das Korea als Zugabe zur chinesischen Kultur mitbekommen hat: die Vögel Koreas singen nicht, die Blumen Koreas riechen nicht. Dort glüht ein Strauch wie ein brennender Dornbusch. Kein Blättchen ist an ihm sichtbar; loderndes Feuer scheint in seinen dürren Ästen zu wohnen. Chindalegot heißen die Koreaner diese Blüte, die in wenigen Tagen alle Berge Koreas wie in ein Feuermeer eintaucht. Die ersten, ungeduldigsten Blüten haben die schützende Kelchhülle zersprengt; sie wollen es nicht glauben, daß noch kalte Nächte und stürmische Tage kommen. An Gestalt sehen die einzelnen Blumen einer Pelargonien-Blüte nicht unähnlich; doch ist die Farbe der Blumenblätter mehr eintönig und nicht durch die dunklen Streifen der Pelargonie verstär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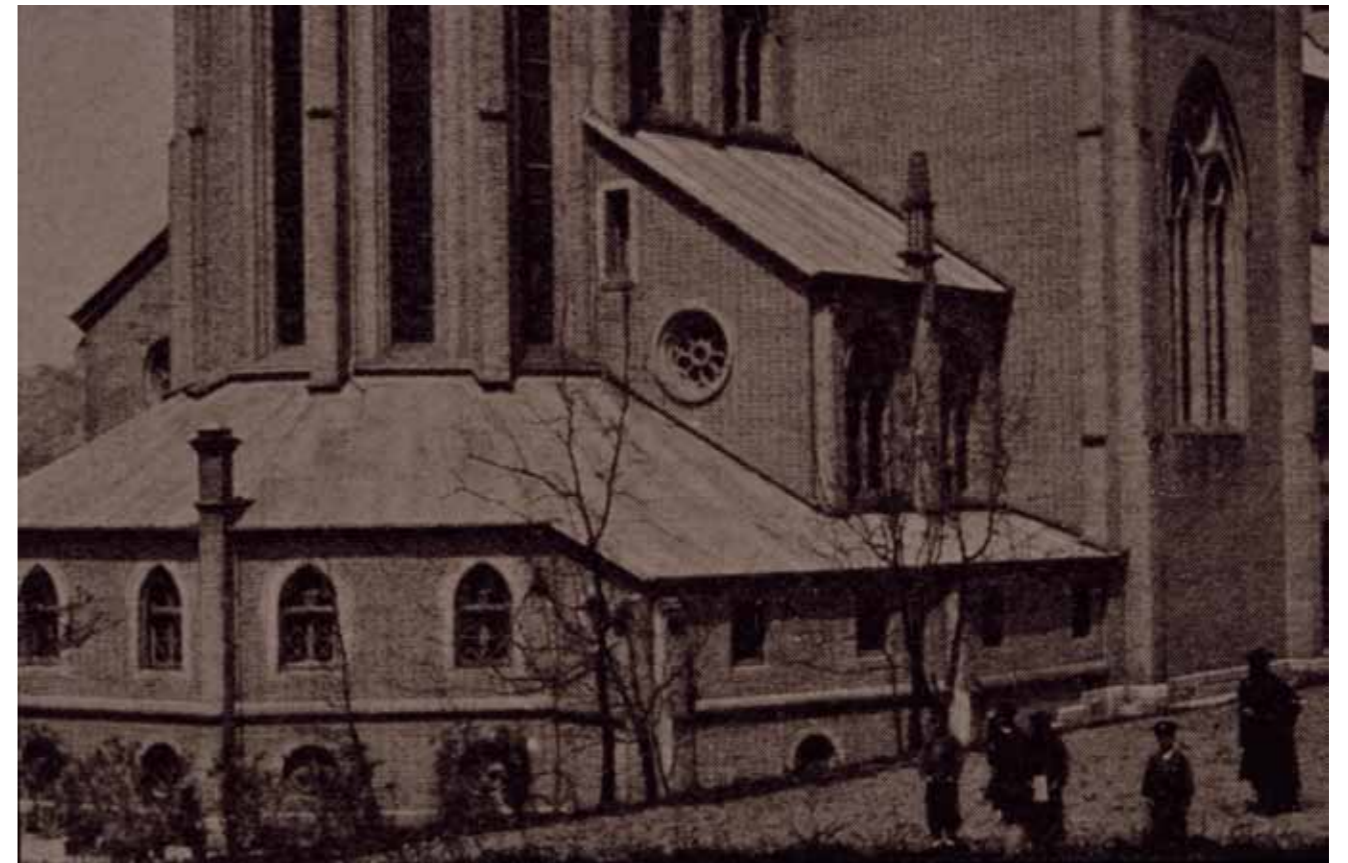
Wir sind allmählich ziemlich hoch hinaufgekommen. Tief unter uns das Dörflein und darüber hinaus die leuchtenden Flächen der Reisfelder, zwischen denen sich die Raine wie Mäander durchziehen. Wie neuvergoldet blinken die Sandhügel, die aus der Ebene gegen die Berge fliehen; wie Dächer liegen sie übereinander, gerade als ob eine „Testudo“ der alten Römer den Berg hinanstürmte. Immer mehr treten die Berge heraus, immer weiter schauen wir in die Täler hinein; und über alles gießt die Frühlingssonne eine magische Beleuchtung. Und hier oben, einsam in der freien Gottesnatur zwei Gräber, schlicht und schmucklos, etwas in den Bergeshang hineingearbeitet. Ungestört vom Erdenlärm,



8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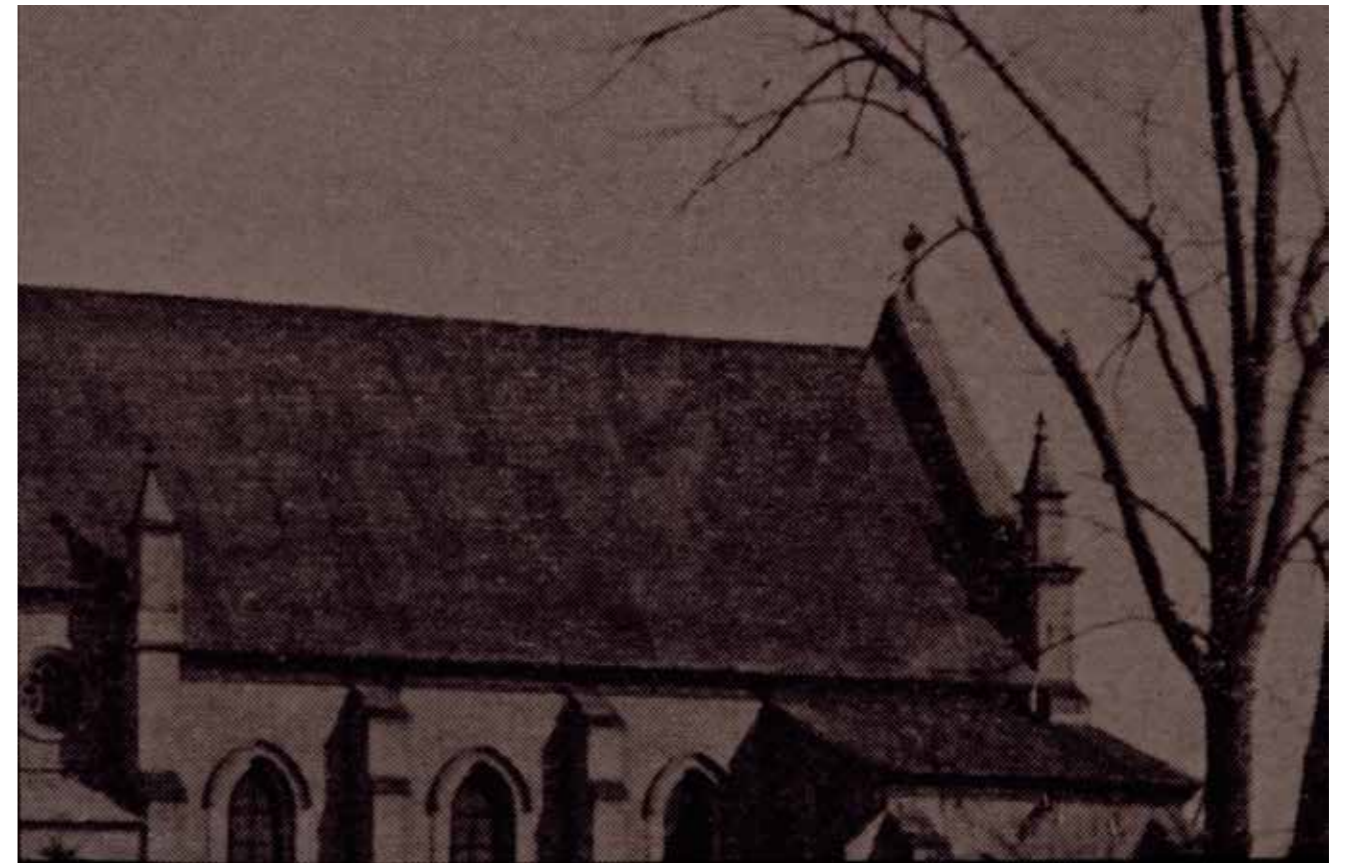




86



87



Religion ganz besonders. Die ganze Erziehung der Jugend, das ganze Streben des Volkes trägt den scharf geschnittenen Stempel höchsten Nationalgefühls. Auch die Religion soll national sein. So kommt es, daß nicht selten zu Hause und in der Schule schon dem Kinde eingepägt wird, was im gesellschaftlichen Verkehr sowie in der Betätigung des Lebens immer wieder laut zum Ausdruck kommt: Die christliche Religion ist nicht nur Aberglaube, sondern auch antinational. Wie tief solche Hiebe sitzen! Für den japanischen Nationalstolz, der insbesondere seit den Kriegserfolgen gegen Rußland ins Ungemessene gewachsen ist, kann es nichts Härteres geben als den Spott der Leichtgläubigkeit und die Verachtung, die den Vaterlandsverräter trifft. Darin liegt zum großen Teil der Widerstand, der sich dem Fortschritt des Christentums in den Weg stellt. Nehmen wir dazu noch die enormen Steuerlasten, deren Aufbringung dem gewöhnlichen Volke keine Zeit gewährt, sich mit Idealen zu befassen, und den nationalistisch-indifferenten Unglauben der höheren Stände, dann darf es uns nicht wundernehmen, wenn die mühereiche Arbeit eines Paters oftmals nur von zwei bis drei Taufen im Jahr gesegnet 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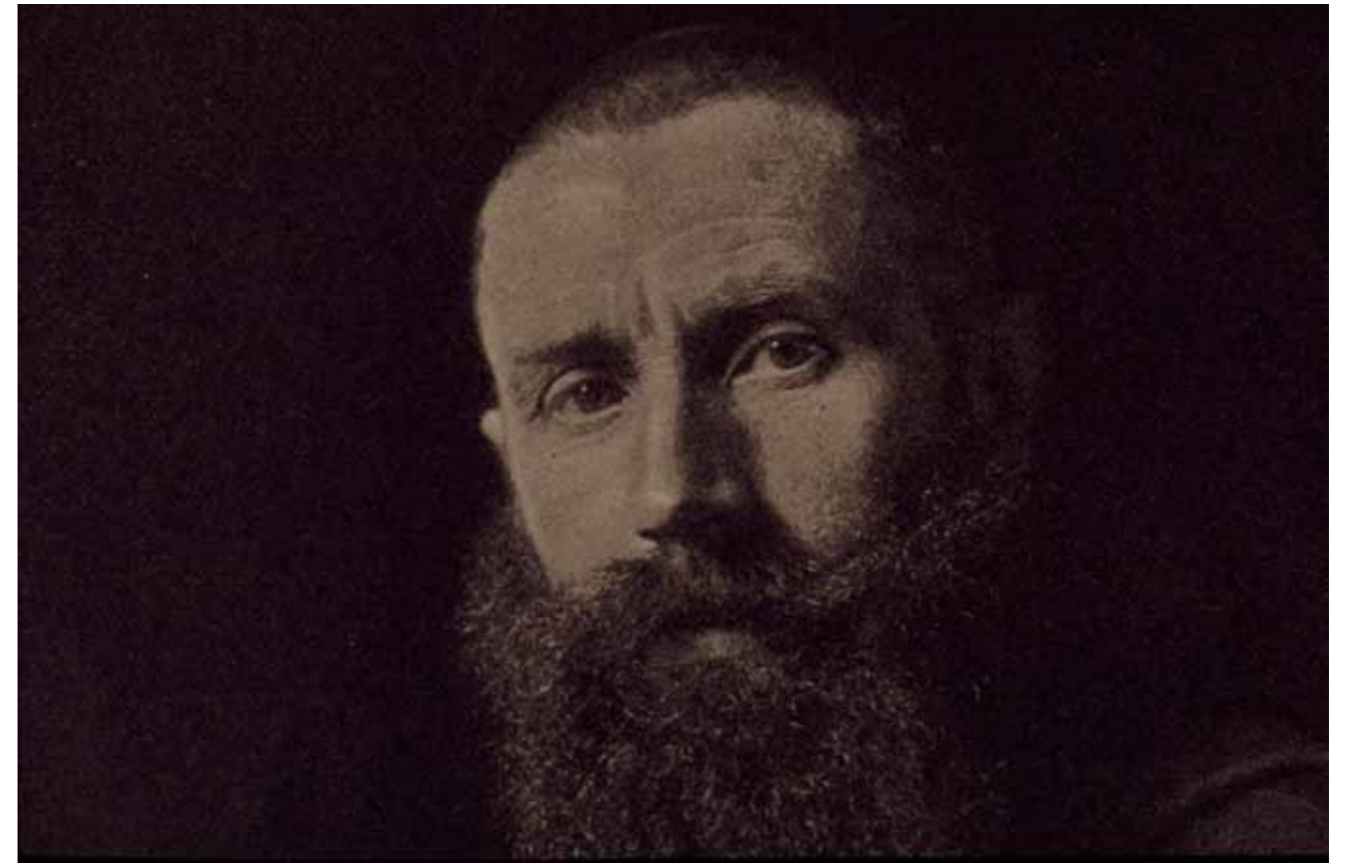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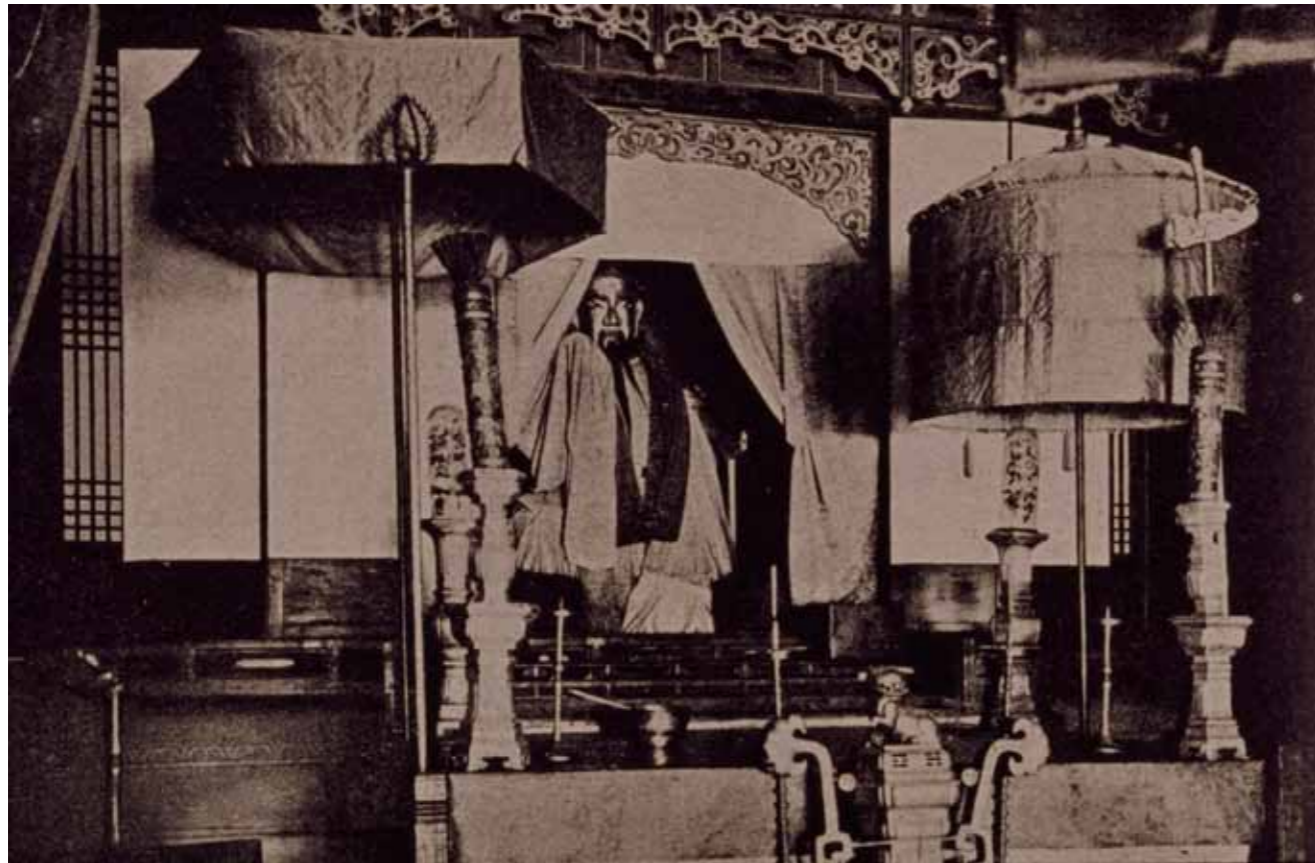
Durch einen verlassen Friedhof steigen wir zur Stadt nieder. Mit seinen unter niedrigen Pinienbüschen versteckten Grabmonumenten bietet er einen ähnlichen Anblick wie unsere Gottesäcker. Nur das Kreuz fehlt auf den Steinsäulen oder Steinquadern, die auf wohlbemessenen Granitunterbauten ruhen und eingemeißelt den Namen derer tragen, die hier der Auferstehung harren. Eine Steinumfriedung schließt jedes anscheinlichere Grabmal ein. Am Eingang zum Friedhof starren steif wie versteinerte Mumien sechs kleine, halb lebensgroße Gottheiten, in Relief auf eine steinerne, fast gotische Tafel gebannt dem Besucher entgegen. Gelbe Brusttücher hängen ihnen um den Hals.

Bis die Stadt uns wieder aufnimmt, ist die Sonne schon tief hinabgesunken; sie schickt sich eben an, schlafen zu gehen. Uns zuliebe öffnet sie nochmals groß ihr leuchtendes Auge und wirft einen gütigen Blick auf das Tor-Hotel, auf dem die deutsche Flagge weht, uns darauf aufmerksam zu machen, daß die Deutschen sich endlich der erdrückenden Umarmung englischer Bevormundung entziehen wollen. Das englische Strand-Hotel sieht ja diese Gelüste nicht gerne, wird aber die Deutschen gewähren lassen müssen, wenn sie sich zusammentun, um wenigstens untereinander deutsch sprechen zu dürfen.

Auf der Straße schöpft ein Mann aus einem Tee-Wagen, der eine Miniaturausgabe eines unserer „Zigeuner“-Wägen darstellt, dampfenden Tee aus. Müde langen wir zu Hause an, wo wir uns noch auf den morgigen Sonntag richten. In später Abendstunde kommt noch ein Gast aus Osaka, P. Walter, der Obere der dortigen Maristen-Schulbrüder. Er durchkreuzt alle bisherigen Pläne für morgen, indem er uns bestimmt, ihn in Osaka zu besu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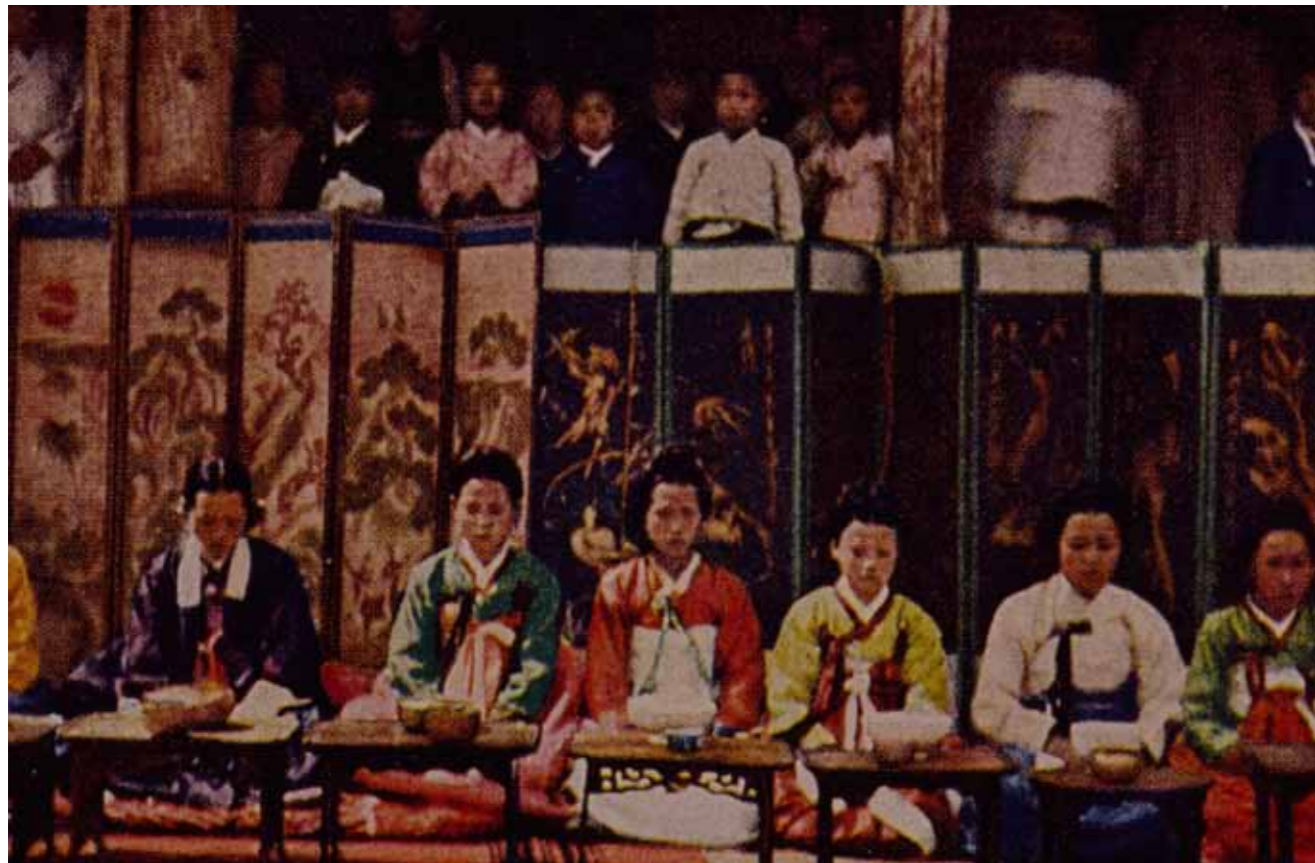


Frauentracht in der Hauptstadt und Umgeb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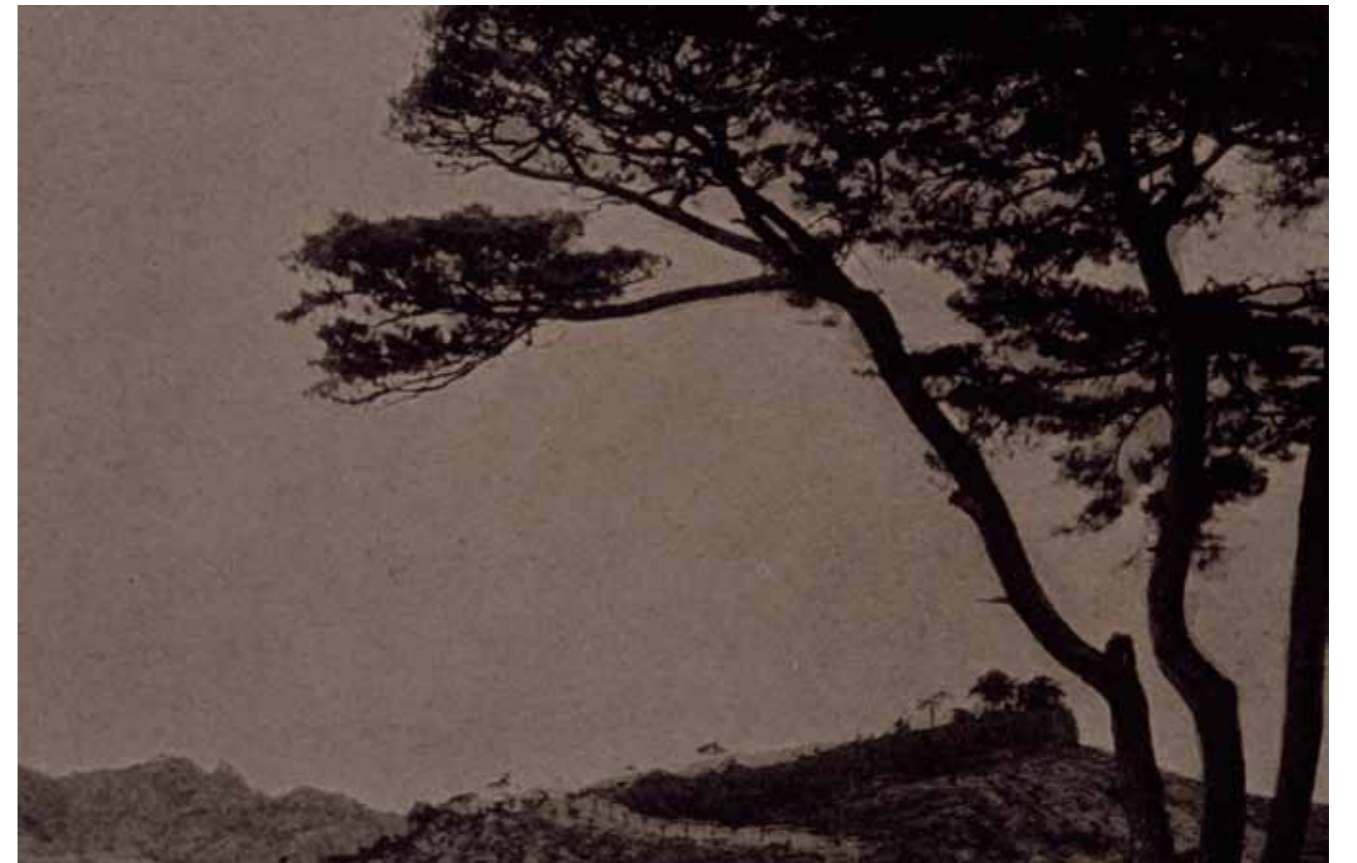




92



93







N. W.

Natacha Nisic

Libretto

A narrator

Choir: a man, a woman, a child.

Free reading

N. W.

나타샤 니직

대본

서술자

합창단: 남자, 여자, 아이

자유 낭독

ALL THAT HE KNOWS
(TO TEACH YOU WHO YOU ARE)

A FULL LIFETIME
DEDICATED TO A COUNTRY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

**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의 일생**

N.W. COMES TO KOREA
AFTER A LONG TRIP FROM GERMANY
OVER LANDS AND SEAS
BRAVING THE DISTANCES
AND THE SECRET MEANING
OF FOREIGN COUNTRIES

멀고 먼 독일을 떠나 지나간 여정 끝에
N.W.가 한국에 오다
산과 바다를 건너고
까마득한 거리
낮선 나라들의
알 수 없는 의미에도 굴하지 않고

ON THE FIRST DAY

HE WATCHES

ON THE SECOND DAY

HE WALKS

ON THE THIRD DAY

HE SAYS

I AM HERE

TO LET YOU SEE WHAT YOU ARE

TO LET YOU LEARN WHO YOU ARE

TO LET YOU BE WHAT YOU WILL BE

첫째 날

그가 보며

둘째 날

그가 걸으며

셋째 날

그가 말하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며

여러분이 미래에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HE IS NEVER ALONE
HE HAS NO VOICE AND TAKES PICTURES
HE HAS NO BODY AND CONTROLS THE MOVEMENTS
HE HAS NO FACE AND SMILES

LOOK AT HIM WATCHING
HE PLACES THE MEN WHERE THEY ARE
HE ASKS THEM TO DO WHAT THEY DO

SOMETIMES THEY LOOK AT HIM
SOMETIMES THEY LOOK AT THE CAMERA
THEY ARE WATCHING HIM
WEARING LONG WHITE DRESSES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그는 목소리가 없으나 사진을 찍고
몸뚱이가 없으나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얼굴이 없으나 미소를 짓는다네

지켜보는 그를 보라
그는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을 있게 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해달라고 청한다지

때로는 그들이 그를 보네
때로는 그들이 카메라를 보네
그들이 그를 지켜보네
길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를

*THEY KNOW WHERE THEY ARE
THEY KNOW WHERE THEY HAVE TO GO
THEY KNOW WHAT THEY HAVE TO DO
THEY INHABIT THE LANDSCAPE
THERE IS NO NEED TO DESCRIBE IT
IT IS THERE TO BE LIVED IN*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고 있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할지 그들은 알고 있지
그들은 풍경 속에 거주하지
묘사할 필요가 없는 풍경
그 안에 들어가 살라고 있는 풍경*

HE IS CURIOUS
AND SITS BESIDE A CHILD
WATCHING HIM PLAYING WITH A STONE
FOLLOWING UNKNOWN RULES

HE TAKES THE TIME TO CONTEMPLATE

A MAN DANCES
WEARING LONG FLOATING SLEEVES
AS HE TURNS AROUND IN A LONELY RHYTHM
THEY BURY A BODY
AND PUT THE SPIRIT IN A BOTTLE

그가 궁금해 하며
한 아이 옆에 앉네
그리고 아이가 미지의 규칙에 따라
돌멩이로 장난치는 것을 지켜보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네

길고 펄럭이는 소매의
한 남자가 춤을 추네
쓸쓸한 리듬에 맞춰 그가 뒤를 돌아
그들이 시체를 파묻고
병 속에 영혼을 담네

THE SQUATTED CHILD DANCES FOR THE PRIEST
MEN LOOK AT THE CHILD
THEY SHOW HIM WHAT HE WANTS TO SEE
ACCEPTING THE MECHANICAL GAZE OF A CAMERA

HE DRAWS WITH A WHITE CHALK
THE FORM OF A FAR TERRITORY
A CHOIR
SINGS THE LETTERS OF A NEW CAPITAL

웅크린 그 아이가 신부(神父)를 위해 춤을 추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네
카메라의 기계적인 시선에 수궁하면서,
그들은 그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네

그가 백묵을 들고 그림을 그리네
멀리 있는 어느 영토의 모습
합창단이
새로운 수도(首都)의 철자를 노래하네

SOMETIMES HE HEALS
COME TO HIM
STAY WITH HIM
BE KIND
YOU WILL BE HEALED
CURED OF A PROFOUND DISEASE
AN INVISIBLE DISEASE

이따금 그는 치유를 하지
그에게 오라
그와 함께 머물라
온유하라
당신이 치유를 받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질병
심각한 질병에서 치유되리니

HE SAYS
YOU ARE YOUR OWN DISEASE
I KNOW WHERE IT IS
I WILL SHOW YOU WHAT IS RIGHT
I WILL SHOW YOU WHAT TO LOVE
I WILL SHOW YOU WHAT TO FEAR
I WILL SHOW YOU THE REBIRTH OF YOURSELF
THERE IS TIME BEFORE
THE DISEASE TAKES YOU AWAY
THERE IS TIME BEFORE YOUR FALL
FORGET YOUR OLD LOVES
FORGET YOUR OLD GODS
YOUR WORLD HAS TO BE AWAKENED
YOU ARE BLIND

그가 말하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병
아픈 곳이 어딘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옳은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할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에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거듭남을 보여주겠습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앓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요
몰락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의 옛 사랑은 잊으십시오
여러분의 옛 신(神)들은 잊으십시오
여러분의 세계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멀었습니다

I AM YOUR MEMORY
LOSE INHUMANITY
WIN HISTORY

나는 당신의 기억입니다
비인간됨을 버리고
역사를 얻으십시오

MEN STANDING IN LINE
CHILDREN
WOMEN WAITING UNDER THE SUN
ARMS RAISED
IN THE YARD
IN FRONT OF THE BRICK BUILDING
HE SHOWS
WHAT TO FEAR
WHERE DEATH IS

줄을 선 남자들
아이들
태양 아래 기다리는 여자들
벽돌 건물 앞
앞마당에서
치켜든 무기들
그가 보여주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디에 죽음이 있는가를

N.W. WILL BRING HIS FILMS BACK TO GERMANY
AFTER A LONG RETURN TRIP
THROUGH DANGEROUS UNKNOWN LANDS

N.W는 그가 찍은 영상을 독일로 가져가리
위험천만한 미지의 땅들
기나긴 귀향 여정을 지나

LA MÈRE



어
머
니

La Mère

Natacha Nisic

•

Je n'avais jamais entendu parler de Kim Keum-hwa avant que Park Chan-kyong ne me montre les extraits de son film, un portrait magnifique de la plus grande Chamane de Corée.

어머니

나타샤 니직

•

나는 박찬경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아름답게 그려낸 자신의 영화의 발췌분을 보여주기 전까지 김금화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The Mother

Natacha Nisic

I had never heard of Kim Keum-hwa before Park Chan-kyong showed me excerpts from his film, a magnificent portrait of the greatest shaman in Korea.

THE MOTHER
NATACHA NISIC



사진가 미상, 김금화 소장

Unknown photographer, Courtesy of Kim Keum-hwa



김수남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Kim Sunam, Courtesy of Kim Keum-hwa



사진가 미상, 김금화 소장

Unknown photographer, Courtesy of Kim Keum-hwa



김수남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Kim Sunam, Courtesy of Kim Keum-hwa

DIALOGUE WITH KIM KEUM HWA



김수남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Kim Sunam, Courtesy of Kim Keum-hwa



사진가 미상, 김금화 소장

Unknown photographer, Courtesy of KimKeum-hwa



김수남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Kim Sunam, Courtesy of Kim Keum-hwa

DIALOGUE WITH KIM KEUM HWA



김수남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Kim Sunam, Courtesy of Kim Keum-hwa



이진환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Lee Jin-hwan, Courtesy of Kim Keum-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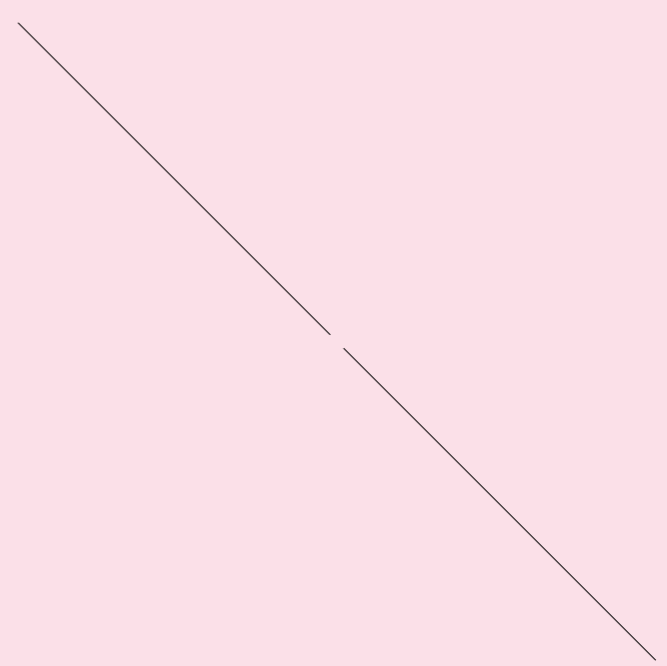
김수남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Kim Sunam, Courtesy of Kim Keum-hwa



이진환 사진, 김금화 소장

Photo by Lee Jin-hwan, Courtesy of Kim Keum-hwa



Park Chan-kyong

1. Baek Seok

A Ghost In Every Corner of the Village

by Baek Seok

*It was bad luck for me to have been born at all in this village.
The village is full of ghosts, and they scare the living daylights out of me.
To begin with, there is Dear Seongju in the room.
I am scared of Dear Seongju and I go to tobang 2) , and there is the Earth Ghost;
I am scared and I go to the kitchen, and there is Dear Joang on the fire-hole mount.*

*I run out and quickly hide in the storage room,
and there on the overhead shelf in the storage room is Dear Deseok;
This time I escape to the chimney corner,
and there inside the chimney is the Chimney General;
I am petrified, and I go to the rear of the house,
and there under the straw thatch of the rear wall is
the Tutelary Ghost of the house site.
Now I have no choice but to go out of the house,
but there in the front entrance is the muscle man, the Chief of Gatekeepers.*

*I go outside, narrowly having escaped through the front gate, and
Pass a mill at the edge of a field, and there in the mill is the Millstone Ghost;
I am frightened out of my wits,
so I set out for a walk on a boulevard, to finally enjoy an easy stroll.
But alas, woe is me! There are the Egg Ghosts hard on my heels;
they come and go everywhere with you.
The whole village is a ghost through and through, and I cannot go anywhere.*

박찬경

1.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백석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펴 수 없다
자 방안에는 성주님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구신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에 조양님

나는 뛰쳐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테석님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얼흔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나는 이제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나는 겨우 대문을 빠져나 바깥으로 나와서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망구신
나는 고만 디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아아 말 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가나 물어 다니는 달갈구신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1) The content of this article has been edited slightly by the translator for improved readability in English. Unless otherwise indicated this and all other footnotes in the article are the translator's.

2) In a traditional Korean house, *tobang* is a raised earthen platform where one takes off one's shoes before entering the main room of the house.

Baek Seok, a poet, was born in 1912 in Jeongju,
Pyeongan Province in what is now North Korea.

Master Shaman Kim Keum-hwa was born in 1931 in Yeonbaek,
Hwanghae Province in what is now North Korea.

Kim Keum-hwa (Kim): There was a *dangjip*³⁾ in the village. Every village had a *dangjip*. You pick out a suitable place, at the bottom of a hill, or at the top, to build the house. And on the 9th day of every 9th month, villages held a communal ancestor worship ceremony. Sometimes they would have a communal gut along with it; other times they hung ropes with white papers around an old tree and held a *gosa*⁴⁾. Every house had some kind of a banner waving by their front gate; a family with a cow worshipped a Cow-head Death God, and another family might worship an assortment of His Excellencies. There would be a jar by the front entrance of the house called His Excellency Jar for holding a His Excellency spirit. There you would put hulled or un-hulled rice. The world was full of deities, then. You lived with them, and you lived amongst them. In the main room of the house, you might find a *chilseong darae*, a large spool of cotton thread, washed seven times in a day; and when a child turned seven, you might see the Wicker Trunk Granny, too, holding the spirits of the dead family members. They had Generals and His Excellencies, too.

Families that operated ship(s) sometimes even worshipped shaman bells and fans on the ceiling shelf of their storage room. Some of them kept complete sets of wardrobes for female and male deities, including a His Excellency. These families had as much ceremonial props as a shaman might have. Nobody keeps them anymore; they all go to a Buddhist temple or a church. We used to also worship Samsin Grandmother (fertility goddess). You would have your request written down on a piece of something, keep it in the warmest spot of the room. You called it *samsin halmeoni* or *se-in halmeoni*. There was not a family without it. A well-to-do family also had a Seongju paper hanging on the *maru*⁵⁾ of their house. A house with no *maru* had the papers hanging in the room ... In the kitchen you had Juang-sin⁶⁾ (the kitchen deity); on the wall where the stove was you hung the wardrobe for the deity and a piece of hemp cloth; on the ground you had a straw pile for the tutelary deity for the house site, a karma jar or a karma straw pile. You had two or three of them. If a family wanted a baby son, they had a place in the back of the kitchen for praying for a son; or if a son was conscripted into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colonial time, they would use the same place to pray for his safety. They prayed to the sky. They would put clear water in a white bowl. And they prayed. To the sky. (From an Interview with Kim Keum-hwa, 2012)

3) Dangjip, presumably, is the 'house of seonangdang,' or the village guardian spirit, the belief in which was a wide-spread practice in traditional Korea.

4) Gosa is a ritual of offering a sacrifice, such as a pig's head, to spirits. It is still quite commonly practiced today – both in private and in public – for any number of special events, such as moving or changing jobs, for example.

5) In a traditional Korean house, maru is the wood-panel floor area facing the courtyard.

6) The kitchen deity is called either Joang-sin or Juwang-sin.

시인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1912년 생이다.

김금화 만신은 1931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다.

김금화: 동네에는 당집이 있었어요. 산 앞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좋은 곳을 골라서 당집을 짓고 구월 구일이 되면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어떤 때는 대동굿하고 도당굿 지내고. 고목나무 우거진 곳에서 새끼 꼬아서 종이에다 걸고 거기다 고사 지내고, 집집마다 문간에 바람에 펄펄펄하고, 소 먹이는 집에서는 소머리 사신이 있고, 아니면 대감들 그렇게 모셔놔요. 대문 옆에 대감 항아리에 쌀 담고 벼 담고 모셔놓고, 그냥 그 때는 신의 세계야. 신과 더불어 살고, 방안에 들어가면 칠성다래를 목화 민영으로 짜서 하루에 일곱물 빨아서 손질해 담아서 아이가 일곱 살이면 이만한 고리짜 할마이라고 돌아가신 분 모셔 놓은 것도 있고, 장군도 모셔놓고, 대감도 모셔놓고.

배 부리는 사람 집에 가면 광에서 시렁에다 이렇게 방을 부채까지 모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옷을 다해서 모셔놓고 치마 저고리에다가 대감의 도포 장삼 고깔 다 해놔. 가정집에다, 그런 배 부리는 사람은 무당의 굿 못지않게 많이 해요. 지금은 그거 다 떨쳐버리고 절에 가고 교회 가고 그러는데. 또 삼신 할머니도 모시는데, 그냥 그렇게 창호지 쪽에 주문 이렇게 해서 아랫목에 모시고, 삼신할머니 세인할머니라고도 하고. 없는 집이 없어요. 좀 제대로 사는 사람은 마루에 성주 종이 걸어 놓고, 마루가 없는 집에는 방에다 성주 종이에 걸어서..., 부엌에는 주왕신이라고 주왕에 붙 때는 벽에다가 옷 건져놓고 베 헝겊 걸어놓고, 터엔 터줏가리 있고 업 항아리 있고, 업가리 있고, 두어서너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는 장독에다 아들을 기원한다든가, 아들이 일찍 때 근에 간다든가, 징병 간다든가 하면 물 떠놓고 할머니가 빌고, 잘 있다 오라고 하늘에 빌고, 하얀 대접에 하얀 사발에 물 떠놓고 빌어요. 하늘에. (김금화 인터뷰 녹취록, 2012)

Oh Yoon: I don't like being called an artist, but I like artists. In any case, if you are an artist, I think you have to be a shaman. The question is how good a shaman you are. Can you really touch someone like a shaman? Make people cry and be inspiring? Now, there is a lot in the traditional craft that is very special, like the white clothes common folks used to wear, and the decoration or design details for furniture, for example.

Traditionally, what we wore, and what we ate all had meaning; there was a religious aspect in everything you did in everyday living. Today, it's common place to throw food away, and we only wear colored clothes. People think that is what is beautiful and what grants human freedom. But that's not the case. We pay only lip service to tradition, saying how good it is. But in fact, is it not the case that we are entirely abandoning the traditional worldview? We used to give a godly status to each and every item we came across in our daily lives, whether it was an object or food. It tells a lot about how much we respected life. As a living being, we respected life, believed there was a spirit, a life in everything, and we respected those spirits; you can't go too far wrong if you live this way, can you? ["What is gut to us today?" (a transcript of a conversation) in *Hanguk-ui gut 10: Ongjin Baeyeonshin-gut* (Anthology of Korean Gut #10: Ongjin Baeyeonshin-gut), Yeolhwadang, 1986.]

Oh Yoon (1946 – 1986) was one of the leading Minjung Artists from the 1980s. He was a founding member of Hyeonsil gwa Bareon (Reality and Utterance), a historical artist group. He is most well known for wood block prints that captured his keen interest in the “national form” of art.

Kim Keum-hwa was married at age fourteen, partly because her family was poor, and partly because her parents wanted to protect her from being taken away as a military comfort woman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However, after three harsh years of living with her husband's family, she ran away and came back to her native home. At age seventeen, she underwent naerimgut, or initiation ritual, by her maternal grandmother, who was a mansin, a master shaman.

Kim: One day I was doing the dishes. I saw grains of cooked rice intact on a dish. It probably didn't help that I was young then. I picked the rice grains out of the dirty water and ate them. And [another time], I don't know how it happened because there was never much food to go around. I poured leftover food in the dog trough and started eating what was in it by using my hands. The trough was about this big – long, and made of wood. I had poured the leftover food there, and it was all stuck there, but I ate it without any sense of shame. I guess it was a crime to do that, because I was beaten. I had to be beaten so that I would never do it again. In the

오윤: 전 그래요. 예술가라는 말은 듣기는 싫어하지만, 좋아요. 여하튼 저는 예술가라면 무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얼마나 근사한 무당들인가가 문제이고, 얼마나 울려 주고 감동시키나가 문제지요. 무당만큼 울려 주고 감동시켜 보라 이겁니다. 또 그래요. 우리 흰 옷이라든가 장농 장식이나 문양 하나하나가 다 심상치 않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저 옷 입는 거 밥 먹는 것까지도 의미가 있고, 일종의 종교성 같은 것을 항상 갖고 있는데, 요즘은 음식 갖다 내버리는 게 일상화되고 옷은 배색으로만 입고, 그 자체를 아름다움이라든가 멋있는 것으로 보고 그게 마치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이 좋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도 사실은 엄청난 세계관 자체를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건 하나, 음식 하나하나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어디 또 있겠어요. 생명으로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그만큼 받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비인간적일 수 있겠습니까? (좌담 「오늘의 우리에게 굿은 무엇인가」, 『한국의 굿 10 - 용진 배연신굿』, 열화당, 1986)

화가 오윤(1946~1986)은 80년대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다. ‘민족형식’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돋보이는 목판화를 많이 남겼다.

김금화는 가난과 일제의 정신대 소집을 피하기 위해 열 네살에 결혼한다. 모진 시집살이를 겪은 김금화는 3년 후에 친정으로 도망친다. 열 일곱에 외할머니 김천일 만신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

김금화: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 거리를 갖다 담그고 보니까 밥알이 그냥 있잖아. 어려서 더했겠지만 그걸 그냥 건져서 먹고. 근데 또 어떻게 됐는지 그 때도 굉장히 먹기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남은 걸 개밥그릇에 쏟아줬는데 그걸 손으로 건져 먹었다고요. 개밥그릇이 요만한데 밥그릇이 길다랗게 나무통으로 봤어요. 다 쏟아지고 다 거기 붙었는데도 부끄럽지 않게 그걸 먹었어요. 개 주는 밥 먹은 것도 죄인지 두들겨 패고 그러더니 이놈의 씨알머리 혼내야겠다고, 부엌에 그전에 가면 요만한 고무래가 있었어요. 재 쳐내는 고무래. 그걸로 때리더니 그것도 시원찮아서 저 빗자루 가지고 또 막 때려. 그래 시아버지가 “왜 그러냐, 집안에 암탉이 울면 망하는데 왜 그러냐” (중략)

old days they used to have a thing called *gomurae* in the kitchen, which was a tool for scraping the ash out of the fireplace. I was beaten with that first. Then, I guess that wasn't enough. I was beaten up some more with a sweep. Then my father-in-law intervened. "What's going on here? A cry from a hen brings the house down, what is going on?" [...] Even today, when I see rice, or side dishes, or *jjigae* (casserole) ... You know, sometimes they throw away rice after a gut. I would tell them then "Look, rice comes from heaven. Think about the old days. Every grain of rice is precious." And if there were any uncooked rice grains on the ground, my mother would say, "Look children, don't waste any rice. Your aunt [referring to Kim Keum-hwa] says that every grain of rice is a grain of word," and she would pick them up. (Excerpt from an interview with Kim Keum-hwa, 2012)

3. "Let's Meet at 11 O'clock" 7)

Kim Dong Geon (Host): Why do you think foreigners like gut so much?

Kim Keum-hwa (Kim): They see somebody walking on blades, and the dance is powerful, and I think there are many aspects to it. I saw wonder in their eyes, and I saw that they were deeply moved. We don't speak the same language, but we see eye to eye, face to face. That is how I understood them, and that is what I read.

Host: Why do you think the foreigners understood it that way?

Kim: Well, I think it is because it is mysterious; because we can share food all together; because we can really hug each other and address *han*, or an emotional block.

Host: You can do that better with Koreans, can you not?

Kim: I don't know why Koreans are like that.. How should I say this... Well, at one point this was all supposed to be a superstition. So some people are still adamant about it. I think, inside, privately, they want very much to embrace this but are afraid that people might think it is backward to do so. So I think they want to keep up appearances. (Excerpt from "Let's Meet at 11 O'clock - Kim Keum-hwa," KBS, 1985.)

4. Kim In Whoe

Kim In Whoe: The whole idea behind education is, ultimately, to nurture a human being to adapt to society, to cultivate a contributing member of society. In short it is to make a good person out of a human being. But look what happened. They say Koreans put very high value on education, and that we have a very high level of education. But why is it that we have so many bad guys, so many crooks, so many thieves among the highly educated?

7) A late-night television talk-show program that ran from 1982 - 1992.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걸 살아내서 그런지 그냥 어디 가서 뭐라 하면 밥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찌개 같은 거 보면 지금도 그 밥을 보면 하얀 밥을 굶는 아이들이 더러 밥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야,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밥은, 옛날 생각 해봐라, 밥알 하나 떨어지면 그거 주워먹고, 쌀 하나 떨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야, 아이들아, 너희들 고모(김금화를 지칭)가 이렇게 쌀 여기다 떨어뜨리면 되냐, 너희 고모가 쌀 한 톨에 말 한마디씩 들어간 거라 하면서 어머니가 주워담고.

(김금화 인터뷰 녹취록, 2012)

3. '11시에 만납시다'

김동건: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gut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금화: 그거는 이제 작두 타고 또 춤에 박력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분들이 신비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무척 감격해 하는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눈과 눈, 얼굴을 마주볼 때 다 모두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김동건: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김금화: 글썽 신비스럽고 또 음식도 한 자리에서 나눠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부둥켜 안고 한을 풀어줄 수 있고.

김동건: 우리나라 사람하고 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금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지 너무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옛날에 미신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미신이 아니냐 힘주고. 안으로는 속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에 만납시다 - 김금화 편', KBS, 1985)

4. 김인회

김인회: 교육이란 것이, 결국 사람 잘 길러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훌륭한 인간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 만들자는 게 교육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도,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냐. 사기꾼들도 많고, 도둑놈들도 많고.

On the other hand,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ho are good and great among Koreans who have no education whatsoever? Of course there are plenty of bad people among the uneducated, but think about all the “Mother of Korea” award recipients. Please explain that to me from the perspective of an education specialist. What education did these mothers receive? None. You can’t explain that to me, can you? So there is this sphere of Korean culture that is at the polar opposite end of school education. That is the sphere of Korean shamanism. That is my argument.

So, without studying Korean shamanism, there is only so much one can understand about Korean people. It is the same as trying to understand Western culture and history, the mentality of Westerners, without studying Christianity. But why is it that [Koreans] don’t study Korean shamanism? I can say, as a person who tried, that it is because it’s hard work to study shamanism. Oh, they say shamanism is all superstition, backward and unscientific, and that it is embarrassing [to accept it as part of Korean culture]. But that’s just all an excuse. The real reason is that it takes hard work [to study shamanism]. All they are interested in is armchair scholarship. They sit tight by their desks where they don’t have to do much work. And then they tell you they are the experts on education in Korea. So I tell them, “You are all half-crooks.” So they don’t like me, and I’m in the outs with them. I lived like that—an outsider—all my life. And today, I might as well still be an outsider. That is also the reason why I still study shamanism. (Excerpt from an interview with Kim In Whoe, 2012)

Kim In Whoe is an education scholar who has advocated new pedagogy based on the culture of shamanism. In the 1980s he worked with Kim Su-nam, a photographer, and Hwang Rusi, a folklorist, to study and record on video numerous gut performances.

For shamans in Korea, the 1970s was a dark period. With the launch of the Saemaul (New Village) Movement⁸⁾, the seonangdang shrines were burned, and shamans and families were prohibited from holding gut.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Kim Keum-hwa began writing a memoir and keeping a diary. The writings from this period became the basis for her book, *Bidanggot Neomse: Nara Mansin Kim Keum-hwa Jaseojeon* (Silk Flower Neomse: An autobiography of National Master Shaman Kim Keum-hwa), Saenggak-ui Namu, 2007.

Question: Why do you think shamans were so persecuted?

Kim: [In the old days] they were not so shunned. In the north [where I come from], they lauded you if you treated your ancestors well. Also *mansin*, or the master shamans, were treated with great respect there. Then I came here, the south. And especially with the Saemaul Movement, they started an ‘anti-superstitions’ campaign, and they tried so hard to stop people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 만들자는 교육 전혀 못 받고 자란 한국 사람들, 그들 속에서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인간들이 많냐. 그들 중에도 물론 나쁜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가 뭐 한국의 어머니 어찌고 하는, 그 훌륭한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 설명해 봐라. 교육학적으로, 그들은 무슨 교육 받았나. 설명 못하잖나? 그러면 학교 교육이라는 문화영역과 극단의 반대되는 한국문화의 영역이 어디냐. 그게 무속이라고 본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입지입니다.

그래 무속을 연구 안하고서는 한국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를 모르고서는 서양 문화와 역사, 서양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 내가 해봤더니, 이게 힘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속이 미신이 되고 후진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창피해서 안한다, (그런 것은) 다 핑계고, 힘드니까 안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힘이 안드는 데스크워킹만 해가지고 한국의 교육이 어땠고 떠드는 거, 너희 반쯤은 사기꾼이다. 그래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 왕따로 살다가, 지금도 뭐 왕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속 연구하는 동기가 그렇고. (김인회 인터뷰 녹취, 2012)

김인회는 교육학자로 무속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론을 펼쳐왔다. 1980년대에 사진가 김수남, 민속학자 황루시와 함께 gut 현장을 누비며 비디오로 이를 기록했다.

무속인에게 1970년대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의 서낭당이 불타고 굿은 금지된다. 이 때부터 김금화는 회고록과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이 때 쓴 원고는 이후 『비단꽃 넘세 - 나라만신 김금화 자서전』(생각의 나무, 2007)으로 출간되었다.

질문: 근데 왜 그렇게 무당을 천시했을까요?

김금화: 그때는 그렇게 천시하지 않았죠. 이북에는 조상할아버지 그렇게 위하면 효한다 그러지요. 만신들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특히 남쪽에서 그렇게 하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미신타파 하면서 그렇게들 굿 못하게 하고, 교인이 하나 둘 늘면서 굿하면 신고하고 그랬죠.

8) Saemaul Movement was a government initiative launched in 1970 as part of an effort to modernize Korea. It was vigorously implemented for about ten years, until the death of President Park Chung Hee.

from having gut. Then the Christian population started to grow. They would report you to the police if you had a gut.

Question: So the persecution was worse during the Saemaul Movement th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time, right?

Kim: Right, worse th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time. During the Saemaul Movement, they reported you if you had a gut, so you couldn't hold a gut at home. During the colonial time, I performed gut on the run, in hiding. (Excerpt from an interview with Kim Keum-hwa, 2012)

5. A Christian Hymn and a Shaman Song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9)

1.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Refrain:

*O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2. *For my pardon this I se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cleansing this my plea: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Refrain)*

3.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aught of good that I have d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Refrain)*

4.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Refrain)*

질문: 일정 때보다 더 심했던 거죠, 새마을 운동이?

김금화: 그렇죠. 일정 때보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굿하면 신고하고, 그래서 집에서 굿을 못했잖아요. 일정 때는 도망다니면서 했지만. (김금화 인터뷰 녹취록, 2012)

5. 찬송가와 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니 정결한 샘이 나를 치유하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가 내게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해
주의 자비와 은혜 내게 자유주셨네
한 없는 사랑 사라지지 않으리
나의 행하는 것이 주 뜻되게 하소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도다 예-수

DIALOGUE WITH KIM KEUM HWA

9) <http://www.hymnsite.com/lyrics/umh362.sht> [March 10, 2013]

[About the song] Time: 3:00 minutes ~ 3:05 minutes

Opening bars: It is obvious how strongly the composer (James M. Stevens) felt the grace of God when he composed this song. The prelude is about fifteen seconds long, which by no means is very long. However, it conveys a sentiment that very much appeals to Korean sensibilities. It is difficult to explain music in words, bu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ything about this song is contained in these fifteen seconds of the introduction. [...]

13th bar: With a two-beat rhythm, the composer introduces a variation in the progression of the composition, adding a sense of urgency and creating anticipation for a change in the song.

14th bar: The phras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is emphasized in the main melody of this song, with four 1/16th notes. “The blood of Jesus” is emphasized, and it is emphasized again in the main melody. It is again emphasized in the 16th and the 17th bars.

18th bar: A crescendo starts here to reach the mid-point of the song. It reaches a forte in the 22nd bar. “What can wash away my sin.”

22nd bar: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is most important here is not “but the blood of Jesus” but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It should be noted that with the emphasis added here the rhythm changes. [...] (From <http://cafe.naver.com/gloria2080/377>)

A shaman’s lineage (*naeryeok*) is determined by her (or his) dance and songs, as well as her ritual proceedings and style. In the world of shamans, it is simply called *munseo* or ‘document.’ Kim Keum-hwa became a practicing shaman through the tutelage of her maternal grandmother, the Master Shaman Kim Cheon-il, and Master Shaman Bang Su-deok. She took notes on their teachings, little by little, for twenty years. Then in 1995 she published *Kim Keum-hwa ui mugajip* (The book of Kim Keum-hwa’s shaman songs). It is extremely rare for a shaman to publicize her own ‘document.’

10) Mansebaji refers to a particular style of shaman chant as well as its rhythm. In mansebaji, the shaman invites the spirits.

[곡해설] 총 곡 연주시간: 3분 ~ 3분 5초 내외

곡의 도입부분: 작곡자(James M. Stevens)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 곡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다. 전주부분이 약 15초 정도로 길지 않지만 한국인의 정서에 매우 흡사하다. 곡을 말로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아마도 도입부분 전주에 이 곡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13마디: 곡이 발전되는 모습을 2박자 형식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주고 있으며,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4마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 작곡가는 이 곡의 대표리듬에, 16분 음표를 말하듯이 4번 강조. ‘예수의 피’에 강조를 한 뒤, 대표리듬으로 다시 강조하였다. 이에 다시 16마디와 17마디에 강조한다.

18마디: 이제 곡의 중간부분을 가기 위해 크레센도 된다. 그리고 포르테로 22마디 표현하였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22마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가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다. 더 강조하면서 리듬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략) (<http://cafe.naver.com/gloria2080/377>에서 인용)

춤과 무가, 굿의 절차와 의례를 통해 무당의 내력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무속에서는 흔히 ‘문서’라고 한다. 김금화는 외할머니 김천일 만신과 방수덕 만신으로부터 황해도 굿을 전수받았다. 김금화는 굿을 하면서 이십 여년 동안 조금씩 메모해둔 것을 모아 1995년 『김금화 무가집』을 발간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문서’를 공개하는 무가집을 내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Mansebaji 10) from the Madang-gut Scene of Cheolmuri-gut 11)

You who fell flop to water and became female dragon-gods,
male dragon-gods, and homeless ghosts;
You who were killed by bayonet in war times and troubled times,
and you who died on the road;
You who died an unnatural death, died of hunger, and died by suicide;
You who died of cold, of heat, of dysentery,
of stomach sore, of eye sore, and of hemorrhoids;
Cry your eyes out, a sigh is your rest; all you female and male demons come out.
Let no one be missing, and no one be left behind.

Jajeun Mansebaji 12) from the Madang-gut Scene of Cheolmuri-gut

In this auspicious month of October of the Year of the Horse/ on the tenth day we began
our ceremony/ and on the eleventh day the spirits came/ and on the twelfth day the spirits
must go./ Today I shall send off the spirits of mountains and streams/ also send off the
Generals/ send off the seonang/ send off the ancestors/ and tell ilgudeungsin/ to be at
ease and to take a seat./ And let us all play/ rub-a-dub a sound./ Nameless spirits/ female
demons, male demons, floating ghosts, floating spirits/ the homeless ghosts who drowned
in Yeongsan water have become dragon-god ghosts./ Adult demons, child demons, all
the loose demons/ namcheong dies to receive a 9-dish meal/ yeocheong dies to receive a
12-dish meal;/ one dies by hanging to become a Royal envoy of Gyeryeong./ Childbirth
ghosts, the gods, and Buddhas/ namcheong and yeocheong/ budding youths, moving
butterflies/ a young man born out of wedlock, a maiden yeocheong/ bare-skin ghosts and
flat-footed ghosts/ those who died during wartimes and troubled times/ those killed by
bayonet/ those who died by violence/ male and female anonymous ghosts/ Away~

[Kim Keum-hwa, *Kim Keum-hwa ui mugajip: Geomeunattae mansin Hina baekseong ui norae* (The book
of Kim Keum-hwa's shaman songs: The songs of the master shaman Geomeunattae and Hina People),
Muneumsa, 1995.]

**Kim: There were myself and my nephew. I think there was also another person, a man. We
were on Mt. Samgak. 13) There was a boulder there, a tall boulder. There was what's called
darani. Also a Buddhist temple called Ilsin-sa. We set things up at a place where there was
water; we had a siru ready to cook rice and to make the altar. In the meantime, a ruckus broke**

11) Of all the different types of gut, Cheolmuri-gut i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ones involving elaborate preparation and a big budget.

12) To the best of this translator's knowledge, jajeun mansebaji is part of
the closing ceremony where the shaman is sending off the spirits.

13) Mt. Samgak, or Samgaksan, is part of the larger Bukhansan National
Park that cradles the north of the city of Seoul.

만세반이(철물이곳 중 마당굿)

물에 후여 덩빙 빠져 여용신 남용신 객사귀
전시 난시 총칼에 간 혼신 찾길에 간 혼신
비명에 간 혼신 배앓아 간 혼신 자살귀
냉바지 북바지 이질 곱질 안질 치질 질환에 간 혼신
우느니 눈물 쉬느니 한숨 여수비 남수비 내놀아나서
빠진 이 없고 처진 이 없이 골고루 받아나요.

жатмансе반й(철물이곳 중 마당굿)

갑오년 시월 상달 / 낮에 공수는 초열홀 / 묵은 신사는 열하루 / 나는 신사는 열이틀
오늘은 나는 영천에 / 뜯신들 받아갈 제 / 산천신령 전송하고 / 장군님도 전송하고
/ 서낭들 전송하고 / 조상님들 전송하고 / 일구등신은 안심좌정 / 하라고 하며 /
내놀아나요 / 둥둥아 소리 / 이름모를 혼신들 / 여수비 남수비 뜯귀 뜯신 / 객귀 영산
물에 빠져 용신귀 / 어른수비 아이수비 허튼 귀신들 / 남청 죽어 아홉 반상 / 여청죽어
열두 반상 / 목을 매어 계령척사 / 해산귀 신불천왕 / 남청들 여청들 / 애동초목 이등나비
/ 서자도령 남자여청 / 생살귀 평발귀 / 전시 난시에 간 이 / 총칼에 간 이 / 폭력에 간 이 /
남녀 무명귀들 / 쉬이~

(김금화, 『김금화 무가집 - 거르나타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 문음사, 1995)

김금화: 그때가 우리 조카 남자하고 나하고, 하나는 또 누가 갔던 거 같은데 남자가. 거기서 삼각산
꼭대기 바위가 있어요 높은 바위. 다리나라고 있어. 일신사라고 절이 있고. 물 나오는 데 거기서 밥
짓고 차려놓고 하려고 시루 다 쪼갠데, 저쪽에서 난리가 나다시피 했어 아래서. 거기서 싸움이
났더라고. 말하자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 못하게 막 교인들이 방해놓고 그러니 싸움이 나서 우리는
빌고 뭐하고 있는데 우리 있는 데로 한 열댓 명이 오더니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더니, 저 자
불쌍하니 구해달라고, 하나님, 저 자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어디서 구해달라나..., 그래서 내가
비는데 뽕 둘러서서 내 등허리에 자꾸 열십 자를 써.

산에다 절하는 사람, 물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돼지 머리에 절하는 사람 불쌍하니가
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그러면 들을 것도 없어, 그러면 막 손 들고 노래하고,
미쳤더구먼 뭐 완전히. 그럴 동안 난 빌고 뭐하고. 그러면 또 지랄들 하는 거야. 점점 다가와서

out some distance down from us.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Christians who were trying to stop some other people [like us] from praying, and a fight broke out. We were in the middle of praying, and about a dozen or so people came over. As soon as they came, they just shouted, “Our Lord, Hallelujah!” Then they shouted, “Oh Lord save them! Please save them!” I forgot what we were supposed to be saved from. I kept praying, and they kept drawing a cross behind my back.

They said we were pitiful because we bow to mountain, bow to water, bow to stone, and bow to pig’s head. So we needed to be saved. So I told them, “Look, if that is what you think, there is no need for us to listen to you.” They then raised their arms and started singing. It seemed that they were crazy, completely crazy. I went back to my praying and what not, and they would start acting up again. They circled in closer and trampled the incense on the altar. I just balanced the pig’s head, and they stood still for a change and just watched (laugh). They were such a nuisance; I finished what I had to do in a hurry, packed up everything, and came down from there.

I said, “Look, this is not what your god, the hallelujah, wants. This is not what he wants from you. He did not tell you to do this. Why are you doing this?” Then they would say something, and sing some more. They were hopeless. So from then on, I don’t go that way. I go to Baegundae. 14) They can’t go there, because there is a Buddhist temple. (Excerpt from an interview with Kim Keum-hwa, 2012)

6. Hwang Sok-yong

Question: In your novels *Sonnim* (2001, *The Guest*) and *Baridegi* (2007, *Princess Bari*), the stories are structured in the format of a Hwanghae Province gut. I find it very interesting.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you did that?

Hwang: The novel *Sonnim* was published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ctually, it’s not just the Korean War. World War II, too. The UN has not declared the end of the war yet. There is still a state of war. We talk about national sovereignty and what no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llies, who won the War, the Korean case is simply a post-war process, except that the end has not been declared.

In any case, I visited the place called Sincheon when I was in North Korea. 15) It’s a small town, a gun, with a population of about 60,000. There, [during the Korean War] about 30,000 people were killed within a period of about a mon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aid the US military did the killings, and [at the time of my visit] they were building an

14) Baegundae, or Baegun Peak, is the highest peak in the Bukhansan National Park.

15) Hwang Sok-yong visited North Korea in 1989 and was subsequently sentenced to a seven-year prison term in 1993. He was given a special Presidential amnesty in 1998 and was released from prison after having been incarcerated for five years.

향불을 짓밟고. 그냥 돼지 머리 세우니까 가만히 서서 보대 또 하하. 하도 그렇게 지랄하니까 대충대충 하고 담아서 내려왔죠.

여보시오,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분은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왜 이러냐고, 그러면 몇 절 그러고 노래하고, 아주 못 쓰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때부터 그 쪽 산으로 안 가. 백운대로 가지. 그 쪽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절이 있으니까. (김금화 인터뷰 녹취록, 2012)

6. 황석영

질문: 선생님 그 『손님』이라는 소설과 『바리데기』에서, 황해도 굿거리에 맞춰서 소설을 구성을 하셨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황석영: 『손님』이라는 작품이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던 해에 발표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2차대전 이후로 UN종전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통일국가 어찌고 얘기 하지만 전승한 연합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후 처리 문제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종전처리가 안 된 셈이죠.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북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신천이라는 데에, 한 6만정도의 인구가 있는 작은 군인데 한 3만여명이 서로 죽었어요. 한 한 달 동안의 기간에 3만명을 죽였는데 그 가지고 북한 정부가 거기다가 미군이 그렇게 죽였다 그래가지고 미군 학살 기념관을 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 여러 가지 목격담, 이런 걸 조사해보니까 그게 우리끼리 그랬더라고요. 그건 아마 북이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토지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상층부 중간층들 이런 사람하고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뭐 종교적인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데다가 서로 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는 사이에 그 갈등이 이제 더 커지니까, 이를 단 시간 내에 죽인 건데 그거를 그냥 그걸 사실적으로 다큐멘터리적으로 그리기엔 너무 메마르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화해, 상생을 시키는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굿의 양식이 굉장히 거기에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가가 무당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시간을 거슬러가서 죽은 자를 불러내고, 그 당시에 겪었던 사람도 불러오고, 그 죽어간 귀신들을 다 불러서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고, 서로간의 쌓여있는 응어리가 무엇인지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걸 푸는 그래서 화해, 상생의 그런 과정으로 가는 이런 황해도 진지노귀굿의 양식이

anti-US memorial museum of the massacre. But I had a chance to look into the matter – war-time records and eye-witness accounts – and I found out that the killings were done by Koreans; we killed each other. My guess is that a number of pre-war social and religious conflicts contributed to this massive killing. North Korea carried out a national land reform after Independence. This probably led to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well-to-do in society and the communist party; at the same time there were also conflicts between Christian elements and the communist authorities. The mixture of these conflicts ballooned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s the battle lines between the UN and the communist North Korean forces shifted back and forth. The massive killing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resulted from this very specific historical background. But it would have been too dry to describe the unfolding of these historical events in a documentary fashion. Furthermore, there had to be a way to somehow suggest, to show, the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even after these events. I found that the formal elements built into the story-telling structure of a gut made it an excellent format to achieve this goal.

It allows, for example, the writer to go back in time, and the writer then becomes the shaman. In other words, the writer goes back in time and calls the dead to come back to life; he also invokes the presence of the witnesses to these events, and invokes the presence of all the other people who died and asks them what happened. The shaman asks them what grudges they had against each other. That is how you allow them to rest in peace. That is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of creating a way of co-existence. And I felt that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Hwanghae-do Jinjinogwi-gut 16) was an excellent format to borrow for the fiction-writing purpose. I suppose I can say *Sonnim* is a gut in the form of a novel.

Question: So it is a novel and a gut at the same time?

Hwang: Correct.

Hwang Sok-yong was born in Hsinking (today Changchun), Manchukuo in 1943. He has written novels based on gut and shaman ritual stories, such as *Sonnim* (The Guest, Changbi, 2001), and *Baridegi* (Princess Bari, Changbi, 2007). In particular, the narrative structure in *Sonnim* takes the form of a Hwanghae Province gut, the jinjinogwi-gut, conveying a message of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16) "The ritual for the dead is very important in shamanism, because the destination of the soul is the other world where souls of ancestors dwell. In order for the soul of the dead to enter such a sacred place, his or her soul has to be cleaned and purified. Sikkim-gut is thus conducted to remove any regret or resentment of the dead." (<http://www.hcrg.org/iii/printview.asp?num=88>, March 11, 2013.) Jinjinogwi-gut, is a type of jinjinogwi-gut, a gut for the dead.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it is called Sikkim-gut.

굉장히 소설을 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라는 작품은 황해도 진지노귀굿이라는 형식을 빌린 소설 굿이 되겠죠

질문: 소설이자 동시에 굿으로?

황석영: 그렇습니다.

황석영은 1943년 만주 장춘 생으로, 『손님』(창작과 비평사, 2001), 『바리데기』(창작과 비평사, 2007) 등 굿과 무속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다. 특히 『손님』은 황해도 진지노귀굿의 형식을 빌어 남북한의 화해 메시지를 전한다.

김금화는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의 출판기념회에서 장길산 초혼굿을 해주었으며, 1998년에는 임진각에서 황석영을 제주로 통일기원 굿-공연인, 〈통일이여 오라!〉를 함께 했다.

질문: 황석영선생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알게 되셨고, 그분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김금화: 황석영선생님은 씩씩하시고 마음이 화통하시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편이고 82년도인가 『장산꽃매』라고 출판하시면서 알게되었죠. 저보고 공연을 해달라 해서.

질문: 그때 임진각에서 통일굿하실 때 ?

김금화: 그 전이죠.

질문: 김일성 말을 하셨다고, 얘기 잠깐 들었는데요.

김금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질문: 선생님은 기억 안나세요?

On the occasion of celebrating the publication (1984) of the book *Jang Gil San*, Kim Keum-hwa performed a memorial gut. In 1998, Hwang and Kim again collaborated in planning and performing a gut-performance entitled *Tongil iyeo ora!* [Come, reunification (of Korea)] at Imjingak. 17)

Question: How did you come to know Mr. Hwang, and can you also tell us, what do you think about him, and his personality?

Kim: **Mr. Hwang is always energetic and straight forward, and he likes people whether you are a man or woman. I think it was in 1982, he asked me for a performance, for the publication of the book *Jangsangotmae*. That is how I came to know him.**

Question: You mean when you did the reunification gut at Imjingak?

Kim: **No, it was before that.**

Question: I heard briefly that you spoke in the voice of Kim Il-sung.

Kim: **You ask him.**

Question: Do you not remember yourself?

Kim: **I do remember, but he tells the story better [...] In the middle of the performance, on the stage, I received *sanmaji* spirit, Grandfather Dangun, the Mountain God, and I began running. I crossed a stream and climbed a hill. Mr. Hwang was the officiant of the ceremony; he read the prayer and had other duties to perform on stage. He tried to stop me. We ran up the hill, arms locked. When I ran into the barbed wire fence facing the North, I demanded “Open the door!” I demanded that the bolt be removed; the door be opened; the barbed wire fence be cut off; the roadblock across the 38th parallel be removed so that we North Koreans living in the South can go home and pay respect to our ancestors buried there. People died of having too many grudges and sorrows. I had to soothe their grudges and sorrows, I demanded again for the locks to be unbolted. Just then the spirit of Kim Il-sung came into me. Now, I’m a shaman. A shaman is someone who receives spirits and conveys their messages to humans. If the spirit happens to be that of Kim Il-sung, I can’t tell him to go away because he comes from North Korea and I don’t like their system or ideology there, right? I was holding onto Mr. Hwang, speaking completely in the Pyeongan Province dialect. Mr. Hwang later told me that he was really taken aback. *Didn’t I tell you? You understand me, don’t you? I was going to do this and that but they didn’t work out, and my son.....* It seems that I told him [Mr. Hwang] a few things [about what Hwang Sok-yong and Kim Il-sung talked about when they met each other.]**

김금화: 나도 나긴하는데 들은 분이 얘기를 잘하셔서 더... (중략) 뭐 굿하다 말고 무대에서 산맞이 단군할아버지 산신님 맞이하는데 막 신을 내리더니 무작정 뛰어가는 거예요. 개천을 건너가서 언덕을 허기적 거리며 올라가니까 황선생님이 축문 읽고 축도 닦고 그러셨어요. 제관 노릇하셨다고. 날 막 붙들고 언덕에 올라가니까 팔을 끼우고 올라가니까 가시 철망 붙들고 ‘문 열어!’ 빗장을 빼라고 문 열라고 가시철망 끊어버리고 그 삼팔남북 막혀있는 것을 문 열어서 우리 간절한 실향민들이 가서 산소 성묘도 하고 원도 많고 한도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 원한이라도 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김일성 영혼이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오면 난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귀신의 말을 전해주는 만신인데, 당신은 이북의 뭐가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이니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냐? 황석영 선생을 붙들고 완전 평안도 말을 하면서, 아마 그때 그 양반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지 않냐고, 그리고 내 맘 알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아들이 어떻고, 그냥 썩 뭐 한마디 했나 봐요.

7. 황루시

질문: 한국 무당의 대부분이 여성이 많은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황루시: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도, 왕가의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여자였거든요? 공주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여성 사제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속 문화가 여성문화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진 잘 모르겠어요. 여성 사제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주도도 유일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남자는 소나이 심방, 여자는 예쁜 심방, 양쪽에 다 있고. 숫자로 봐서는 그래도 여자가 많기는 하지만, 또 큰 심방은 남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무속 문화가 서민문화의 그 주된 흐름을 잇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찍이 지배 계층의 문화에서 유리되가지고 서민문화로 일관해왔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오랫동안 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또 반영하고. 그래서 항상 약자의 편, 서민의 입장, 이런 것에서도 역시 사제도 여성사제. 이런 게 더 강해진 것.

질문: 지금 큰 무당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김금화 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라만신으로 불리우고, 두 분이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셨으니까, 김금화 만신이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 Imjingak is a park located on the banks of the Imjin River not too far from the North-South Korea border. Former North Koreans who were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 after the Korean War gather here on important holidays to carry out various ceremonial events.

7. Rusi Hwang

Question: Why is it the case that in Korea most of the shamans are women?

Rusi Hwang: Eve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57 B.C. – 668 A.D.) the priests in charge of officiating at royal ancestor worship ceremonies were women. So it seems the tradition goes quite deep. I am not sure when women priests appear [historically], but what is certain is that shamanism in Korea is very deeply steeped in women's culture. I am not sure why that is. There is an exception on Jeju Island. There you have *sonai simbang* (male shamans) and *yepen simbang* (female shamans). So we have both male and female shamans. Numerically, women still outnumber men. However, in the case of *keun simbang* (master shaman), men outnumber women. So there it's different.

The practice of shamanism is rooted in the culture of the common people. So, from very early on shaman culture was separated from the culture of the elite. Also, shaman culture in Korea reflects the long-rooted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ountry. So it tends to speak on behalf of the weak and the disadvantaged. It makes sense then that women's presence became dominant in shamanism.

Question: There are many Master Shamans, but Kim Keum-hwa is perhap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and she is also called a nara mansin, or "National Master Shaman." You have known her closely for a long time.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for this?

Rusi Hwang: Well.... first of all, starting with her lineage, her maternal grandmother was a master shaman (mansin). Her mother, because she was the daughter of a shaman, was married to a man who was already married but did not have a son by his first wife. However, when Kim Keum-hwa was born, she was the second daughter to her parents who were waiting for a son. That is why they initially named her Neomse, a boy's name. They wanted to insure that the next baby was a boy. According to Kim Keum-hwa, she had to carry her baby brother on her back all day. She was a young girl then. So, there was a lot that she experienced because she was from a shaman family and because she was a woman.

Then she was married off at the age of fourteen, and she was treated badly by her mother-in-law. The young couple slept in the same room as the in-laws, with only a curtain of a sort as a partition. It is quite unimaginable, and she herself would say that her life then was lowlier than that of the animals the family was raising. That is how hard her life was, and finally she ran away from there because she was too hungry and too miserable. And then afterwards, she became possessed. Her story is very typical of how a woman became a shaman: a certain family background, extreme poverty, discrimination, etc.

황루시: 아..., 김금화 선생님은요, 우선은, 가계부터 이야길 하면은, 외할머니가 만신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당의 딸이기 때문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이 없는 집에 혼처를 간 건데, 또 딸을 낳았죠. 둘째 딸이죠. 그래서 인제 이름도 넘세로 지었잖아요, 남자애 이름으로. 아들 보라고. 근데 이 김금화 선생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등에서 남동생이 한 번도 안떠난 거예요. 맨날 애를 업고, 어릴 때부터. 무당 집안이고, 또 여자기 때문에 겪는,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거죠.

그리고는 열 네 살에 시집갔잖아요? 열 네 살에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그 때 얘길 들어보면, 시부모님 자는 방에 칸막이 하나 치고, 그리고 사는 거니까.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본인 말 마따나,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인제 신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 되는 전형적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집안의 분위기와, 극심한 가난, 차별, 뭐 이런 거를 다 겪어서.

제가 좀 슬펐던 것 중의 하나는, 가을에 낮이 있으면, 그 낮이라는 것은 풀을 베고 이려는 건데, 그걸 보면 타고 싶었다. 작두 타는 것처럼 타고 싶었다니까, 굉장히 외롭고, 다른 삶을 산 거죠. 그러다가 인제 신들려서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전통적인 무당이 하는 걸 다 했어요. 쇠걸립, 쌀걸립, 이런 것들... 이 걸립을 했다는 거는, 여러 집을 다니면서 몇 달 다니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마을에서 만신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무당이 된다, 하나라도 더 도와서 이 사람 무당을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혼자 무당이 되는게 아니라, 마을, 이웃의 도움으로 무당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한 거죠. (중략) 목숨을 걸고 피난을 나와서, 많은 실향민들이 있는 인천에서 살면서 실향민들 위해서 굿을 하고, 또 뭐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도 없고, 한 여인의 삶에서 굉장히 기구한 삶. 그리고 또 남동생이 죽으니까, 남동생의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대부분 무당들이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뜯기는 존재예요. 무당은 다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니까, 뜯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팔자거니 하고 다 그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식구들을 다 책임을 지고, 어머니 모시면서, 그러한 과정이 다 전형적인 무당의 길이에요.

질문: 김금화 만신이 다른 무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황루시: 무당이 천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뭘 해보자, 라는 의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속예술 경연대회 그 당시 때(1974년) 나가서, 장군놀이로 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김금화 만신하고 다른 황해도나 함경도, 다른 평안도나 함경도의 만신하고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made me sad was that she said, when she saw a sickle in fall, she wanted to “ride” it, that is, to walk on the blade. A sickle is a tool for cutting grass and straw, but she said she wanted to ride it as if riding on *jakdu*, a chopper for cutting straw and other fodder for cow. So she was a lonely soul; she lived a very different life. She then became possessed and became a shaman, and she went through all the steps that a very traditional shaman might go through. The various steps included *soegeollip* (‘soe 18) begging’) and *ssalgeollip* (‘rice begging’). It takes months to do the “begging,” and the novice shaman must visit many houses.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process, a shaman is recognized by the village. This is how a shaman becomes a Master Shaman. The village has to be willing to support her. That is to say, a shaman does not become a shaman by herself. She grows as a shaman with the help and support of the entire village, the neighbors. She went through all of this.

[...]

She risks her life to come to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settles in Incheon where many of the North Korean ‘expatriates’ live. She makes a living by performing gut and she gets married again but eventually the marriage fails. She has no child. Her life as a woman is an ill-fated one. Also, her brother dies, so she took on her brother’s children. She is the breadwinner of the household; most shamans are the breadwinners of their family. Many people,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live off of a shaman, because they think shamans make easy money. And many shamans accept the situation as their fate. So in the case of Kim Keum-hwa, she supported everyone in her large family, including her mother. And this is all very typical of a shaman’s way of life.

Question: What would you say is different about Master Shaman Kim from other shamans?

Rusi Hwang: She had been persecuted as a shaman. But at some point in her life she recognizes herself as a member of society and to become somebody. So she participates in the National Folk Arts Competition (1974) and wins a prize with her performance of *Jangun nori* (Playing a General). I think that is the big difference between her and other shamans from Hwanghae, Hamgyeong, Pyeongan provinces.

She came from the North. Today, the Pyeongan Province-style gut has almost died out; Hamgyeong Province gut has long ago disappeared. Only the Hwanghae Province gut has survived. Of course, there were many people from Hwanghae Province who settled in Incheon. So one could say that was a contributing factor. But, Hamgyeong-do gut could have survived, too, in South Korea. There is a huge community of Hamgyeong Province ‘expatriates’ living in Sokcho. But the practice did not survive. I believe Master Shaman Kim Keum-hwa played a major role in the survival of the Hwanghae Province gut to this day.

이북에서 월남해서 무당이 됐는데. 실제로 평안도 굿은 거의 지금 소멸된 거고, 함경도 굿은 벌써 사라졌고, 살아남은 건 황해도 굿만 있거든요. 물론 황해도 굿 살아남은 것은 인천에 실향민들이 단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긴 해요. 그렇지만 함경도 굿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속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된 데에는 저는 김금화라는 굉장히 뛰어난 만신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신은 사실은 김금화 선생이라고 해요. 사실 무당이 눈치가 빨라야 무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한테 뭘 줘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자료를 주고, 굿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굿을 해주고. 이를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회에서 김금화 선생 굿을 한다 그러면, 종교 의례인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문화다라는 인식까지 심어준 것이 김금화 선생이죠.

질문: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속을 음지의 문화에서 양지의 문화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황루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네.

황루시는 민속학자로, 1976년부터 굿의 현장을 누비며 이를 기록해왔다. 저서로는, 무속과 큰무당의 내력에 대해 알기 쉽게 쓴 『황루시의 우리 무당이야기』(풀빛, 2000) 등이 있다.

김금화는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다. 이후 김금화는 매스컴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해외 공연 등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금화: 나라만신은 그냥 이름이 크다고 나라만신이 아니야. 부자들에게 녹을, 곡식을 훔쳐다가 없는 사람 골고루 노나주는게, 그게 나라무당이야! (1994년 만수대탁굿 중에 발언, 서해안 풍어제 보존회 제공자료 녹취)

18) ‘Soe’ in ‘soegeollip’ has at least two different etymological interpretations. It is most often interpreted literally as ‘metal (soe).’ However, according to JO Hyeon, a reporter, it is a variation of ‘se’ a vernacular for ‘tongue.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562346.html>

So, academics like Kim Keum-hwa. You know, a shaman has to have a quick wit to practice her art. She has to be quick to figure out who needs what. For those who need research materials, she provides them with plenty of data; for those who need gut, she performs gut. She is good at it. So now, when she performs a gut, it is recognized both as a religious ritual and at the same time a very important performance of traditional culture. It is Kim Keum-hwa who made that recognition possible.

Question: In other words, would you say that she played the role of bringing out shamanism from darkness to light?

Rusi Hwang: She played a major role. Yes, ind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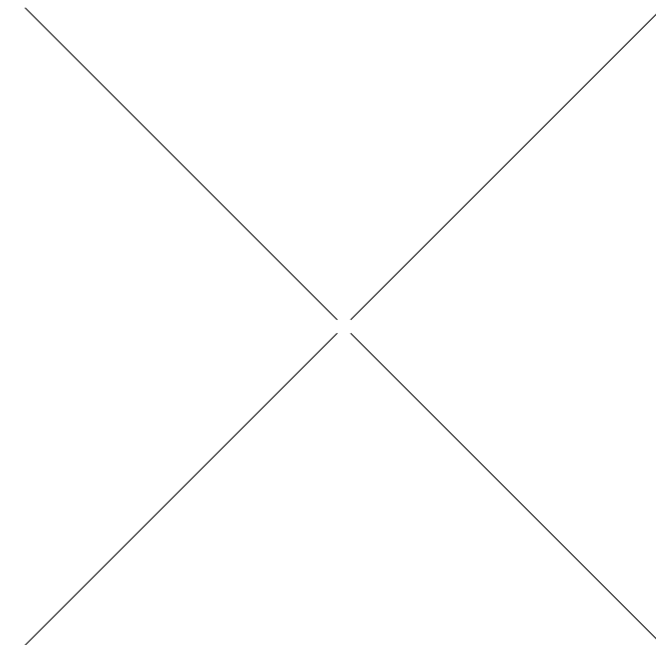
As an ethnographer Rusi Hwang carried out extensive field research starting from 1976, recording countless number of gut performances. She is the author of *Hwang Rusi ui wuri mudang iyagi* (Rusi Hwang tells stories about our shamans), Pulbit, 2000. It is a book of master shamans and their lineages.

In 1985, Kim Keum-hwa was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82 by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Since then she has been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rough mass media coverage and has been active at home and abroad.

Kim: The honorary title, nara mansin, or National Master Shaman, is just a title. It does not mean anything unless you take the money and grain from the rich and share them with the poor. That is what National Master Shaman is!

[Excerpt from the transcript of the 1994 performance of Mansudaetak-gut.

Transcript provided by Seohaean Pungeoje Bojonhoe (West Coast Pungeoje Preservation Society).]



La Fille

Natacha Nisic

•

Je n'avais jamais entendu parler d'Andrea Kalff avant que

Park Chan-kyong ne me parle de la fille spirituelle de Kim Keum-hwa.

Andrea est née en Bavière, à Prien am Chiemsee, une ville située

à 50km de Sainte Othilde, l'Abbaye que dirigea Norbert Weber un siècle plus tôt.

딸

나타샤 니직

•

나는 박찬경이 무당 김금화의 신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전까지

안드레아 칼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안드레아는 노르베르트 베버가 100여년 전에 이끌던 성 오티리엔 수도원에서

50km 떨어진 독일 바이에른주의 킴제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The Daughter

Natacha Nisic

I had never heard of Andrea Kalff before Park Chan-kyong told me about the spiritual daughter of Kim Keum-hwa.

Andrea was born in Bavaria, at Chiemsee, a village located some 50km from St. Ottilien, the abbey directed by Norbert Weber a century before.



THE DAUGHTER
NATACHA NISIC

ANDREA CHOIX





ANDREA |





ANDREA II





ANDREA III





ANDREA IV



ANDREA
LES VOIX





ANDREA
LES VOIX



안드레아

인터뷰: 2012년 4월

독일, 바이에른주, 피쉬바하우

참가자: 나타샤 니직, 장 이브 푸일라

I

나에게는 검은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죠.

2006년에 친구가 무당을 보러 몬트 호수에 가자고 했어요.

나는 관심 없다고, 가기 싫다고 했죠. 그런데 친구가 몇 번이고 권하더군요.

꼭 한 번 가보라고요.

좋아, 갈게. 하지만 난 어떤 워크샵에도 참가하지 않을 거고 샤면들하고 만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카톨릭 교육을 받았어요.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6년을 다녔죠.

그렇게 우리는 출발했어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죠. 도착해서 주차를 했는데,

김씨 할머니와 그녀의 무당자매들이 색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지나갔어요.

전 “대체 저게 뭐지?” 했죠.

그 화려한 옷들이 나를 매료시켰어요.

나는 그녀가 마치 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0시 반쯤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한국 남자 하나가 어깨를 치면서 나하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주소랑 전화번호를 묻더군요. 난 결혼했고, 아이가 셋이라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런 거 아니라고, 김씨 할머니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때 그가 바로 그 말을 했죠.

우리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날 흔들리게 했어요.

내일 통역사를 불러서 나한테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내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난 말했죠. 난 한 시간 반 뒤면 떠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나요?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열시에 정말로 통역사가 전화를 했어요.

김씨 할머니가 저랑 만나서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린 한 번 더 몬트 호수로 갔어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 아파트에서 세 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그 때 그녀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했죠. 내가 “신병”을, 무당병을 갖고 있다고요. 그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무당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일요일에 내림굿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나한테 딱 하루 생각할 시간이 있는 셈이었죠…. 또 내가 내림굿을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했어요.

나한테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준거죠.

세 시간 뒤에 밖으로 나왔어요.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삶이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았어요. 남편과 나 우리 둘 모두에게요.

괴상한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김씨 할머니는 일요일에 내림굿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너무 불안했고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자란 집안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자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알고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다들 알게 될 거야… 절대 안 돼.

나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는 다음 날 다시 김씨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김씨 할머니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벌써 사태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내가 암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내 무당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무 급하다,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김씨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내 대답을 듣고 그녀는 내가 매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매일 아침 해뜨기 전에 제단에 치성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나에게도 그건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랐어요.

이 대화는 계속 날 따라다녔어요. 언제나 머리에서 맴돌았죠. 4주 뒤에 난 큰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 아이도 다니게 될 때가 있을 테니 어떤지 알려주려고요. 의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었죠. 나를 오랫동안 진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창백하게 질린 눈으로 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안드레아… 당신 암이에요.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32살에, 아이가 셋인데, 암에 걸리다니.

이틀을 울었어요. 이틀날 전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길은 두 개야. 실의에 빠져 지내거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나.

그리고 남편에게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혼자 있어야겠다고, 바다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물은 나의 원소거든요.

혼자 차를 몰고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해변으로 갔어요. 차에서 자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는 길이 있었죠. 비록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요. 또 다른 길은 현대의학이죠. 늘 나에게 압박감과 불안을 주는 의학이요. -무엇을 하지?

난 열흘 동안 명상을 했어요. 정말로 그냥 바다에만 다녔죠….

열흘 째 되는 날, 8월 5일에 생각했죠…. 좋아, 무당병 때문인지 빈털터리나 다름없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가겠어. 병원에 가서 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어쨌든 나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그래서 난 함부르크에 있는 통역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그녀가 알아서 모든 일을 진행시켰어요.

모든 계획을 잡았고, 예산도 결정해 주었고, 날짜도 잡아서 알려 줬어요. 그리고 굿을 할 때 생모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내림굿을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요.

몸에 이런 종양을 가지고 돌아 다녀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종양이 그대로 있을지 더 성장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김씨 할머니를 만난 건 겨우 세 시간이지만,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따뜻한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좋아, 그냥 믿어 보자, 그녀가 해결해 줄 거야.

(의자에서 나는 소음)

II

내림곳이 열리기로 예정된 날은 2006년 10월 16일이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죠... 그래서 다시 아냐, 난 못해, 나는 절대 그 돈을 못 모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내가 언제나 지니고 다니던 우리 집안의 장신구를 전당포에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내림곳을 받을 비용을 마련했어요.

의식은 10월 16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없이 남편과 나 둘이서 가야만 했죠. 10월 13일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드니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가 전혀 울지 않아서 우리는 안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한테 가 보니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의사는 자기들이 수술을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니 내가 한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김씨 할머니가 무척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이 사건도 신병 때문이라고 했죠. 아이에게 나쁜 영이 씌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내가 비행기를 타야한다고, 와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내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다고 했어요.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나는 한국에서 이미 삼일 전에 의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난 일 년 뒤에 제단과 그 모든 과일들을 직접 보고서야 내가 취소한 게 큰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내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먼저죠. 당연히 내가 다시 갈 수 있는지도 불확실했어요. 종양이 어떤 상태인지도 다시 걱정이 됐죠. 비행기 예약을 변경해야 되고, 그건 또 돈이고,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나는 생각했죠. 좋아, 모든 걸 견뎌야만 해. 우리는 삼라만상의 일부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냐. 드니스는 6주 동안 김스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11월 초에 다시 한국에 메일을 보냈어요.

12월 2일에 다시 와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이 내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내가 두 번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무당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라고요.

모든 일이 아주 잘 진행됐어요...

하지만 종양이 문제였죠. 10월 중순부터 12월 초반까지 종양이 계속 자랐어요...

정말로 불안하고 겁이 났죠.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커질 거였죠. 다시금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불안했어요... 가족 문제도 있었죠... 부모님은 내가 내림곳을 받으면 의절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감정적으로 정말 고통스런 일이었어요. 곳을 받은 이래로 나는 자매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내림곳은 내 옛 가족과의 이별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이 어떻게 되어 나갈지, 곳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한테는 예전에 영성이 아주 강한 오빠가 있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날 처음 만났을 때 오빠도 마찬가지로 무당병 때문에 죽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라고요. 오빠는 아주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14살이 되던 날에 손목을 그어 자살했어요. 오빠와 나는 19살 터울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부모님은 내가 오빠의 영향으로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될 까봐 모든 걸 금지했어요. 수녀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진 것도 오빠와 영적으로 어떤 교감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 때부터 모든 게 금지되었죠. 아무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III

첫 한국행.

나는 그 때 무척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 때 몸무게가 한 50킬로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 상태로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문화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릴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몰랐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고작 모든 일에 11일이 걸릴 것이란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우리가 가는 곳의 지명은 '강왕도' (*실제 장소는 강화도) 같은 발음이었어요. 나에게서는 아주 우울하고, 아주 슬프고, 아주 무겁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철조망이 보였어요. 옛날에 동베를린에 있던 것처럼요.

그걸 보니 무척 겁이 났어요. 난 대체 어딜 향하고 있는 걸까, 이미 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도를 올린 다음에 신들에게 나를 소개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집 밖에는 물을 위한 제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우린 거기서 차가운 물을 마신 다음에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닥에 차려져 있는 것들은 모두 낯선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음식들도 하나도 없었죠. 잘 시간이 되자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남편이 김씨 할머니 곁에서 자도 된다고 했어요. 나에게 그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18살에 집을 나온 뒤로 한 번도 엄마와 함께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정말로

....이상하리만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김씨 할머니 댁에서 11일 동안 머물렀어요. 매일 뭔가 일정이 있었죠.

도착한 순간부터 일정이 엄격히 짜여 있어서 새벽 네 시나 세시 반이면 일어나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굶을 할 때 입을 옷을 모두 새로 맞췄어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산신이나 용신이 굶을 허락하는지를 살펴보기도 했죠.

많은 언론이 취재하러 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터뷰를 했죠.

명칭들이 낯설긴 했죠. 김씨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유럽 여자인 내가 김씨 할머니의 다른 한국인 신딸들이 받은 모든 시험들을 치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낯설지 않았어요. 아주 친숙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모두 깜짝 놀랐더군요. 나는 혼이 나가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이미 전에 겪었던 것 같았죠. 김씨 할머니가 내게 무언가를 물어 보면

그 답이 이미 내 안에 들어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죠. 내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서 온 얌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는 접시를 맞추는 거였어요. 여덟 개의 속이 가려진 접시가 있었는데 그 접시들을 바른 순서대로 놓아야 했죠. 접시 안에는 물에서 시작해 재까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접시 여덟 개를 모두 바른 순서대로 놓았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맞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을 불렀어요. 그건 애기씨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접시 놓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문식을 치렀어요.

나 같은 사람이 유럽에서 산다는 건 언제든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머리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예요.

하얀 가운, 주사, 정신병원.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며, 그것이 재능이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정말로 커다란 해방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2010년 가을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5분도 되지 않아 몸 전체가 커다랗게 부어 오른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죽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도 김씨 할머니가 하와이로 오셔서 내가 새로운 영혼을 받았다고 설명해 줬어요.
내가 받은 영혼은 천연두의 영이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새로운 영혼이 언제 내려올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무당 자매들과 늘 함께 있질 못하니까 내림곳을
받은 지 꽤 됐는데도 나는 막 태어난 아이나 버려진 아이 같았어요. 나는 어떻게든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IV

내림굿 다음 날 나는 김씨 할머니 댁의 마당에 있었어요. 멀리 아래에는 무덤이 있었고, 별이 환하게 났어요. 내림굿을 받은 날에는 눈이 많이 와서 서울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눈이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김씨 할머니가 아주 좋은 징조라고 했어요. 다음날은 별이 눈부시게 내리 쬐는 날이었죠.

그런데 끔찍한 두통이 왔어요. 유일한 신체적 변화였죠.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었어요. 난 구석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기랄, 이렇게 멀리 날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다음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냥 굿 때문에 긴장해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 그 긴장이 가버리니 다시 안 좋구나. 저는 다음날 상태가 아주 좋기를 바랐는데 그렇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몸이 무척 안 좋아졌어요.

지독한 감기에 걸렸죠. 김씨 할머니는 굿을 할 때 나한테 집에 가면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굿을 통해 종양이 사라지길 바랬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종양을 치료할 적기를 놓쳐버려 완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정말 경악했어요. 우리는 목요일에 도착했는데 금요일에 의사가 당장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왜 했나, 아이들을 버려두고 모든 문제들을 감수하고서 그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의사한테서 벗어나서 압박감도 사라졌을 때 웃기게도 난 생각했어요. 아냐, 웬지 모르지만 의사가 말한 대로일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어째선지 계속 어떤 목소리가 들려 왔어요. 그 목소리는 내가 아이를 또 하나 갖게 될 거라고 했죠.

누구도 이런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옷은 내림굿 때 입었던 옷이에요. 새하얗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김씨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것들이에요.

난 생각했죠.

좋아, 수술하겠어, 김씨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느낌을 따를 거야. 난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최소한의 외과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죠.

의사가 이틀 뒤에 밤 10시 반에 전화를 해서 얘기했어요.

그라이프 부인, 내일 다시 와요,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아야만 해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겁이 많이 났어요.

나는 다시 몇 시간 동안 제단에 치성을 올렸어요. 난 힘 호수에 있었고 무척 쇠약한 상태였지만 내 안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나에게 말했죠. 정말 강한 확신이었어요. 아니야...저들이 틀렸어.

그건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일 뿐이야. 나의 두려움이 아니야.

나는 틀림없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거야.

수술은 1월 23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2월 2일에 김씨 할머니에 대한 책을 쓴 한국인 교수를 통해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대학엘 방문해서 강연을 했어요. 난 아직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내림곳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내 입을 빌려 신령들의 말을 전하기 시작하고 나서 나는 회복된다는 느낌과 변화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때부터 실제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죠.

... 지금까지도 모든 게 좋아요. 신과 영들을 모시는 것 만으로요.

맺음말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인 신부가 무당과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같은 대화를 독일의 신부와도 나눠보자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한국 무당들이 독일에 와서 카톨릭 신부와 대화를 나눠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위버호수에 있는 우리 마을의 교구 신부였어요. 절대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장을 쓰는 와중에 프란츠 쉴링어 신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볼 만한 사람이 있으니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나는 나를 잃어매던 카톨릭 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는 내 길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나는 이에 대해 그 신부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그는 정말로 드문 신부예요. 그는 가족 사이코드라마 치료도 하죠. 그는 정말로 개방적인 사람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든 신부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네 길을 가라.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과 만족이다 라고 말하죠.

ANDREA

Interview - april 2012
Fischbachau, Bayern, Deutschland
Anwesende : Natacha Nisic, Jean-Yves Pouyat

Das war für mich der absolute Sprung ins schwarze Wasser. Ich habe nicht gewusst, was mich erwartet, was danach wird.

Es war so, dass ich eingeladen war, von einem Bekannten, zum Schamanenkongress an den Mondsee zu fahren, das war 2006.

Und dann habe ich gesagt, nein, ich habe kein Interesse, ich möchte da nicht hinfahren. Und dann hat er mehrmals nachgefragt, ich soll doch bitte mitfahren.

Ok, ich fahre mit, aber ich gehe in keinen Workshop, ich möchte mit keinen Schamanen in Kontakt treten.

Ich bin ganz streng katholisch erzogen und war sechs Jahre in einer Nonnenschule.

Und dann sind wir dahin gefahren, zum Kongress und es hat furchtbar geregnet. Dann ist Frau Kim mit allen Schamanengeschwistern in Hanbuk, ganz farbig, vorbeigegangen. Und ich hab nur gesagt, was ist denn das?

Ich war so fasziniert von diesem Bunten.

Und da hatte ich kurz das Gefühl, als würde sie von meinem eigenem Leben erzählt.

Und bin dann abends um halb elf auf Toilette gegangen und wie ich zurückkomme klopft mir ein Koreaner auf die Schulter und sagt, er möchte mit mir reden und er möchte meine Adresse und Telefonnummer. Und dann habe ich gesagt, nein ich bin verheiratet und habe drei Kinder

- Nein

Und dann meinte er, nein das ist ganz anders und Frau Kim möchte mit mir sprechen, da habe ich gesagt, dass ich keine Frau Kim kenne, also ich mach das nicht.

Und dann hat er den Satz gesagt:

Wir wissen, was mit dir los ist.

Und mit diesem Satz hat er mich dann weich gemacht.

Und dann hat er gesagt, am nächsten Tag ruft die Übersetzerin an, die Deutsch spricht und erklärt mir dann alles und sie möchten, dass ich wiederkomme.

Und da habe ich gesagt, ich bin anderthalb Stunden von hier weg, einfache Fahrt, ich kann das nicht machen und warum und wieso...

Und das war am Donnerstag und dann wirklich, am Freitag um zehn, hat sie angerufen und gesagt, die Frau Kim möchte mit mir sprechen und sie möchte mir erklären, was mit meinem Leben los ist.

So sind wir dann halt nochmal zum Mondsee gefahren.

Und da haben wir dann in Frau Kims Apartment drei Stunden private Audienz gehabt, wo sie mir erzählt hat, was mit mir los ist, also dass ich „Shinbyeong“, diese Schamanenkrankheit habe. Und sie hat mir sehr ausführlich erklärt, was das alles bedeutet und hat mir dann auch erklärt...Also die eine Möglichkeit, wenn ich mich initiieren lasse, als Schamanin...Sie wollte dann auch diese Initiation gleich am Sonntag, da hätte ich gerade mal einen Tag zum Überlegen gehabt...Und was passiert, wenn ich es nicht mache.

Also sie hat mir beide Wege aufgezeigt.

Und dann sind wir nach diesen drei Stunden rausgegangen und ich war danach so irritiert, mein Leben war nicht mehr wie vorher - für uns beide, für mich und meinen Mann.

Ich habe mir gedacht, ich wäre in einem verkehrten Film.

Am Sonntag möchte sie dann gerne diese Initiation machen und ich habe dann so eine Angst und Panik gekriegt und vor allem, ich komme aus einer Familie, also mein Vater und meine Mutter...also ich meine ich bin hier aufgewachsen, jeder kennt unseren Namen und ich habe mir gedacht, also wenn ich so etwas mache.. also das geht einfach nicht.

Und ich habe dann überlegt und war dann am nächsten Tag nochmal dort und Frau Kim hat halt gemeint, das wäre sehr, sehr wichtig und sehr weit fortgeschritten und sie hat mir nicht gesagt, dass sie eine Krankheit an mir sieht, sondern nur diese Schamanenkrankheit und ich hab mich dann entschlossen, nein...das ist zu schnell, ich kann das nicht machen

– ich brauch Zeit.

Sie war dann nicht böse oder so, sie hat mir dann eine Aufgabe gegeben, die ich jeden Tag machen soll, die hat sich für mich auch vernünftig angehört und nachvollziehbar. Das war halt eben ein Morgenritual zu machen, also jeden Tag vor Sonnenaufgang - das habe ich auch gemacht.

Und naja, dieses Gespräch hat mich immer begleitet, war immer da und ich bin dann vier Wochen später mit meiner großen Tochter zum Frauenarzt gegangen, weil ich ihr zeigen wollte, wenn sie gehen muss, wie das ist. Und es war ein Bekannter von uns, der mich seit vielen Jahren behandelt und der hat dann mit bloßem Auge gesagt, Andrea... du hast Krebs.

Und dann stand die Welt für mich total aufm Kopf : drei Kinder, 32 Jahre, an Krebs erkrankt.

Ich habe zwei Tage nur geweint, am zweiten Tag habe ich mir dann gesagt, ok ich habe zwei Möglichkeiten, entweder ich falle in eine totale Depression oder überlege mir jetzt, was ich mache.

Und dann habe ich zu meinem Mann gesagt, ich bin niemanden momentan eine Hilfe, ich muss alleine sein, ich brauche Meer -denn Wasser ist mein Element.

Und dann bin ich alleine mit dem Auto nach Spanien, nach Andalusien ans Meer, habe im Auto geschlafen und hab gesagt, ok was möchte ich machen. Also ich hab jetzt diese Möglichkeit nach Korea zu gehen, obwohl ich nicht weiß, wie diese ganzen Zusammenhänge nicht verstehe und ich hab die andere Möglichkeit: Schulmedizin, die mir einen unheimlichen Druck und Angst macht - was mach ich?

Und dann habe ich zehn Tage meditiert und halt wirklich einfach nur aufs Wasser...

Und dann am zehnten Tag, das war der 5. August, habe ich dann gesagt...ok, ich weiß nicht, wie ich das finanziere...aber ich werde nach Korea gehen. Was immer da auch rauskommt, ins Krankenhaus kann sich jeder legen, aber das mit Korea, das ist einfach noch mein Leben dahinter. Und dann habe ich meiner Übersetzerin nach Hamburg geschrieben und habe dann geschrieben, Frau Lee, ich möchte nach Korea und dann hat sie das von selber entwickelt.

Wie das alles von statten gehen soll, wie viel das koste, wann der Termin ist und es war einfach so, dass wichtig war, dass auch die Gebärmutter drinbleibt, weil nur dadurch kann dieses Initiationsritual nachvollzogen werde, weil es praktisch...wie Sterben und Geburt ist.

Und das war für mich ein Punkt, wo ich schon ein wenig Angst gehabt habe, jetzt weiterhin mit diesem Tumor rumzulaufen... Und dann nicht wissen bleibt der oder wächst der noch. Aber ich hatte so ein Vertrauen.

Ich hatte die Frau Kim ja nur 3 Stunden gesehen, aber das war so eine Herzensbegegnung wie ich sie vorher noch nie hatte, das ich mir gesagt habe, ja ich vertraue dem einfach, also ja sie macht das.

Lärm durch den Stuhl

Der Tag, auf dem das Ritualfest gelegt war, war zuerst der 16. Oktober 2006, aber der Ritualspreis, das war dann bei mir wieder...ich kann das nicht machen, ich krieg niemals das Geld zusammen, es ist einfach so... Und dann habe ich beschlossen, meine Eltern wissen das bis heute nicht, dass ich den Familienschmuck, den ich immer bekommen habe, im Pfandleihhaus zu verkaufen. Und dann hatte ich ein Teil meines Ritualgeld zusammen.

Und dann war der 16. Oktober und wir haben unsere Kinder noch nie abgegeben, also es war klar, wir fliegen zu zweit, mein Mann und ich, aber ohne Kinder und dann haben wir alles arrangiert für die Kinder und dann war am 13. Oktober, als es war dann alles vorbereitet, geht die Denise die Treppe runter und bricht sich den Fuß. Weint nicht, gar nichts und wir haben alle gesagt, der Fuß kann nicht gebrochen sein. Und dann sind wir zum Arzt, der Fuß war gebrochen und die Ärztin hat gesagt, ich kann nicht fliegen, weil sie nicht wissen, ob sie operieren müssen.

Und dann habe ich in Korea angerufen und da hat die Frau Kim furchtbar geschimpft und meinte das sei ein Teil der Schamanenkrankheit, von den negativen Geistern, die auf die Kinder übergehen und ich muss in den Flieger steigen und ich muss kommen und dann habe ich gesagt, nein ich werde mein Kind nicht alleine lassen, selbst wenn ich sterbe. Ich bin Mutter.

Aber ich fliege nicht.

Und ich habe zu der Zeit nicht gewusst, was es bedeutet, dass in Korea schon alles auf Hochtouren gelaufen ist, also drei Tage vorher.

Das habe ich dann erst Jahre später, als ich selber in Korea war gesehen habe, was ... der Altar, das ganze Obst ...das einfach alles fertig war und ich sage ab. Aber das ist einfach mein Kind und das geht vor. Und dann natürlich die ganze Ungewissheit, darf ich wiederkommen, was passiert mit meinem Tumor war dann wieder eine neue Angst...die Flüge umbuchen, wieder mehr Geld...also es war furchtbar.

Aber ich habe es auf mich genommen, ich hab gesagt, ok das muss die ganze Geschichte einfach aushalten. Das wir im Universum und das wir uns alle vertraut sind... Denise hatte dann sechs Wochen lang einen Gips und dann hab ich Anfang November wieder nach Korea geschrieben.

Es war erst ok, ich könnte am 2. Dezember, aber das ist wirklich das letzte Angebot, dass ich kommen kann und mir soll auch klar sein, nochmal kann ich nicht absagen und dass das einfach mit der Schamanenkrankheit zusammenhängt.

Es war alles wunderbar, aber es war schon ...

Also ich bin dann praktisch von Mitte Oktober bis Anfang Dezember mit dem Tumor...

also er ist einfach weitergewachsen.

Und das war mit der viel Unruhe und Angst verbunden. Und es war schon so, je länger es gedauert hat, hab ich immer wieder...ist das die richtige Entscheidung und dann von meiner Familie...also meine Eltern haben mir erklärt, wenn ich das mache, haben sie keine Tochter mehr. Also es war sehr viel emotionaler Schmerz. Seitdem habe ich keinen Kontakt mehr zu meiner Schwester. Also es war wirklich ein Abschied von meiner alten Familie. Und das war schon sehr hart, weil ja keiner wusste, was in Korea passiert, was kommt raus, funktioniert es wirklich, werde ich gesund.

Ich hatte einen sehr spirituellen Bruder und Frau Kim hatte mir beim ersten Treffen erzählt, dass er ebenfalls an der Schamanenkrankheit erkrankt war, aber das das nie jemand erkannt hat und er hatte dann einen sehr schweren Autounfall und hat sich an meinem 14. Geburtstag die Pulsadern aufgeschnitten. Wir hatten einen Altersunterschied von 19 Jahren, also mein Bruder und ich. Und meine Eltern haben dann alles probiert, damit ich auf keinen Fall in eine spirituelle Richtung...also dadurch auch die Nonnenschule und immer vermieden, dass mein Bruder und ich irgendwie einen spirituellen Austausch haben könnten über Spiritualität.

Also von daher war das einfach verboten, unheimlich, nicht erlaubt.

III

Das erste Mal nach Korea. Ich war zu der Zeit sehr schwach, ich hab da bloß noch 50 Kilo oder so gewogen, nach Korea wo ich noch nie gewesen bin, null Ahnung über die Kultur, keine Ahnung, was uns erwartet, wir haben nicht gewusst, wo wir hinkommen. Wir wussten nur, es dauert elf Tage.

Und dann sind wir erst einmal zwei Stunden gefahren, im Dunkeln und es war dann irgendwie, also die Stimmung nach Gangwangdo...für mich hat sich das sehr gedrückt, sehr traurig, sehr schwer angefühlt.

Und dann zu sehen plötzlich, diesen Stacheldraht, wie es früher in Deutschland, Ost-Berlin war...

Also ich hab dann einfach Angst gekriegt und hab mich gefragt, wo komm ich jetzt hin, was passiert jetzt neben der anderen Geschichte, was ist da noch für Gefahr dahinter.

Und da ist dann gebetet worden und ich bin dann vorgestellt worden und wie gesagt, wir haben ja nichts verstanden, also wir haben einfach mitgemacht und draußen war dann noch einmal ein spezieller Altar für das Wasser, da mussten wir dann kaltes Wasser trinken und danach sind wir dann erst in das Schamanenhaus gekommen. Und da war halt auch alles wieder neu, was sich am Boden abspielte, das ganze Essen kannten wir nicht und als dann Schlafenszeit war, war klar, dass wir bei der Frau Kim schlafen durften, also mein Mann und ich und das war für mich einfach so eine Herzensbegegnung und so viel Wärme, weil ich hab seit ich zu Hause ausgezogen bin mit 18 Jahren nie mehr mit meiner Mama geschlafen und das war einfach

...unheimlich berührend.

Wir waren elf Tage im Schamanenhaus, davon war wirklich jeder Tag Programm, also von der Ankunft gab es ein striktes Programm, mit sehr früh aufstehen in der Frühe, also oft um vier Uhr, manchmal schon um halb vier morgens und es war immer beten, dann sind die ganzen Kleider maßgeschneidert worden für die Rituale.

Es waren verschiedene Sachen, also raus in die Natur, nachsehen, ob der Berggeist und der Wassergeist einverstanden sind mit dem Ritual.

Dann war viel Presse da und Fernsehen, also ständig Interviews.

IM DEM SINNE WAR DER NAME FREMD. ABER DAS WAR JA GENAU, WO SIE GESAGT HAT, HIER KOMMT EINE EUROPÄISCHE FRAU, DIE NOCH NIE IN KOREA WAR UND WIRD ALL DIESE PRÜFUNGEN MACHEN, DIE MEINE ANDEREN SCHÜLER IN KOREA AUCH MACHEN UND DAS WAR...

das war nicht fremd...das war Zuhause.

Ich habe alle anderen Leute angeschaut und die anderen waren erschreckt und für mich, also ich bin rausgegangen und für mich war es so, als hätte ich das schon mal erlebt und es war auch so in Korea, wenn sie mich was gefragt hat, war es einfach...dieses Wissen war in mir drin, es war da, ich konnte es nicht erklären woher, aber ich konnte einfach die Antworten geben.

ALSO FÜR MICH WAR DAS EINE DER SCHWIERIGSTEN PRÜFUNGEN. DAS WAREN ACHT SCHÄLCHEN, ZUGEDECKT GESTANDEN SIND UND ICH HAB DIE SCHÄLCHEN IN DIE RICHTIGE REIHENFOLGE BRINGEN MÜSSEN. DAS WAR VON WASSER BIS ASCHE UND ICH HAB ALLE IN DIE RICHTIGE REIHENFOLGE GEBRACHT, ALSO DAS WAR SO FÜR MICH IM NACHHINEIN, WO ICH DAS GEWUSST HABE EINFACH SO WAHNSINN. DAS IST VERTRAUEN, DASS ICH ERKANNT HABE...

Dann haben sie einen bestimmten Gott gerufen, das war der Kindergott, der in mich eintrat. Dann war das mit den Schälchen und dann denk ich, war die Taufe.

Ich sag mal, wenn man in Europa groß wird, da bist du immer am Rande des Wahnsinns und wenn du jemandem erzählst, du hörst Stimmen und erzählst es dem Verkehrte, dann bist du in der Psychatrie.

WEIßE JACKE, SPRITZE- PSYCHATRIE.

Und das war für mich auch mit die größte Befreiung zu wissen, ich bin nicht verkehrt, ich bin nicht alleine und es ist Begabung, es ist Gift.

2010 im Herbst, hab ich eine ganz schlimme Erfahrung gemacht, wo ich lange gebraucht habe, die zu verdauen: ich war in der Dusche und bin dann aus der Dusche rausgegangen und hab dann innerhalb von 5 Minuten meinen ganzen Körper, riesengroß geschwollen gehabt, Herzrasen... ich dachte ich sterbe.

Gott sei Dank, ist die Frau Kim dann nach Hawaii gekommen und die hat mir dann erklärt, dass ich einen neuen Spirit bekommen habe und zwar es war Pocken-Spirit und du weißt nie, wann sich neue Spirits ankündigen und dadurch, dass ich ja nicht ständig in dieser koreanischen Truppe und Umgebung bin... so ist es mir auch noch ganz lange nach der Initiation gegangen, ich habe mich gefühlt wie ein Baby, das geboren worden ist und als Findelkind ausgesetzt und ich muss meinen Weg irgendwie selber finden, was aber der Wahrheit entspricht, aber bei solchen Situationen, das war für mich sehr Angst einflößend.

...Ich bin am nächsten Tag, nach dem Ritualtag bei der Frau Kim auf dem Grundstück, wo das Schamanenhaus ist, da ist weiter unten so eine Grabstelle und es war Sonnenschein, also an meinem Ritualtag hat es geschneit und ganz Seoul war außer sich, weil sie noch nie so viel Schnee gehabt haben und Frau Kim hat gesagt, super Zeichen, toll - und der nächste Tag war strahlend blauer Sonnenschein -

Und ich hatte irre Kopfschmerzen gehabt, also das war das Einzige, was ich körperlich empfand, also ich hatte so Kopfweh gehabt wie noch nie und dann bin ich dort gesessen und hab gesagt, so eine Scheiße, so weit geflogen, so viel Geld, ich merke, es ist nichts anders ...ich war sauer, richtig wütend und das den ganzen Tag über und ich habe geweint.

Am nächsten Tag habe ich mir das dann so erklärt, dass das die ganze Anspannung war. Diese ganze Anspannung ist weggegangen. Ich wollte mich am nächsten Tag einfach toll fühlen und dadurch, dass ich mich nicht toll gefühlt habe, habe ich gesagt, dass das alles nicht funktioniert hat.

Und ich bin dann nach Hause geflogen und ich bin dann auf dem Rückflug sehr krank geworden.

Ich habe eine richtige Schwäche und Grippe bekommen und es war im Ritual so, dass die Frau Kim gesagt hat am 19.ten Tag, wenn ich zu Hause bin, soll ich zum Frauenarzt gehen und soll genau das befolgen, was der Frauenarzt sagt.

Ich hab natürlich in mir drin den Wunsch gehabt, der Tumor ist wegschamanisiert und war total schockiert als er gesagt hat, Andrea jetzt ist es nicht mehr 5 vor 12, jetzt ist es 10 nach 12 und wir waren am Dienstag dort und er hat gesagt Freitag ins Krankenhaus, sofort.

Und dann habe ich furchtbar geweint und dachte alles war umsonst und habe mich gefragt wieso ich das alles gemacht habe, das Risiko auf mich genommen auch wegen meinen Kindern und alles und bin dann nach Hause.

Ich hab dann komischerweise, als ich weg war vom Arzt und dieser Druck weg war... habe ich gesagt, nein also irgendwie glaub ich das alles so nicht und irgendwie ist da meine innerliche Stimme immer wiedergekommen, die mir gesagt hat, dass ich nochmal ein Kind kriege.

Und diese Überzeugung hat mir niemand nehmen können.

Dieses Kleid ist praktisch bei der Initiation, das ganz weiße, bis zur Taufe.

Und ich hab alles, was man hier sieht, von der Frau Kim geschenkt bekommen.

Und dann habe ich gesagt,
ok, ich lasse mich operieren, weil das auch im Ritual so war, aber nicht so wie die
Schulmedizin das möchte, sondern so wie ich das im Gefühl habe und dann habe ich mir
in Stuttgart ein Krankenhaus gesucht und habe einen Minimalinvasiven Eingriff machen
lassen und die haben mich auch für absolut verrückt erklärt.
Die Ärztin hat dann auch zwei Tage später abends um halb elf angerufen und gesagt,
Frau Kalf, kommen sie am nächsten Tag wieder, sie werden das nicht überleben
wir möchten gerne eine komplette Totaloperation machen und das hat mir wirklich richtig
Angst gemacht.

Ich hab dann immer wieder viele Stunden meinen Altar gemacht und bin am Chiemsee
gewesen und war schon sehr schwach, aber es war etwas in mir, dass ich gesagt habe, nein...
das war so eine Sicherheit, das stimmt nicht.

Das ist die Angst von den Anderen, aber nicht meine Angst, immer mit dem Wissen,
ich kriege noch ein Kind.

Die Operation war am 23 Januar und am 2. Februar waren wir an der Universität in
Regensburg durch eine koreanische Professorin, die auch dieses Buch über die Frau Kim
geschrieben hat und habe einen Vortrag gehalten. Ich konnte noch gar nicht richtig stehen,
aber habe einen Vortrag über die Initiation gehalten und durch dieses Anfangen zu arbeiten
und die Geister durch mich sprechen zu lassen, hatte ich dieses Gefühl von Heilung und
absoluter Veränderung und von da an ist es eigentlich nur noch aufwärts gegangen.

...Eigentlich bis heute, also einfach dieses Dienen an den Gott dann einfach, an die Geister.

Nachwort

...Du hast den ganzen koreanischen Film gesehen? Die Idee kam so zustande, dass in
Korea, also in dem Film auch, ein katholischer Pfarrer mit der Schamanin, also das sind
die gleichen Fragen wie das an den deutschen Pfarrer gegangen ist und es war so das die
Übersetzerin mir gesagt hat, sie kommen nach Deutschland und sie hätten gerne eine
katholischen Pfarrer, den sie befragen würden.

Da habe ich zuerst mal an unseren Dorfpfarrer in Übersee gedacht und dann gedacht,
dass das niemals funktionieren würde und dann habe ich zurückgeschrieben, dass sie mir
nicht böse sein sollen, aber ich wüsste niemanden und beim Schreiben fällt mir dann der
Herr Franz Schillinger ein und dann habe ich gesagt, dass ich doch jemanden kenne
und fragen werde, ob er das machen würde

und für mich, durch meine strenge katholische Erziehung, war das nochmal der letzte
Befreiungsschlag, also diese Begegnung im Interview und das ich von dem Pfarrer diese
Erlaubnis für meinen Weg bekommen habe, das war...

das war mitunter das aller Wichtigste und da bin ich total dankbar. Das ist ein total irrer
Pfarrer, der macht Familienaufstellungen, der ist einfach ganz, also so wie jeder Pfarrer
sein sollte, offen und hat vom Leben Ahnung, nicht bloß gelesen in einem Buch, sondern er
weiß einfach, was Leben ist.

Er sagt nicht, du musst, sonst kommst du in die Hölle, sondern er sagt, geh deinen Weg
und Hauptsache du bist zufrieden und glücklich.

ANDREA

Interview - April 2012
Fischbachau, Bavaria, Germany
Attendees : Natacha Nisic, Jean-Yves Pouyat

For me, it was a total leap into black water. I did not know what awaited me, what was to come.

I was invited by an acquaintance to travel to a shaman conference at the Mondsee lake in 2006.

And I said no, I'm not interested, I don't want to go. But he asked me multiple times and told me that I should go.

Ok, I will go along, but I won't participate in any workshop, I don't want to make contact with any shamans.

I had a strict Catholic upbringing and went to a convent school for six years.

So we went to the conference, and it rained very hard. Then Ms. Kim walked by with all of the shaman siblings, wearing a very colorful hanbok. I just said, "what's going on?"

I was so fascinated by those colors.

And then I had a fleeting sense that she should be told about my life.

Around 10:30 p.m. I went to the washroom, and when I came back, a Korean man tapped my shoulder and said that he would like to speak to me and that he would like to have my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nd I said no, I'm married and have three children.

- No.

He said, no, that's not the case, and that Ms. Kim would like to speak with me, but I said I didn't know Ms. Kim, so I won't do it.

And then he spoke the sentence:

We know what's going on with you.

And he got me with that sentence.

And then he said that the next day the German translator would call and explain everything, and that they would like me to come back.

And I said that I am one and a half hours away by car, I can't do that and why and how...

And that was Thursday, and actually on Friday at ten o'clock the translator called me and said Ms. Kim would like to speak to me and would like to explain to me what is going on with my life.

So then we went to the Mondsee lake again.

And there we had a private audience for three hours with Ms. Kim in her apartment, and she told me what was wrong with me, that I was suffering from "Shinbyeong," this shaman sickness. And she explained to me in great detail what everything meant, and she also explained...well, the possibility of being initiated as a shaman...she wanted to do the initiation that very Sunday, so I would have had only one day to think it over... and what would happen if I didn't do it. So she showed me both paths.

And then we left after those three hours, and I was so unsettled; my life was irretrievably changed – for us both, for my husband and me.

I thought, it's like I am in a messed-up movie.

She wanted to perform the initiation on Sunday, and then I got scared and panicked; first and foremost I come from a family, so my father and my mother...well, I mean I was raised here, everyone knows us, and I thought, if I do something like this...well, it's just not possible.

Then I thought it over, and I was there again the next day and Ms. Kim just said that it was very, very important and very far advanced, and she didn't tell me that she saw a disease in me, but rather only this shaman sickness, and I decided at that point, no...it's too fast, I can't do this.

– I need time.

She wasn't upset or anything, she listened to me reasonably and sensibly, and she gave me an assignment that I was to perform daily. It was just to perform a morning ritual each day before sunrise - which I did.

And well, this conversation stayed with me, it was always there, and four weeks later I went with my older daughter to the gynecologist, because I wanted to show her what it is like, for when she has to go there. And the gynecologist was a friend of ours who has treated me for many years, and just by looking at me he said, Andrea...you have cancer.

And then my world totally turned upside down: three children, 32 years old, suffering from cancer.

I did nothing but cry for two days, and on the second day I said to myself, ok, I have two options: either I plunge into total depression or I think about what to do now.

And then I told my husband that I'm no help to anyone right now, I need to be alone, I need the sea – because water is my element.

And then I drove alone by car to Spain, to Andalusia on the seashore, I slept in the car and I said ok, what would I like to do. Well, I have this opportunity to go to Korea, even though I don't know how all of this is related, and I have the other option: conventional medicine, which instills incredible pressure and fear in me – what do I do?

And then I meditated for ten days and really just looked at the water...

And on the tenth day, it was August 5th, I said...ok, I don't know how I will finance it... but I will go to Korea. Whatever it turns out to be, anybody can lay in the hospital, but this thing with Korea, my entire life is still behind this. And I wrote to the interpreter in Hamburg and I wrote, Ms. Lee, I would like to go to Korea, and she took it from there.

How everything should proceed; how much it would cost; the date of the appointment; and just that it was important that the uterus not be removed, because only through it can the initiation ritual be reenacted, as it is essentially...like life and death.

And I was already a bit scared at that point, to keep walking around with this tumor... and not knowing whether it would remain or grow more. But I had such faith.

I had only seen Ms. Kim for 3 hours, but it was a heart-to-heart encounter like none that I had ever before experienced, so I told myself: yes, I will simply trust this, she will do it.

Noise from the chair

The day the ritual was scheduled on was initially October 16, 2006, but the fee for the ritual, that was for me...I can't do this, I will never raise the money, it's just...and then I resolved—my parents still don't know to this day—to pawn the family heirlooms that I had always kept. And then I had part of the money for the ritual.

And then it was October 16, and although we had never left our children with others, it was clear that we were traveling very far, my husband and I, but without our children, and we had made all the arrangements for them, but on October 13, when everything was ready, Denise went down the stairs and broke her foot. She didn't cry at all, and we all said that her foot couldn't be broken. And then we went to the doctor, her foot was broken and the doctor said that I couldn't fly because she didn't know whether or not she would have to operate.

And then I called Korea and Ms. Kim scolded me terribly, telling me that it was part of the shaman sickness, from the negative spirits that were besetting my children, and that I had to get on the airplane and come, and then I said no, I won't leave my child alone, even if I die. But I wouldn't fly. And I didn't know what it mattered at the time, that everything in Korea was already running at full blast three days ahead of time.

Only years later did I see for myself...the altar, all the fruit...everything was finished when I canceled. But my child simply takes priority. And then naturally the whole uncertainty, whether I would again be allowed to come; a new fear, again, of what would happen with my tumor...to re-book the flight, more money again...well, it was awful.

But I took it upon myself, I said ok, I just need to stick the entire story out. We are in the universe, and we are all familiar with it... Denise was in a cast for six weeks, and I wrote to Korea again in the beginning of November.

It was ok, I could go in December 2, but it was really the final offer for me to come, and also it was supposed to be clear to me that I couldn't cancel again, and that all this was simply connected to the shaman sickness.

It was all wonderful, but it was already...

Well, I'm practically with the tumor from the middle of October until the beginning of December...

so it simply grew more.

And that involved a lot of anxiety and fear. And it was the case that the longer it took, the more I thought about it...is it the right choice, and also about my family...well, my parents told me that if I did it, I wouldn't be their daughter anymore. It was a lot of emotional pain. I haven't had any further contact with my sister since then. So, it was really a parting from my old family. And it was very difficult, because no one knew what would happen in Korea, what would come of it, whether it would actually work, whether I would be healthy..

I had a very spiritual brother, and Ms. Kim told me at our first meeting that he, too, was afflicted with the shaman sickness, but nobody ever recognized that; and then he had a very serious car accident and slit his wrists on my fourteenth birthday. We had a 19-year age gap, my brother and I. And then my parents tried everything to ensure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I have spiritual tendencies... so as a result, Catholic school and always avoiding a situation where my brother and I could somehow have a spiritual exchange.

So, it was simply forbidden; really, not allowed.

The first time to Korea.

I was very weak at that time, I weighed just 50 kilos or so; I had never been to Korea before, and had no idea about the culture, no idea what awaited us, we didn't know where we would arrive. We only knew that it would last eleven days.

And first we drove for two hours in the dark, and it was somehow, well, the atmosphere of Gangwangdo [Ed:Ganghwado]...for me it felt very gloomy, very sad, and very heavy.

And then to suddenly see this barbed wire, like the way it used to be in Germany, in East Berlin...

So I just became anxious and asked myself, where have I ended up, what happens now alongside the other story, what kind of danger is behind there.

And then there were prayers, and I was introduced, and like I said before, we didn't understand anything, we just went along; and outside there was a special altar for the water, we had to drink cold water there, and after that we came into the shamans' house. And everything that happened there on the ground was just new, we didn't know any of the food, and when it was bedtime, it was clear that my husband and I were allowed to sleep with Ms. Kim, and for me that was such a heart-to-heart encounter, because ever since moving out at age 18 I've never again slept with my mother and it was just

...strangely touching.

We stayed at the shamans' house for eleven days, and really there was a program every day, so from our arrival there was a strict schedule of waking up very early, often around four o'clock, sometimes even half past three, and then there were always prayers, and then all the clothes were tailored for the ritual.

There were various things, like going out into nature to see whether the mountain spirit and the water spirit approved of the ritual.

There was a lot of press and television, so constant interviews.

IN A SENSE THE NAME WAS FOREIGN. BUT IT WAS EXACTLY WHAT SHE SAID, HERE COMES A EUROPEAN WOMAN WHO HAS NEVER BEEN TO KOREA BEFORE AND WHO WILL TAKE ALL OF THESE TESTS THAT MY OTHER STUDENTS IN KOREA ALSO TAKE, AND IT WAS...

it was not foreign...it was home.

I looked at all the other people and they were terrified; and as for me, well, I went out, and for me it was as if I had already experienced it, and it was also the case in Korea that if she asked me something, it was simply...this knowledge was within me, it was there; I couldn't explain where it came from, but I could simply give the answers.

WELL, FOR ME IT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TESTS. THERE WERE EIGHT SMALL BOWLS THAT STOOD COVERED AND I HAD TO PUT THEM IN THE RIGHT ORDER. FROM WATER UNTIL ASHES, I PUT THEM ALL IN THE RIGHT ORDER; WELL, IN RETROSPECT, FOR ME IT IS RIDICULOUS THAT I KNEW THAT. IT IS FAITH THAT I PERCEIVED IT...

Then she called a certain god, it was the god of children, and it entered me. Then that happened with the small bowls and then, I think, was the christening.

Let me say, when you grow up in Europe, you are always on the verge of madness, and when you tell someone that you hear voices and tell it to the wrong person, then you find yourself in the psychiatric ward.

WHITE JACKET, INJECTIONS, PSYCHIATRIC WARD.

And it was also the greatest relief for me to know that I am not messed up; I am not alone, and it is a talent, a gift.

In autumn 2010 I had a really terrible experience that I needed a long time to come to terms with: I was in the shower and when I came out, within five minutes my body was tremendously swollen, racing heart... I thought I was dying.

Thank goodness, Ms. Kim came to Hawaii then and explained to me that I received a new spirit, in fact, the spirit of smallpox, and you never know when new spirits announce themselves, and since I'm not always in this Korean group and environment... it was this way for me a for a long time after the initiation; I felt like a baby that has been born and abandoned, and I need to somehow find my own way myself, though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but facing these situations was very scary for me.

...The day after the ritual I was with Ms. Kim at the plot of land – where the shamans' house is, there is a gravesite under there – and there was sunshine; well, on the day of my ritual it snowed and all of Seoul was beside itself, because they had never had so much snow before, and Ms. Kim said, great sign, terrific, and the next day there was sparkling blue sunshine.

And I had an excruciating headache, that was the only thing I felt physically; I had a headache like none I had ever had before and then I sat there and said, this is such shit, I flew so far, spent so much money, but I feel like nothing is different...I was angry, really furious, and I cried all day long.

The next day I told myself that it was the tension that had all been released. I just wanted to feel great the next day, and as a result, when I didn't feel great, I said that nothing had worked.

And I flew back home and became very sick on the return flight.

I was really weak and caught the flu, and in the ritual Ms. Kim said that when I went home, on the nineteenth day I should go to the gynecologist and do exactly what the gynecologist says.

Inside, I naturally wished that the tumor had been removed by the shaman ceremony, and was totally shocked when he said, Andrea, this is beyond urgent; we were there on Thursday, and he said go to the hospital on Friday, right away.

And then I cried terribly and thought that everything was to no avail, and I asked myself why I took all this risk upon myself, also for my children, and then I went home.

Strangely enough, when I left the doctor this pressure was gone...I said no, well, somehow I didn't believe all of it, and somehow my inner voice always came back and told me that I would have another child.

And no one could take that conviction from me.

This clothing is used at the initiation; it is entirely white up until the christening.

And I received everything you see here from Ms. Kim as a gift.

And then I said,
ok, I will have the operation because it was also discussed in the ritual, but not according to conventional medicine; I will follow my feeling, and then I found myself a hospital in Stuttgart where I had a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and they all said that I was totally insane.
The doctor called two days later at 10:30 p.m. and said Ms. Kalff, come again tomorrow, you will not survive.
We want to perform a complete hysterectomy, and that really scared me.

Then I built my altar for hours and hours, and I went to the Chiemsee lake, and I was already very weak, but there was always something inside me that said, no...that was such a certainty, that isn't right.

It is the fear of others, but not my fear; I always knew that I would have another child.

The operation was on January 23, and on February 2 we went the University of Regensburg through a Korean professor who had written a book about Ms. Kim, and I gave a lecture there. I couldn't stand up properly at all, but I gave a talk about the initiation, and by beginning to work and by letting the spirits speak through me, I had this feeling of healing and absolute change, and really it only went up from there.

...Really up to this day, to simply serve the god, the spirits.

Epilogue

... You watched the entire Korean film? The idea materialized, in Korea and also in the film, to have a Catholic priest with the female shaman, so these were the same questions that were asked to the German priest, and it turned out that the translator said to me that they will come to Germany and would like to interview a Catholic priest.

I first thought of our village priest in Übersee, and then I realized that it would never work, and I wrote back telling them not to be upset with me but I didn't know anyone, but while I was writing, Father Franz Schillinger came to mind, and I said that I knew someone and would ask him whether he would do it.

And for me, through my strict Catholic upbringing, this was once again the final liberation, my meeting the priest at the interview and my receiving the priest's permission for my path, it was...

it was sometime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for that I am completely thankful; he is an amazing priest who does family therapy, and he is simply how every priest should be, honest, and he understands life, not just what he reads in a book; rather, he knows what life is.

He doesn't say that you have to or you will go to Hell; rather, he says to go on your path, and the most critical thing is that you are content and happy.

Natacha Nisic

In the work of Natacha Nisic (born in Grenoble, France in 1967), there is a constant search for the magic, invisibl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words, interpretation, symbol and ritual. Her work weaves links between stories, tales from past and present, to culminate in a project, usually a video or film, that reveals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own and the hidden, the spoken and the unspoken.

Awarded residencies at the Villa Kujoyama in 2001 and the Villa Médicis in 2007, Natacha Nisic has made numerous exhibitions and films that bring the question of the image into play. For this she uses different media: Super 8, 16 mm, video, photography and drawing. Among others, she has presented her work at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at the K21 in Düsseldorf and prepares for 2013 a solo exhibition at the Jeu de Paume in Paris as well as a film, *Andrea's Sky*, produced by the German-French channel Arte .

Park Chan-kyong

Park Chan-kyong (b. 1965) is an artist and a filmmaker based in Seoul. His subjects have extended from the Cold War to traditional Korean religious culture, from “media oriented memory” to “history reconstruction.” He has produced media based works such as *Sets*(2000), *Power Passage*(2004), *Flying*(2005), *Sindoan*(2008), *Radiance*(2010), *Anyang Paradise City*(2011), *Night Fishing*(2011, co-directed with Park Chan-wook) and *Mansin*(2013).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international venues, such as Gwangju Biennale in Korea, De Appel in Amsterdam, RedCat Gallery in Los Angeles, Kunstverein in Frankfurt and many others. He has won various prizes including Hermès Korea Misulsang(2004), Golden Bear Prize for short films of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2011) and Best Korean Film of the Jeonju Internation Film Festival(2011).

나타샤 니직

나타샤 니직(1967년 프랑스 그로노블 생)의 작업에는 이미지, 단어, 해석, 상징 그리고 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술적 관계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가 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주로 비디오나 필름의 형태를 띄는 그녀의 작업은 보여지는 것과 은폐되는 것,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2001년 빌라 쿠조야마 레지던시 및 2007년 빌라 메디치 레지던시를 거친 나타샤 니직은 8mm, 16 mm, 비디오, 사진,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전시와 영상작업을 통해 이미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 왔다. 그녀의 작업은 파리 퐁피두 센터, 독일 뒤셀도르프의 K21 등 여러 곳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파리 죄드폼 미술관에서의 개인전과 불독 채널 아르떼가 제작을 맡은 <안드레아의 하늘 Le Ciel d'Andrea>이라는 영화를 준비 중이다.

박찬경

박찬경(1965년 생)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다. 그는 냉전, 한국의 전통 종교 문화, ‘미디어-기억’, ‘역사의 재구성’ 등을 주제로 다룬다. 주요 영상 작업으로는 <세트>(2000), <파워 통로>(2004), <비행>(2005), <신도안>(2008), <광명천지>(2010),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2011), <파란만장>(2011, 박찬욱 공동 감독), <만신>(2013) 등이 있으며 광주 비엔날레, 암스테르담의 드 아펠 아트센터, 로스엔젤레스의 레드캣 갤러리, 프랑크푸르트의 쿤스트 페어라인 등 여러 곳에서 작품이 소개된 바 있다.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4),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2011),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 경쟁부문 대상(2011) 등을 수상하였다.

EXHIBITION

K.W. Complex - Natacha Nisic, Park Chan-kyong
 Produced by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Venue: Atelier Hermès
 Period: 2012.10.26. - 2012.12.18

Pierre-Alexis Dumas
 (President,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Catherine Tsekenis
 (Director,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lex Han
 (Managing Director, Hermès Korea)
 Beck Jee-sook
 (Artistic Director, Atelier Hermès)
 Ju Youn (Julia) Kim
 (Communication Director, Hermès Korea)
 Jee H. Lew
 (Exhibition Coordinator, Hermès Korea)
 Frederic Hubin
 (Head of Communicatio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CKNOWLEDGEMENTS

Natacha Nisic
 -Granted by Fondation Nationale d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
 -*The Bachelor*: Sandra Richard
 -*Andrea*, translation from German to English: Jutta
 Dobberstein
 -*The True Robe*: Peggy Lubrano, Sandra Richard

ARTIST BOOK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2013, Seoul

Contributors: Park Chan-kyong, Natacha Nisic
 Translators: Song Meekyung (from Korean to English:
 K.W. Complex, from French to Korean: The Father,
 The Mother, The Daughter), Charles Penwarden (from
 French to English: The Father, The Mother, The
 Daughter), Jae-eun Gwak (from English to Korean:
 N.W.), Kyung-hee Lee (from Korean to English:
 Dialogue with Kim Keum-hwa), Duck-kyun Lee (from
 German to Korean: Andrea), Joseph Fungsang (from
 German to English: Andrea)
 Editor: Yumi Kang
 Editorial Support: Beck Jee-sook, Jee H. Lew
 Designer: Jin Jung
 Photos of the exhibition by Kiyong Nam
 Printed by Dongin Print

Paper (cover stock): Cotton low
 Paper (inside): Snow white, uncoated paper
 Typeface: Letter Gothic, Yoon Myoungjo, Nanum
 Software: Adobe Indesign 4.0
 Edition: 1,000 copies

Copyright © 2013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contributors and the artist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ATELIER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630-26 Shinsa-dong, Gangnam-gu
 Seoul 135-895, Korea
 T +82 2 544 7722 / F +82 2 545 1224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24, Faubourg Saint-Honoré
 75008 Paris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unded over 175 years ago, the house of Hermès is
 enriched by its long history and by a commitment to
 humanist values that has underpinned its development
 from the outset-values that are best defined as a
 shared vision, handed down over five generations
 of directors. A vision based on the harmonious,
 coherent development of the house's financial, human
 and cultural capital. Each generation of directors
 - and now the sixth - has carried forward, simply
 and in its own way, the belief that a business
 that makes nothing but money is poor indeed; that a
 truly successful business must also know how to "add
 value" in human and cultural terms.

Our commitment to support men and women working
 outside our own immediate sphere of activity is,
 then, nothing new. Over time, that commitment has
 been formalized and consolidated, culminating in
 the creation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The projects we support resonate with the core
 values of the world of Hermès: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craft skills, support for the creative
 arts, a commitment to education and training and
 environmental concerns.

May our tradition of disinterested, open, responsive
 patronage continue, testifying to our humanist,
 philanthropic values.

Pierre-Alexis Dumas
 President,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